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5월 21일(음력 4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680 호

지구촌 대재앙…'우주의 경고'

특별칼럼



한 여중생이 5월 14일 중국 쓰촨(四川)성 베이촨(北川)에서 이틀 전의 강진으로 붕괴된 중학교 잔해 속에서 구출된 뒤 운반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태풍·대지진 등 인류 욕망이 불러온 재앙
한반도 대운하로 인한 물의 재앙 우려도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하여 지구촌에 대재앙이 거듭되고 있다.

군사독재의 나라 미얀마에서 대재앙 싸이클론이 일어났다.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이재민이 백 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그곳은 40만 톤의 곡식을 수출하는 곡창지대인데, 그곳이 초토화되었으므로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칠 것이라 한다.

미얀마 국사독재 정권은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구호 물품만 받아쓰겠다고 한다. 들리는 바로는 군사정권의 관리들이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그 군사독재 정권의 관리들은 죽은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치유하고 있을까. 또 이재민들을 어떻게 보호 관리하고 있을까.

그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행위이다.

미얀마의 재앙에 이어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쓰촨성 재난구조본부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진 발생과 함께 도시 전체의 건물 80%가 붕괴된 베이촨현의 사망자는 7천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들려온 바로는, 학교들이 무너져 수업받던 학생 몇 백 몇 천 명씩이 한꺼번에 매몰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소름끼치는 일이다.

티베트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나라 거대 중국의 대재앙 이외에 미국과 브라질 일본 등에서도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한 환경 대재앙은 거듭되고 있다. 한반도라고 해서, 그러한 재앙이 닥쳐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성난 얼굴로 그 대재앙들을 살펴볼 일이다.

싸이클론이 자연 대재앙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인류의 문명이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전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땅속의 기름을 길어 올려 태우고, 혹은 원자로를 통해 열을 뿜어내고, 프레온 가스 등으로 인하여 대기층을 오염시킨 까닭으로 지구는 거듭 달구어져 왔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려 해수면이 높아간다. 바닷물이 비정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과 그 반대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쉬바뀜으로 인하여 바람의 흐름에 혼란이 일어남으로써 뜻밖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폭우나 폭설이 쏟아진다.

대지진은 얇은 지층의 주저앉음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구촌 이곳저곳의 도회지들에서 짓고 있는 고층 건물들과 땅 속에서 시험하고 있는 핵무기의 폭발들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바야흐로 미국 쇠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하고 있다. 반대하는 시민들은 동물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그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기다가 이 땅의 모든 닭과 오리와 칠면조들에게 조류독감이 만연되고 있다. 그것은 날씨가 더워도 발병하고,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베트남 형이다. 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것들을 무차별 산 채로 매몰 처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확산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들은 공기와 땅의 학대로 인한 대재앙인데, 앞으로 예견되는 또 하나의 재앙이 있다. 그것은 바다의 오염으로 인한 대재앙이다.

우리는 강을 통해 생활 오폐수와 공장 오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고, 핵폐기물을 먼 바다에 버리고들 있다. 기름 실은 배들이 좌초되면서 쏟아낸 원유로 인하여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곤 한다. 더럽혀진 지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바다는 이제 천천히 그 자정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 백화(사막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멀지 않아 바다가 인류를 향해 독을 뿜어내는 대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것을 앞당기는 일을 정부가 강행하려고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 대운하이다.

한반도의 남북 대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물의 순환을 거스르는 광기이다. 강물을 운송수단으로 쓰고, 운하에 배를 띄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물의 흐름을 막는 죄악이다.

기차와 고속도로가 있는데 운하가 무슨 소용 있단 말인가. 그것은 땅 투기꾼, 건설회사에게 사업주고 리베이트 받아 챙길 정치꾼들의 장난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새만금보다 더 엄청난 모험이다. 그것은 홍수 대란 교통 대란 지하수 대란 생태계 대란을 불러올 것이다.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물의 깊이는 최소한 6미터가 기본이다. 해발을 기준으로 할 때 땅이 낮은 쪽은 둑을 높이 쌓아야 하고 높은 쪽은 땅을 깊이 파내야 한다.

가뭄에 운하의 물 깊이 6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홍수가 지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이때는 범람의 재앙이 일어난다.

김상종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한 칼럼에서 홍수 위험 지역이 30여 곳이고, 자동차 건너는 다리, 기차 건너는 다리 등 1백여 개를 철거하고 다시 운하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강의 흐름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이 둑을 만드는 과정, 기존의 다리들을 파괴하고 운하용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물의 흐름 대란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한다. 해발을 기준으로 높은 곳을 6미터 이상 깊이 팔 경우 지하수가 모두 그리로 모여들면 근처의 모든 지하수가 마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는 얼마나 파괴되는가.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 국민들은 썩은 물을 먹어야 한다. 배가 다니면 폐기름이 자동적으로 유출된다. 생활 오폐수와 축산오염물과 공장폐수와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물까지 합하면 운하 속에 담긴 물은 공장수로도 쓸 수 없는 4급수가 될 것이다. 이 물 속에서 고기가 살겠는가. 우리는 엄청난 많은 먹는 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얀마에 닥친 대재앙에 군사독재 정권의 관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피해를 키웠다는 것과 중국의 대지진이 천지우주의 대 경고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대운하 사업 강행의 오만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

부처님은 인류에게 물 흐르듯 꽃 피듯이 살라고 가르쳤다.



한승원 (소설가)

'허허당의 세상만사' 쉽니다

社告

미얀마·중국에 자비의 손길을

조계종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와 중국의 대지진 피해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구호성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원력을 가진 불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27811, 농협 053-17-005950
■예금주 :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모금기간 : 6월 30일까지
■문의 :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2011-1823)

東大 의과·생명과학대 일산 이전

첨단의료단지 조성

경기도·고양시와 MOU 체결

동국대(총장 오영교) 의과대와 생명과학대가 경기 고양시 일산병원 인근 부지로 옮겨져 의료연구단지가 조성된다.

동국대는 5월 15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 고양시(시장 강현석)와 동국대 캠퍼스 설립과 첨단의료복합단지(메디클러스터) 조성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는 동국대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고양시는 일산 동국대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식사동 일대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적극 유치하게 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일본 고베의료산업단지, 싱가폴 바이오폴리스 등이 있으며, 의료와 의료산업 등이 복합된 전문단지다. 일산에 조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美 노스캐롤라이나의 메디클러스터인 RTP(Research Triangle Park)를 벤치마킹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학 유치는 경기도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동국대와의 이번 협약이 산학연 협력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전통 학교기능으로 일산캠퍼스는 미래지향적 기능으로 분리 · 운영할 방침"이라며,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11년까지 100만여㎡의 부지에 1조14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신약 · 의료기기개발원과 연구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 · 송도 · 오송 · 경기 고양 등 전국의 지자체가 유치에 나섰으며, 정부는 올 하반기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양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로 동국대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지 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이명박 정부 불교계 홀대 '징후'

사찰 봉축연등 달기 '행정조치' 처리 논란 빚어
"청와대 중심으로 종교편향 조짐" 우려 목소리

청와대를 중심으로 불교계를 무시 또는 홀대하는 종교편향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개신교 장로'가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우려됐던 문제들이 드디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 달기에서 보여준 '결례'는 불교계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 봉은사 관계자는 "보통 부처님오신날이면 관행적으로 주요 사찰에 '연등 값'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사리에 맞지 않아 돌려보낸 일이 있다"고 말했다. 봉은사에서 청와대 측에 제기한 문제는 ▲ 연등은 개인 정성인데 '행정조치', '지침'으로 전국 각 사찰에 연등을 달게 한 점 ▲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사찰을 찾지 않고 지방 공무원에게 연등 값을 보내게 한 점 ▲ 대통령 인장이 찍힌 봉투를 쓰지 않은 점 등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청와대불자회 회장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13일 직접 봉은사를 방문, 주지 명진 스님에게 "혼날만한 일이었다"고 사과해 일단락 됐다.

청와대의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종교 조사도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시사주간지는 최근 "3월 20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국가인권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며 조사항목에 '종교'를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종교 항목은 이력서에서도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학교 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학교법인 대광의 예배강요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던 강의석(22)씨가 5월 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것에도 일각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1심 판결과 현 정부 하에 벌어진 2심 판결이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강씨는 고등학교 입학 시 대광학원 측의 선서문을 따랐으며 2학년 때까지는 종교수업에 임했고 수요예배 등에도 참여했으므로 종교행위 자체가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요지로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해 "강의석씨 사건 담당판사가 개신교인이고 대광고등학교를 설립한 모교회의 장로여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청소년의 인권 및 종교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타 사회기관들과의 연대로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역사찰이나 불교계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기 힘들어졌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스님은 "지방 기관장들 중 기독교 신자가 많은데, 이들이 불교 행사 때는 어지간하면 오지 않으려 한다"며 "예전에는 개신교 기관장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행사 시간을 자신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일도 잦다. 청와대의 종교편향적 태도에 지방 기관장들까지 부화뇌동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공동대표(서강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들이 특정 종교에 편중돼 있을 때는 그 성향이 아랫사람들에게 바로 연결된다"면서 "종교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지라도 고위로 올라갈수록 종교적 색깔은 빼고 공인답게 처신해야 한다. 대통령도 개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대통령이 움직이면 공적인 사안이 되므로 종교관련 행사, 언행은 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무자년 하안거 결제 입제

법전·혜초 종정 하안거 결제법어 발표

5월 19일(음력 4월 15일) 전국 100여개 선원, 2200여 수좌들이 일제히 불기 2552년 하안거 수행정진에 돌입한 가운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15일 하안거 결제법어를 각각 발표했다.

법전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백장(百丈) 선사와 제자들의 문답을 예시하고 "백장을 비롯한 모든 종사들은 가시덤불 같은 선문답으로써 사람을 시험했다"며 "납자들은 활구(活句)를 참구할 뿐이지 절대로 사구(死句)로 헤아리지 않는다"고 납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목도 입도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백장 선사의 물음을 타파하기 위해, 부디 화두를 잘 지니고 이번 하안거에도 열심히 참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설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수행자는 틀에 박힌 관념의 허상을 벗어나야 진정으로 도(道)에 이를수 있다"며 "이번 안거에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가다듬어 일추석천(一錐石穿: 하나의 송곳이 바위를 뚫듯)의 분심으로 부처님의 지견(佛智之見)을 개시오입(開示悟入: 열어주고 보여주며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종림 하안거 결제법어 차주 상보)

김성우 기자

임란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 봉행

태고종, 23일 통영 한산도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등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대재가 통영 한산도에서 열린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오는 5월 23일 오후 1시~5시 경남 통영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및 한산도 제승당에서 '임진왜란 전몰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통영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영산대재는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5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법회에서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선상방생법회와 특산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이번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는 지난해 독도 영산대재에 이어 두 번째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직능직 종회의원 도공·도문 스님

조계종 직능대표선출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장적, 지명 스님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교육과 법제분야의 직능직 종회의원에 전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과 조계사 재무국장 도문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6일 잇달라 관련회의를 열고 두 스님의 후보자격을 심사, 교육와 법제 분야의 신임 직능직 종회의원으로 선출했다.

도공 스님은 74 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뒤 법주사 주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청주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도문 스님은 97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고 13대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사 부주지, 재무국장 소임을 맡았다. 김성우 기자

북경 올림픽 선전기원 체육인 불자 수련대회

오는 8월 열릴 '베이징 올림픽'을 석 달 여 앞두고 체육인불자들을 위한 기도와 화합의 장이 열린다.

조계종포교원(원장 혜총)과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는 국가대표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5월 23~24일 양산 통도사에서 '베이징 올림픽 선전기원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수련회에는 올림픽 참가 국가대표선수 20여명 및 역대 불자 금메달리스트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대회는 수계법회, 걸기명상, 법문, 문화한마당 등 불자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김강진 기자


5월 12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사진=박재완 기자>

전국서 봉축법요식 일제 봉행

조계사 1만 사부대중 참석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이 주관하는 조계사 법요식은 5월 12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요식에는 종단의 출·재가 대표자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통합민주당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은 MBC, KBS1TV, BBS, BTN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 총화종

(재)한국불교 총화종 유지재단

종 정 이동광
부종정 이정송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최만재
종회부의장 기혜성, 김운산
교육원장 이남은
포교원장 정일광
호계원장 김혜각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백만우
선 원 장 이만오
선거관리위원장 조고담

총무부장 박현오
재무부장 강설오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이지우
교무부장 문혜각

감찰부장 이법오
교육부장 최일광
포교부장 박지혁
문화관리부장 문보현
호계기획부장 황해월
문화부장 박보광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서울(남)제3교구종무원장 김범능
경기(북부)종무원장 유법경
경기(동,남)종무원장 최일광
경기(성남)종무원장 정법연

경기(서부)종무원장 김혜암
대전종무원장 윤법전
충청종무원장 김법현
경북종무원장 정일광
울산교구종무원장 백만우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박심공
부산종무원장 최만재
강원 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강원 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광주,전남 종무원장 김현산
제주총무원장 김봉도

■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수진사 TEL 031)592-8891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한국불교 태고종

재단법인 태고원 부모산 연화사

(전통사찰 77호)

주지 보안

사부대중일동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95-29 TEL 043)231-3807 / FAX 043)232-3807

세계 불교영화 한자리에

'WIFF 2008' 내달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서

세계의 불교영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2회 불탄(佛誕)국제영화제(Wesak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하 'WIFF 2008')가 6월 14-15일, 21-22일 두 차례 열린다.

2006년 첫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고무된 WIFF조직위원회는 금년에도 불교를 주제로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및 아동용 영화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상매체를 통한 일반인의 불교입문과 수행생활을 돕고자 클랑 밸리의 14개 불교단체가 공동으로 협찬하는 이번 'WIFF 2008' 행사는 말레이시아관광청에서 독점임대한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3개 극장에서 진행된다.

'WIFF 2008'은 교육선도용 비영리 행사이며 모든 상영물의 관람은 전액무료다. 6월14일 저녁 개회식에서는 미국의 여가수 겸 작곡가인 레비너 마이클슨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마이클슨은 최근 예일대를 졸업하고 3개의 앨범으로 음악평론가들의 격찬을 받은 신예 스타다.

'WIFF 2008'에서 개봉될 영화 중 '치샤 1937'은 일본제국의 남경 침공 당시 피난민들에게 비호처를 제공하고 순교한 지란 스님의 자전적 소재로서 한 승려가 지녔던 불굴의 신념과 자비공덕을 소개한다. 또 태국에서 제작한 '앙굴리말라'는 16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불법에 귀의하여 대오정각에 이르는 정진과정이 속도감 넘치게 전개되는 작품이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에게 묻는 열 가지 질문', 일본의 카즈오 카에타노 감독이 틱낫한 선사의 참여불교와 입신과정을 그린 '한 발짝마다 평화가', '잃어버린 아이들', 리처드 기어와 키아누 리브스의 해설로 서구전법에 크게 기여한 영상 다큐멘터리 '불교의 발견, 삼보귀의'도 상영된다.

특히 한국의 성백엽 감독의 애니메이션 걸작인 '오세암'은 전 법효과와 흥행성을 두루 갖춘 전세대용 수작으로 현지 일요어린이불교학교 등에서 벌써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WIFF 2008'의 참관을 위한 관광단이 꾸려진다. 6월 13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7일 귀국하는 3박5일 일정의 'WIFF 2008' 참관단은 현지에서 영화관람과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하게 된다.(02) 2051-7751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5월 15일 '서암 종정 복권 청원' 등의 안건을 처리한 제31차 조계종 원로회의에 참석한 원로 스님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했다.

'서암종정 복권' 총무원에 조사 일임

조계종 원로회의 '종헌개정안' 인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가 원로회의 구성요건과 임기를 규정한 관련 종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원로회의는 5월 15일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해 23명의 원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헌' 개정안을 인준했다.

이날 종헌 개정안은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랍 45년, 연령 70세, 법계 대종사인 원로 비구로 구성하고 의원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수 없다" 등의 내용이다.

원로회의는 이어 지난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 동의한 도문, 지종, 명선, 월서, 혜승, 정무, 현해, 고우, 법흥, 무진장 스님 등 10명의 원로의원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심사를 갖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원로회의는 또 '원로의원 현해, 도문, 명선 스님 등이 제청한 서암종정복권 청원'을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다. 이날 원로의원들은 "원로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총무원에 일임해 관련 조사를 진행토록 하고 보고를 받은 후 적절한 역할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원로의장 종산 스님은 이날 "총무원장 사서실장 심경 스님이 은사인 원로의원 정무 스님에게 지극한 효심을 보이는 등 귀감이 되었다"며 '원로의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이날 회의 보시금 등을 사이클론과 지진피해를 입은 미얀마와 중국 돕기 성금으로 총무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성우 기자

"지진피해 中에 부처님 자비를"

조계·천태종, 미얀마 이어 중국 돕기 모금운동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구호성금 모금에 나선 조계종과 천태종이 이번에는 중국 지진피해에 대해서도 성금모금운동에 돌입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5월 15일 중국 쓰촨성 대지진 참사로 인해 무수한 인명이 희생된 것과 관련, 대변인 명의의 애도메시지를 발표하고 "중국 쓰촨성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상처를 딛고 고난을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6월 31일까지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싸이클론 피해돕기 성금모연'과 함께 '중국 지진 피해 돕기 성금모연'도 공동추진한다고 덧붙였다.(사고 참조)

지난 5월 8일 조계종 본말사에 대한 재난구호 성금모연 공문시달을 시작으로 각 사찰 및 단체들의 성금도 답지하고 있다. 15일 개최된 원로회의에 참석한 원로스님들은 미얀마 태풍 참사자와 중국 쓰찬성 지진 참사자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였으며, 즉석에서 성금 1150만원을 총무원에 전달했다. 또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6일 5000만원의 성금을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한편 천태종(총무원장 정산)도 15일 "수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번 대참사에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 천태불자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애도문을 발표했다. 14일 미얀마 대사에게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천태종은 전국 300여 사찰에서 미얀마 성금모금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에 들어갔다.

성금접수처=우리은행(예금주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 1005-101-209041

김성우 기자



금강大 원각도서관 개관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가 3년 여의 공사 끝에 원각도서관을 완공하고 5월 27일 개관식을 갖는다.

금강대 원각도서관은 112만 평방미터(3만7천평)의 대지에 연면적 1만2천 평방미터(3650평) 5층 규모다.

김성우 기자

미얀마불교대책위 "미얀마 군정 규탄"

사이클론으로 초토화된 미얀마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군정의 정보공개 거부 등이 비난받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미얀마불교대책위원회도 이런 상황에 발맞춰 5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수도 양곤과 중남부 지방을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최소 1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대란을 맞고도 군정은 자국민들의 목숨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체제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맹비난했다.

불교대책위는 "미얀마 군정이 전면적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강진 기자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개최

6월 9일부터 日북해도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불교 우호 증진을 위한 한 · 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일본 홋카이도(北海島)에서 열린다. 한 · 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지관)와 일 · 한 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조동종 대본산 중앙사에서 '제29차 한 · 일 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선(禪)과 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29차 대회에서 한국 측에서는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주제발표한다. 본대회는 10일 오전 9시 30분 홋카이도 프린스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며, 학술세미나에 이어 양국 사무총장의 공동선언문 발표로 오전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는 중앙사 본당에서 법요식이 봉행된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위원단은 지난 5월 8일 대회협의차 방한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한일불교협의회 이사장 홍파 스님, 사무총장 남정 스님, 일본 평간사 집사장 노자와 류코 스님, 원만사 주지 하세 다쿠도 스님 등이 함께했다.

김성우 기자

中 수월정사 27일 개원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수제자인 수월 스님이 일제 강점기 중국 연변지역에서 독립군과 동포들을 도우며 살았던 곳에 사찰이 건립된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5월 26~29일 중국 연변에서 '수월선사 행화유적지 순례 행사'를 갖고 수월정사 개원식을 봉행한다.

봉은사는 26일 중국 도문 화엄사 옛터와 두만강 국경지대 순례를 시작으로 27일 조선족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수월선사 행화유적지' 기념행사를 연변 수월정사에서 갖는다. 이어 이도백하와 백두산을 답사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광우병 쇠고기 협상단 정부는 즉각 파면하라"

불교인권·평화연대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교인권연대와 불교평화연대가 5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협상단을 파면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협상단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행정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절차에 문제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대통령이 국민들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에 의해 정책 실현이 저지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말을 믿게끔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일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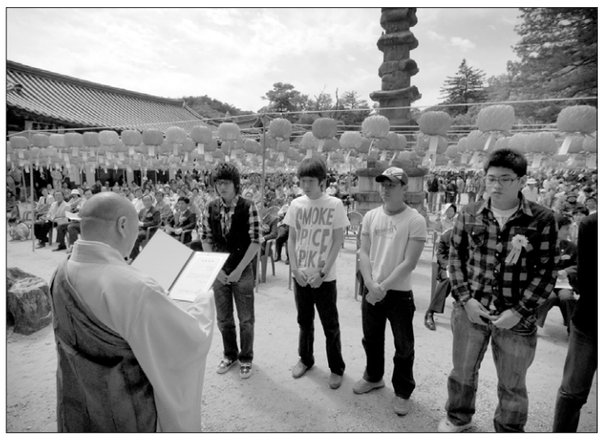
원불봉안, 탱화, 수미단, 닷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 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

충청지역 사찰들 잇단 장학불사

마곡사·공주사암련 등 형편 어려운 학생에 자비의 손길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이 5월 12일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충청지역 사찰과 불자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잇달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마곡사(주지 법용)는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함께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양형석 군을 비롯한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초등학생 각 10만원, 중 · 고등학생은 각 20만원씩 지급된 장학금은 신록축제 때 정현 스님 작품 전시회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으로 지급됐다.

마곡사 관계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돈의 모금 방법은 올해처럼 행사를 통해 모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마곡사 자체에서 돈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한다"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것임을 밝혔다.

공주지역 사찰들과 천안 및 옥천지역 사찰들도 장학불사에 나섰다.

공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성)는 봉축 법요식과 함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은 공주 호계초등학교 조영주 학생을 비롯한 9명에게 각 20만원씩 지급됐다. 장학금 전달은 초 · 중 · 고 · 대학생별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주사암연 총무 법운 스님은 "불자 여부 보다는, 시에 결손 가정으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으로 추천받았다"며 "장학금은 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아주셨다"고 말했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는 5월 7일 연등축제 행사에서 소년소녀가장과 모범학생들 10명에게 각 2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매년 11월 진행되는 천안사암연 '일일찻집'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모은 것.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쥠)는 5월 5일 봉축 법요식에서 옥천상업고등학교 송영환 군을 비롯해 관내 초 · 중 · 고 학생 및 군인 등 10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전달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청직장불자회(회장 이진옥)는 4월 29일 창립 6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며 시청불자회와 결연을 맺고 있는 대전대학교 문예창작과 임남혁(23, 뇌병변 장애우)군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손효선 기자



대전봉축위원장 도산 스님과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곡 스님 등 대전지역 스님들이 5월 10일 대전역 광장에서 자비의 탁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작은 정성 모아 큰 福 지어요"

대전역 광장서 '자비의 쌀 모으기' 탁발행사 가져

대전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과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회장 이진옥)는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탁발행사'를 진행했다.

5월 10일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된 행사는 장곡 스님(백제불교회관 관장), 효경 스님(대전비구니 청림회 회장), 영진 스님(용화사 주지), 지안 스님(성심사 주지),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 이진옥 회장, 한국장애인불자회 김춘두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곡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전역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지 7년째다. 행사를 통해 모아진 돈과 쌀들은 좋은 일에 사용됐다"며 "탁발은 가난한 사람도 시주를 통해 복 짓는 일이고, 부자인 사람도 시주를 통해 복 짓는 일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진욱 회장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웃이 나로 인해 나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길 바라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라며 "불교계가 이웃 종교 보다 남을 돕는 일이 저조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앞으로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한마음으로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탁발 보시금으로 250여만원이 모금됐고, ▲동학사에서 쌀 400kg ▲송학사에서 쌀 200kg ▲용암사와 용궁사에서 쌀 150kg ▲성심사에서 라면 100box ▲관음종 도선스님이 양말 300켤레 등을 기부했다.

이날 모금된 보시금과 물품은 대전서구노인복지회관 노인들의 점심 공양과 대전지방경찰청 중앙청사 청사 경비대 위문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손효선 기자

'불자들의 인연 만들기'

각원사, 200여명 대상 결혼 상담행사

천안 각원사(주지 법인)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의 일환으로 결혼 상담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결혼 상담은 주지 스님의 제안과 불자들의 요청으로 약 2년 전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해 왔던 것. 하지만 5월 12일 상담은 봉축 특별 상담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각원사에서 결혼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약 200여명. 이 중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20여명이다. 모두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었다. 상담은 각원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송계순 소장이 혼자 진행했다. 이는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각원사에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소장의 연락을 기다리면 된다. 소장은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 중 조건이 맞는 상대를 찾아보고, 조건이 맞는 상대가 있으면 그들의 부모님과 상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양쪽에서 동의를 하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송계순 소장은 "부모 입장에 내 자식이 당연히 최고겠지만 분명히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조건만 너무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너무 조건만 따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행복한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5월 4일 서울 효창공원내 원효성사 성상 앞에서 추모대재를 가진 원효종 스님들.

원효성사 열반 1322주기 추모재

사부대중 600여명 참석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향운)은 5월 4일 서울 효창공원 내 원효성사 성상 앞에서 '원효성사 열반 1322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벽송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해 원효성사의 뜻을 기렸다.

벽송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원효성사의 구도정신을 되살려 수행자의 본분을 다시금 상기하자"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추진

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주지 노현)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공간인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일반인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체험관과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건립해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울창한 송림을 이용해 아토피 환자를 위한 가족 템플 스테이 등 차별화된 수련회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현 스님은 5월 21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손효선 기자

청주시 불교문화 DVD제작

청주시가 최근 시내 문화재의 기록 보존과 교육홍보를 위해 청주의 문화재 67점을 담은 영상물 VD 천여장을 제작, 보급에 나섰다.

청주시는 이 DVD를 불교문화를 꽃피운 가치를 비롯해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무형의 가치 등 주제별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영상물 DVD를 일선학교의 역사교육과 홍보자료 등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청주의 문화재 기록보존과 역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효선 기자

충담 스님 10주기 영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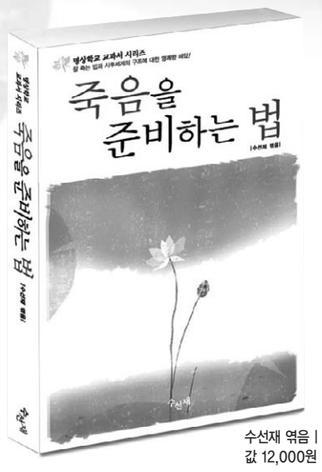
가평 호명산 감로사(주지 지성 스님)는 소신(燒身)공양으로 열반한 충담 스님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6월 7일 오후 1시 추모 영산재를 봉행한다.

한 평생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나라의 안녕과 민족의 통일, 불교 중흥을 발원해 온 충담 스님은 1998년 6월 27일 새벽 4시, 장작과 나무 위에 좌대를 만든 후 스스로 올라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손수 불을 붙여 소신공양했다. (031)584-0117

김성우 기자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죽음을 준비하는 법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아무말 없이 빙그레 웃고 있던,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것인데도,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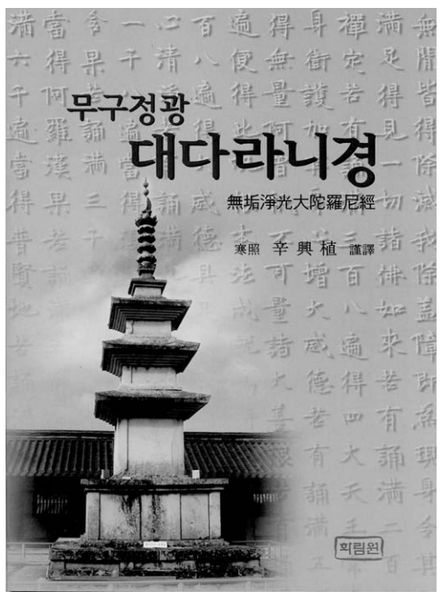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문의전화 02)722-6653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목적 있게 사는 법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무구정광대다라니의 기도 비밀"

불국사 석가탑속에 1,000여년간 간직된 무구정광대다라니의 비밀장을 마침내 진세에 중생을 위해 밝게 드러내다



■ 본 다라니를 일심정력 송주를 하면

1. **출가자**는 일체의 죄를 멸하고,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여 일체의 소원이 원만할것이니, **본 자심인 다라니**를 계를 청정히하며 108편 염송하면 제개장보살이 즉위 현신으로 영기소원이 개실 만족하고 제불여래를 득견현신 할것이요.
약유송만 1,008편이면 수다함과를, 6,000편이면 당득보현지를, 11,000편이면 부동지를, 111,000이면 당득 여래지이며 성 대인상하여 사자후 하리라.

2. **재가불자**는 만약 날마다 21편씩 청정하게 **무구정광대다라니**를 염송하면 백년동안 만족할것이요, 명을 다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항시 염송하는 이는 이내 보리(菩提)에 이를것이며 숙명이 기억되어 영원히 요수(夭壽) 및 악한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3. 망자(亡者)를 위하여 무구정광대다라니를 찬탄, 예배하고 남에게 널리 **이 경을 보시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원만하게 77편을 염송하면 망자가 악도에 떨어졌다 해도 곧 응해져서 천상에 태어나리다.
또, 사경하여 불탑에 안치하고 공양올려도 망자는 악도에서 벗어나 도솔천궁에 태어나 다시는 악도로 떨어지지 않으리라.

4. 또한, 조상천도, 단명자, 병고자, 각종 위험에 처한 직업자, 고시생, 대입시험, 각종 진급, 사업자, 가정불화, 매매 등등에 시달리는 분은 계를 청정히하며 본 다라니 기도를 일심정력 매일 21편을 송주하면 곧 응해져서 성취하리라. -본문내용 중에서-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3-24-0163-316

4·6배판/108쪽/신흥식 번역/정가 5,000원/화림원출판사/ • 구입문의 : (02) 2272-4398(주, 야)

“옛 조사와 선객이 함께 하는 영산회상”



벽송사 중창 불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선원장 월암 스님이 저술한 ‘돈오선’ 출판기념회와 불사금 20억원을 시주한 안국선원에 대한 봉정법회가 16일 봉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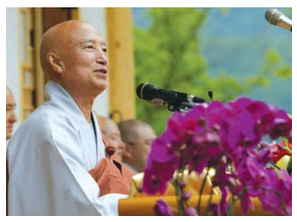
지리산 벽송사 중창불사 마무리…불사지원 안국선원에 ‘돈오선’ 기증

5월 16일 지리산 벽송사에서 ‘돈오선, 출판 기념 및 봉정법회’가 열렸다.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이 저술한 <돈오선>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벽송사 불사를 위해 20억원이라는 거액을 쾌척하여 벽송사가 예전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벽송사 중창불사는 이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하안거 해제를 하고 나서 가을에 정식으로 낙성식을 할 예정이다.

벽송사의 당우들은 지나치게 하늘을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땅을 가로막지 않아 지리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이번 중창불사에서 당호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원으로 사용될 ‘청허당’은 서산대사의 법명이다. 그리고 요사 및 보림을 위한 건물로 사용될 ‘안국당’은 안국선원의 이름을 딴 것이다. ‘백장루’는 공양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경구로 유명한 백장선사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원통전 뒤쪽에 부용연관조사를 기리는 ‘부용암’이라는 토굴을 지었다. 그리고 1910년대 벽송사의 마지막 조실스님인 초월동조 스님을 기리는 ‘초월당’이라는 작은 당우를 한 채 지었다. 월암 스님은 당호 하나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벽송사의 역사를 아로 새겨놓았다.

<돈오선> 출판기념식에는 진귀암 선원장 심우 스님, 통도사 선원장 지근 스님, 봉선사 前주지 철안 스님, 월정사 한주 현도 스님을 비롯하여 40여 선객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그리고 20억불사의 시주가 되었던 안국선원의 불자 1600여명이 참석하여 그야말로 야단법석을 이루었다.

이 법회의 증명법사 설정 스님(수덕사 수좌)은 “책을 내고 이렇게 모여 서로 법문을 주고받는 이런 자리가 바로 영산회상입니다. <돈오선>은 선지식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라며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날 법회는 월암 스님이 수불 스님에게 보은을 하는 아름다운 자리였기에 행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불자들의 가슴은 훈훈함으로 가득 찼다.



증명법사 설정 스님의 축사모습.

글=문윤정 논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벽송사는..

선교겸수 종장 108명 배출한 ‘행화도량’

벽송사는 조선 선불교 최고의 종가였다. 조선 중종 시대인 1520년 벽송지엄(碧松 智嚴)선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수행하여 도를 깨달은 유서 깊은 절이다. 벽계정심, 벽송지엄, 부용영관 선사를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정통 조사들이 벽송사에서 수행 교화하여 조선 선불교 최고의 종가를 이루었다.

아울러 선교(禪敎)를 겸수한 대종장들을 108분이나 배출하여 ‘백팔조사 행화도량’이라고도 한다.

벽송 지엄대사는 중국 수나라의 화엄 2조 지엄대사에 견줄만하다 해서 법명을 지엄으로 불렀다. <대혜어록>을 보다가 중국 조주선사의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무자화두(無字話頭)에 의심을 일으켜 참구하다 의심덩어리를 타파하였다. 벽송산문의 제2대 조사가 부용휴관인데, 그의 문하에 가장 뛰어난 제자가 서산대사와 부휴선사이다. 서산대사는 벽송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제 3대 조사가 되어 지리산에서 행화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군을 일으켜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데 진력을 다하였다.

400여년간 지속되어 온 벽송사는 전쟁으로 인해 완전 소실되고 말았다. 60년대 이후 원응(元應)대사의 원력에 의해 선원과 법당, 요사 등 건물의 일부가 중건됐다.

인터뷰

수불 스님 “선교겸수 도량 모습 되찾아 감사”

수불 스님은 25년 전 범어사 내원암에서 공부할 때 꿈을 꾸었다. 그 후 운수납자로 이 사찰 저 사찰을 다녀보았지만, 꿈에서 본 그런 사찰을 만날 수 없었다. 2006년 봄 월암 스님이 <간화정로(看話正路)>라는 책을 한 권 보내주었는데, 읽어보니 너무 좋았다. <간화정로>를 저술한 월암 스님을 만나고 싶어 벽송사에 하안거 대중공양을 했다. 벽송사를 본 순간 바로 25년 전 꿈에서 본 그 사찰임을 알았다. 그때 수불스님은 ‘내가 전생에 벽송사에서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월암 스님의 면면이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터이지만, 2006년 하안거 대중공양 와서 처음으로 만났다.

초면인데도 오랜 도반처럼 살가웠고, 월암 스님에게 큰일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불 스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벽송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물었다. 그러자 월암 스님은 “벽송사가 원래는 선교를 겸수한 그런 도량인데 다시 그 모습을 찾고 싶다”고 했다. 첫 만남이었는데도 수불 스님은 그 자리에서 20억이 소요되는 중창불사를 약속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월암 스님을 만났을 때 끈끈한 어떤 인연이 느껴졌고, 전생에 도반이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불사이다.

“물론 절 100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암 스님의 <간화정로>나 <돈오선> 한 권이 더 중요합니다. <돈오선> 같은 책은 신도들의 공부와 정신을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또 힘이 됩니다. 우리 선승들은 정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현상에 끄달려서는 안됩니다.”

수불 스님은 “오히려 월암 스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공부만 해도 바쁜 사람인데 불사를 맡겼으니 미안한 일이며, 여법하게 일사불란하게 불사를 마쳐주니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왼쪽)과 벽송사선원장 월암 스님.

월암 스님 “안국선원의 무주상 지원에 감사”

“현상계와 물질계가 허망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상계와 물질계를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불사를 해주신 수불 스님께 그 고마움은 말로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한 불사를 이룩한 것도 중요하지만, 요즈음 종문의 풍토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형과 사제, 도반사이의 신뢰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수학한 사이도 아니고 도반사이도 아니고, 선원에서 같이 정진한 사이도 아닌 무관한 사이인데도 이렇게 큰 중창불사를 하였다는 것은 조계종문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조계종문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그야말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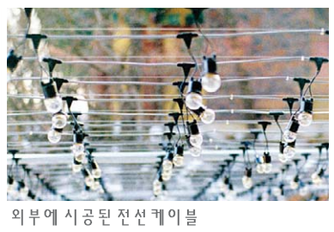
수불 스님과 안국선원의 보살님들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참으로 많이 생각한 끝에 <돈오선>이라는 책을 써서 봉정한 월암 스님. 스님은 “수불 스님과 제가 정신적으로 계합하여 이룬 불사를 바탕으로 벽송사의 맥을 이어가기를 서원한다”며 무주상 지원을 해 준 안국선원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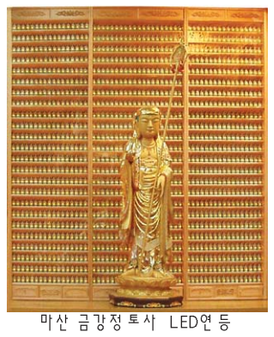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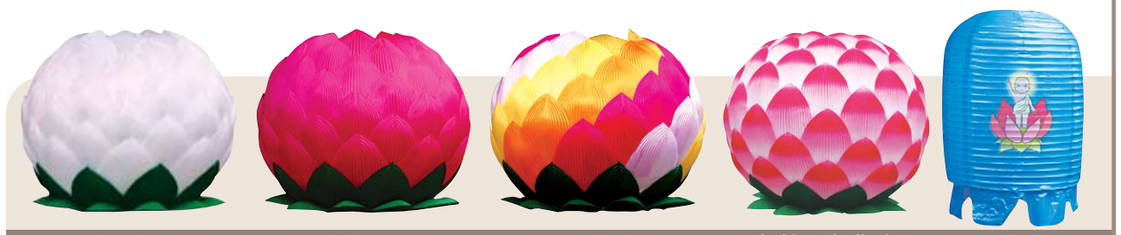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전북 불자들 '뿔' 났다

검역주권 수호, 대운하 건설 반대 등 6개 항 결의



사부대중을 대표해 귀신사 무여 스님, 단암사 대명 스님,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허자연 보리수합창단 총무(오른쪽부터)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전북지역 연등축제에 모인 불자들이 생명과 자연환경 보전, 전통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최근 범사회적 이슈인 쇠고기 수입 협상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반대 등 6개항 요구가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5월 10일 전북지역 연등축제에서 무여 스님(귀신사), 대명 스님(단암사), 이근재 총동문회장(화엄불교대학), 허자연 총무(보리수합창단)는 사부대중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전북 불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축산 농가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권 수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제2의 숭례문 소실 사태를 막기 위한 문화재 관련 예산 증액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 정책 수립 ▲새만금 간척지를 친환경적인 첨단 산업과 문화 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티베트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에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살상 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를 KBS 등 방송사에는 ▲전북 도민의 영산인 모악산 정상의 송신탑 및 방송시설을 즉각 철거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불자들은 나와 이웃, 인류사회와 자연이 하나임을 알아 수행 속에 지혜를 얻고 나눔과 보시를 통해 자비행을 생활화 할 것과 지구촌 빈민국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류공생에 기여하며 사회의 화합과 공동체 사회 구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5월 10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과 영화의 거리일원 등 전북 도내 곳곳에서는 제등행렬이 펼쳐졌다. 또 12일 부처님오신날에는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 등 도내 각 사찰에서 법요식과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중국의 티베트 탄압 규탄 기자회견

5월 8일, 중국대사관 광주영사사무소서



5월 8일 중국대사관 광주영사사무소 앞에서 열린 티베트 탄압 규탄 대회.

'티벳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5월 8일 중국대사관 광주영사사무소 앞에서 티베트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장)과 행법 스님(선덕사 주지),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 등 불교계인사와 인권단체들이 동참했다.

행법 스님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중국정부가 티베트인들에 대한 야만적 폭력으로 250명 이상이 사망, 실종되고 5000여명이 구금됐다"면서, "중국은 국제 사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1980년 5월의 학살을 겪은 광주에서 티베트 평화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캠페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9일 고창읍 일대에서 아동학대 실태를 홍보하고, 학대예방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홍보자료와 동영상을 접하며 캠페인에 동참한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아동학대 실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지 처음 알았다.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캠페인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을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이날 아동학대예방 서명운동에는 300여명이 동참해 일정지역의 단일 서명운동으로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무공 스님은 "지역아동 학대를 더욱 전문적이고, 현실적으로 캠페인을 통해 예방해 나갈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에 학대신고 상담과 학대신고를 통해 고창지역 아동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음악, 이제는 월드뮤직으로 간다

범능 스님, 명상염불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 출간

한국불교음악의 세계화와 '월드뮤직'을 지치로 내걸고 창작한 명상 염불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나와 화제다. 음반을 낸 범능 스님은 운동권 가수에서 출가해 수행자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새 음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범능 스님의 4번째 앨범.

독특한 가락의 불교음반을 잇달아 발표해 온 범능 스님은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범어 원음에 국악과 동서양의 화성법을 두루 융합해 곡을 붙였다.

범능 스님은 "한국불교음악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지난 10개월간 기도와 발원속에 작곡과 제작에 전념했다"며 "이번 음반은 82구 442글자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원음에 동서양 선율이 조화를 이루는 가락을 입히고, 이 원곡을 총 3악장으로 달리 편곡해 국내는 물론 해외 불자와 일반인들도 대다라니의 신묘한 깊이를 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범능 스님의 명상음악염불 음반은 나무아미타불(1집), 관세음보살(2집), 지장보살(3집)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백남용 단장

"포교사는 수행·포교·사회봉사자"

어디든 필요하면 달려가는 큰 일꾼 "부모부터 신행해야 자녀도 귀의"



"포교사는 생활 속에서 수행과 포교, 사회봉사를 하는 불교지도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이하 광주포교사단) 단장을 맡은 백남용 단장(사진)을 만났다.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불교회관 사무실에는 휴일임에도 많은 포교사들이 나와 행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주포교사단 등록 회원은 183명, 이 중 100여명이 공식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 포교사는 종단소속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하고 포교사 고시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불자를 말한다. 포교사의 활동은 군부대포교, 교도소, 장의염불, 사찰안내, 어린이 포교 등 전부분에 각 팀별로 소속된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광주포교사단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분야는 군부대 포교다. 현재 전남목포연대, 나주 방공포대, 함평국군통합병원 등 인근 군부대에 매주 정기법회마다 참석해 국군장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특히 지역 군부대장과 유대관계를 통해 이미 폐쇄됐거나 유명무실했던 군법당들을 재건해 보다 많은 국군장병들이 불연을 맺도록 노력해 왔다. 또 함평국군통합병원을 10여년 넘게 찾아 활동한 포교사단은 병원에서 요양하는 장병들과 병원관계자에게 돈독한 불심을 심어왔다.

교도소 포교는 김인수, 이재언 포교사 등이 주축으로 팀을 이뤄 활동 중으로 광주교도소, 고령정보학교(옛 소년원) 등에 매월 정기적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포교사단의 포교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장의염불. 장의염불 봉사는 부모나 가족의 상을 당했을 때 포교사단으로 연락하면 장례식장을 찾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염불봉사활동을 말한다. 광주포교사단에서는 항시 5명의 포교사단이 항시 대기해 언제 누구라도 전화만 하면 달려가 염불 봉사를 한다.

광주포교사단의 역할은 이뿐이 아니다. 지역 종립학교인 정광중·고등학교에 분기별 장학금도 전달한다. 백남용 단장은 "불교는 앞으로 젊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공부를 해야 자식도 영향을 받아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며 자녀를 불교에 귀의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백 단장의 지론이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광주포교사단의 포교활동은 더욱 더 빛을 발했다. 봉축장엄물 점등식에 앞서 80여명의 포교사단원들이 3보 1배를 하며 티베트의 평화를 기원했고, 빛고을 연등축제에서는 진행요원을 맡아 5000여명의 불자들이 원만히 행진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백남용 단장은 "포교사 중 팀장 이상은 특히 불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서 "포교사단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백 단장은 "단 하루라도 함께 꽃구경 해보고 싶다"고 아내가 말했을 때 가장 미안했다고 한다. 백남용 단장은 "아마 다른 포교사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직장생활과 포교활동, 그리고 불교수행을 겸한다는 것은 보통 신심을 갖고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웃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 전북지사 : (063)910-5199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 김창종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5계, 현대인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인환 스님,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서 기조강연

계율은 계·정·혜 삼학의 근본이다. 불자와 불자 아님을, 출가자와 재가자를 나누는 경계가 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5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계율의 현대적 재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인환 스님(前 동국대 교수)은 대승적으로 5계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계율의 현대적 재조명'을 기조강연 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환 스님의 기조강연을 소개한다.

인환 스님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이 참선 수행에 계율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허물을 여의고 잘못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불작조 할 것인가'라는 <선원청규> 첫머리 구절을 예로 들며 3학의 근본이 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불자의 기본규범인 5계를 현대적 · 대승적으로 재해석해 강연한 스님은 "5계는 소극적으로 받아 행하는 태도(止持戒)와 적극적으로 받아가지는 태도(作持戒)로 나뉜다. 계를 지니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공덕과 결과의 차이가 크다"며 "대승적인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계를 받아 행하는 작지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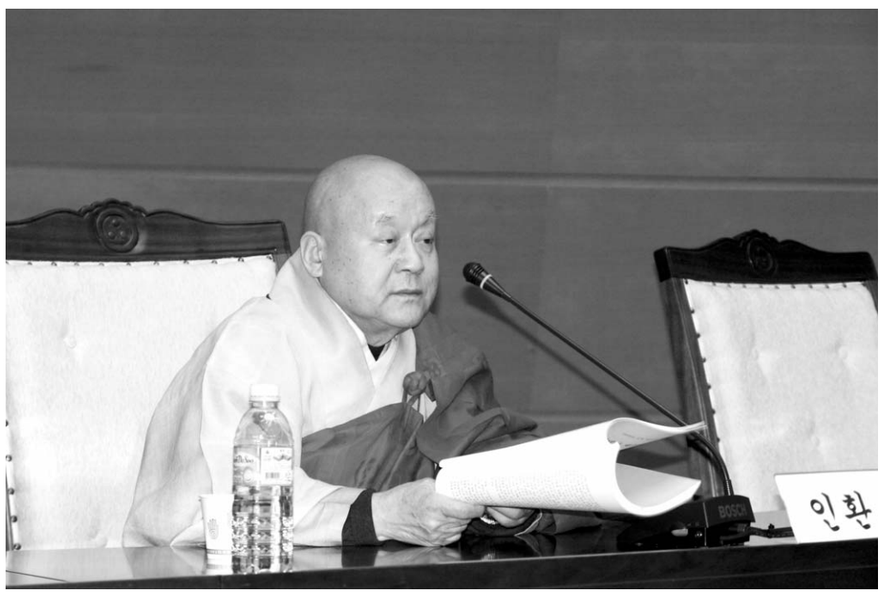
스님은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계는 소극적 지지계의 관점에서 하품살생계, 중품살생계, 상품살생계로 나뉜다. 하품살생계는 미물을 밟는 등 모르고 범하는 살생을 의미하며 중품살생계는 육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저지른 살생을 뜻한다"고 말했다. 인환 스님은 "불살생계의 소승적 핵심은 사람을 죽이는 상품살생계를 범하는 일을 금지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스님은 "대승적 안목에서는 자비로 타인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방생과 환경운동이 불살생계"라면서 "살생계를 바로 지녀 실천하는 것이 환경운동과 환경혁명의 첫걸음이 된다"고 설명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불투도계에 대해 스님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을 초월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는 일을 하며 사는 보시가 불투도계의 실천"이라 주장했다. 스님은 "베풂에 있어 결과를 미리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전 등 물질적 베풂 뿐 아니라 부드러운 얼굴과 친절한 말씨 등 정신적인 베풂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인환 스님은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불사음계는 맑고 깨끗한 생활을 위해 계속 정진하고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는 성스러운 성생활을 의미한다. 출가자는 출입식념(Anapana Sati)의 부처님 호흡법으로 정력을 수행력으로 전환하고, 재가자는 신뢰와 사랑을 생명처럼 알고 가정과 사회를 바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불망어계를 설명하면서 스님은 "신(身) · 구(口) · 의(意) 삼업 중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많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속이는 말(妄語), 아첨하는 말(綺語), 이간질하는 말(兩舌), 욕하는 말(惡口) 등으로 세분해 경계한다"고 말했다. 인환 스님은 "현대적 · 대승적 불망어계는 단지 거짓말을 않는 것이 아니라 5계를 지닌 불자라면 반드시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책임지는 말을 해야함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스님은 "참선 정진하고 기도 · 예배 등의 수행을 통해 업을 짓는 몸과 입을 정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술 마시지 말라'는 불음주계의 취지는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에 있었다"고 지적한 뒤 "현대 사회에서는 술 뿐 아니라 마약, 담배 등 해로운 화학성분의 제품들도 포함시켜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10일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계율의 현대적 재조명'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는 인환 스님.

인환 스님은 "5계의 기본정신은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면서, 5계의 실천행을 지구상의 장벽을 없애고 평화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환 스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이자랑 박사(동경대)가 갈마(羯磨)를 함께 하느냐의 유무로 화합승과 파승이 구분된다는 내용의 '승가화합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마성 스님(동국대 강사)은 '성문계와 보살계의 양립 문제'에서 남방상좌부 불교 국가의 '승가법(The Act of Sangha)'을 예로 들며 "보살계만으로는 승단을 통제할 수 없다"며 "보살계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공 스님(동국대 강사)은 '율과 청규의 관계정립에 관한 고찰'에서 율과 청규의 관계를 계승과 독립적 입장에서 조명했다. 경성 스님(승가대 강사)은 '율장과 종헌 종법과의 비교연구'에서 "조계종 종헌 · 종법은 현실에 적합한 수행규범으로 율장과 청규의 응용이자 활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수 연구원(전자불전연구소)은 '율장에서의 환경 및 생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참다운 삶을 지향하는 율장의 살아있는 실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금오 스님 관련 자료 수집
금오사상연구소, 7월 20일까지

금오사상연구소(이사장 월서)는 열반 40주기를 맞은 금오 스님의 문집 발간을 위해 금오 스님 관련 자료와 한국불교정화 운동사 연구 자료를 수집한다.

금오 스님은 민족주의 승려이자 선학원 승려대회 주역으로 정화불사의 주체적 역할을 했던 선지식이다.

금오 스님의 방명록, 편지, 설법, 일기장, 선어록, 법문, 사진, 삽화 등과 금오 스님 중심의 한국불교정화 운동사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논문은 원고지 100매 내외 분량으로 당선자는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된다.

원고마감은 2008년 7월 20일까지. (02)736-1026

조동섭 기자

한국선학회 학술대회
5월 22일 동국대서 개최

한국선학회(회장 현각)는 5월 22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김호귀 연구교수(불교문화연구원)가 '최초기 한국선법의 전래와 그 성격'을, 운월 스님(동국대 강사)이 '중국초기 선종의 사상과 수행'을, 강향숙(동국대 박사과정 수료)씨가 '혜바즈라 딴뜨라의 관정에 관한 고찰'을,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선각국사 도선 종풍의 계승 및 전개'를 발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5대 회장 선출 등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011)9647-5503

조동섭 기자

부여 정림사지 문화예술공연 문화재청 우수사업 선정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4건 선정 발표

부여 정림사지 문화예술공연이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의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5월 14일, 부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문화예술공연과 완주문화유산 사업, 광산 월봉서원 문화체험, 신안 증도 소금밭 체험을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프로그램은 문화재가 엄격하고 박제화된 보존대상이던 것에서 탈피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20건을 대상으로 사업추진력, 콘텐츠의 우수성, 지속발전 가능성, 문화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북 완주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 신안군, 충남 부여군에서 신청한 4건이 최종 선정했다.

부여 정림사지는 1942년 발굴조사 당시 '대평 팔년 무진(大平八年戊辰) 정림사대장당초(定林寺大藏當草)'라고 쓰여진 1028년 고려 초기기와 명문(銘文)이 발견돼 정림사라고 불린다. 국보 제9호로 지정된 백제 때의 5층석탑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정림사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정림사지 문화예술공연은 정림사지의 역사적 이야기를 소재로 창작물을 공연하여 폐사지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 사업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선정된 지자체의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의 후원 명칭과 사업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기획 · 추진과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선리연구원 학술 우수상 문을식 박사 수상

제2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 및 학술회의 열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연구원장 법진)은 5월 20일 하림각에서 제2회 학술상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열었다.

학술상은 올해 우수상 1편이 추가돼 학술상 3편과 함께 총 4명의 연구자가 학술상을 받았다. 문을식 박사(원광대 강사)가 '용수의 <십주비바사론>에 나타난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의 계에 대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만식 박사(동국대 강사)가 '초기불교의 음식과 수행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 유근자 박사(동국대 강사)가 '간다라 출가유성(出家踰城) 불전도(佛傳圖)의 연구'로, 정영식 박사(부산대 강사)가 '간화선과 화엄의 관계'로 학술상을 받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문 박사의 연구는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수계와 지계의 문제를 대승논서에 근거해 풀어 보려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우수상 선정 사유를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출가자의 경우 대승불교권인데 소승율인 <사분율>에 근거해 구족계를 받아도 되는지, 재가자의 음주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십주비바사론> 등에서 찾아 제시했다"며 "계와 율에 대한 재조명과 현실적 응용을 위해 앞으로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선리연구원 학술상은 불교학을 전공하는 소장학자의 연구기반 마련과 한국불교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선리연구원이 제정한 학술진흥사업으로 올해로 제2회를 맞았다. 시상식 후에는 수상 논문들이 학술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심리학회 학술대회
'연기론과 심리치료' 주제로

한국불교심리학회는 5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기론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봄 학술대회를 연다.

김성철 교수(동국대)가 '연기론의 인지치료적 활용'을, 윤호균 교수(가톨릭대)가 '온마음 상담과 연기론'을 주제로 발표한다. (010)9582-9119

조동섭 기자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일주문



전북경찰청 전의경 위문법회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은 5월 9일 김철주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한 간부 및 전의경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전북경찰청 전의경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미얀마 구호기금 5000만원 보시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5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 미얀마 사이클론 재난 구호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합천군 교육발전기금 3000만원 전달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천군의 육영사업을 지원하는 교육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서울상원사 전시회

태고종 상원사 주지 법정 스님은 5월 23~25일 미륵 프로젝트 심장전(心臟殿) 부처님 진신사리(舍利)친견 특별 전시회를 갖는다. (02)833-0374-5



불교진흥원,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강의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로널드 시글(Ronald D. Siegel)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02)719-2606



국회 정각선원 13주년 기념법회

국회 정각회 이해봉 회장은 5월 23일 오후 6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정각선원 13주년 기념법회를 연다.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 초청법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각종 대전교도소 법요식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각종이 대전 교도소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5월 9일 진행된 법요식에는 진각종 대전교구청장 휴명 정사, 관음종 총무원 부원장 법명 스님, 전 대전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 혜명 정사, 대전교도소 교종협의회 교정위원 의당 정사를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휴명 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도 걸림 없는 평등함이니 불교를 통해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손효선 기자

"禪을 통해 행복한 삶 풀어내자"

고우 스님 '선요' 강의 시작

"선(禪)을 왜 배우냐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처신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겠지요. 선은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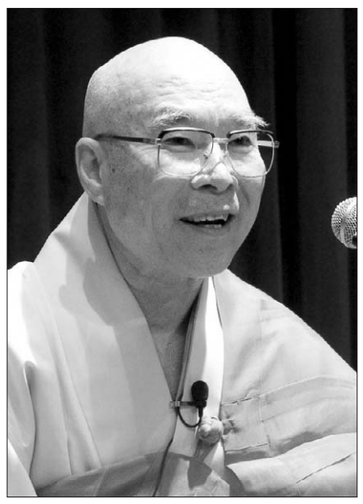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이 구도열기에 휩싸인 5월 13일 오후 7시. 200여명의 사부대중 앞에 시대의 선지식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문수산 금봉암 주석)이 나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이 마련한 이날 강의는 2006년부터 시작한 간화선 대중화사업 '선지식 초청강좌'의 일환으로 열린 것. 불자들이 스스로 마음 살림살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선(禪)의 요체라 일컬어지며 참선수행자의 필독서로 널리 알려진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 선사의 <선요(禪要)>를 고우 스님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사부대중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충분했다.

고우 스님은 이날 강의를 시작하며 "조계종의 수행방법인 '선'을 확고하게 우리나라에 도입한 태고보우 스님이 고봉 스님의 제자 석옥천공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며 고봉 스님과 조계종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날 강의는 <선요>의 서장(序章)격인 '고봉화상선요서' 강독과 설명, 선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해 주로 이뤄졌다. 스님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선(禪)'을 알아야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하며 "<선요>를 한 권의 책으로만 보지 말고 정신을 어떤 상태에 두게 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라"고 강조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다 <선요>의 가르침을 비춰보면 더 마음속 가까이 그 이야기가 느껴지고 우리 일상생활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뀌고 본래시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불교입니다. 닦고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것에 본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 공부를 통해 바뀐 결과가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고, 자유스럽게 만들어주는가, 여기 주목해 나가봅시다."

또한 스님은 "요즘 정치인들의 인식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면서 "선을 배우면 한없이 평화로워지므로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고우 스님의 <선요> 강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선요>를 통해 보는 화두참구 방법, 화두참구에 필요한 3요소와 화두참구 과정 중 만나는 각종 병통, 향상사 등을 공부한다. (02)735-2429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가족법회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 다져야"

서울 백운암 상도선원서 가족법회 시작한 미산 스님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다보니 가족법회를 열게 됐습니다."

서울 백운암 상도선원 주지 미산 스님이 5월 10일 가족법회 '8정도 법회'를 시작했다. 이날 법회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는 가족법회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로 누구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게 됐고 이런 생각이 가족법회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불자 가족들 중 부모님은 열심히 사찰에 다니는데, 자녀들은 불교에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야만 화목한 가정이 이뤄지는데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스님은 이번 가족법회로 부처님의 사상을 각 세대에 맞게 전달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그래서 가족법회 이름도 '8정도 법회'로 지었다. 불자들의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8정도를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강조함으로써 생활속 실천수행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8정도 법회'는 1부 가족법회 이후 어른과 어린이 · 청소년으로 나눠 가족별로 필요한 법회를 따로 본다. 특히 어린이 · 청소년 법회가 인상적이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캐나다 원어민 교사를 초청, 법회 후 영어 교실을 연다. 또 청소년은 학습 클리닉을 신청해, 성적 향상 프로그램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스님은 이후 한자교실 등도 의견들을 수렴해가면서 시범 운영을 통해 정착시킬 계획이다.

스님은 가족법회를 위해 어린이 법당까지 마련했다. 조각가 오채현씨가 조성한 천진불을 모시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색감으로 법당을 꾸렸다.

"기존의식보다는 정서에 맞게 법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법당을 친근하게 꾸며 사찰에 오고 싶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족법회의 성패 여부는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달려있다.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는 사찰에서 어떻게 가족간의 화합을 논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어린이청소년법회가 이렇게 침체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생시키려면 종단과 불교계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도선원에서도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제2회 서울시 전통예술인상 수상



김의정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제2회 서울시 전통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14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상금은 500만원. 김 회장은 명원 김미희 선생의 뜻을 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로 명원문화재단 다도문화원을 통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강진 기자

천문사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법회



수락산 천문사(주지 진성)는 5월 3일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3년 여의 불사를 원만 회향한 천문사는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날 낙성 법회에는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으며, 범패의식과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02)936-9736

전북지역불교 연합합창제 개최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전북지역 불교 연합합창제가 5월 7일,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전북불교회관 '바라밀' 합창단, 전북불교대학 '부처님 세상' 합창단,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 김제 '보리수' 합창단, 진각종 대전교구 심인합창단 등이 참여한 이날 전북연합합창제는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을 환희심에 빠져들게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임실 탄약창 호국 장영사 봉축법회 봉행



전북 임실 탄약창(창장 박정길 대령) 호국 장영사는 5월 4일 금산사 원행 스님과 전북포교사단 포교사, 불자 장병 2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봉행했다. 원행 스님은 "대승보살도를 실천해 전우를 배려한다면 평생 함께 할 도반이 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학천사 윤장대 점안식



5월 9일 화순 학천사(주지 지명)에서는 부처님 경전을 담아 돌리며 기도 올리는 윤장대 점안식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광주전남종무원장 금명 스님,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재)한 중 원
한국불교 대승 조계종 입종안내

종정 성 수(聖壽)

원로원장 관 각(觀覺) 종회의장 경 공(經供)

총무원장 법 광(法光) 사정원장 성 해(性海)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대승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불기 2552년 4월 15일 창종 하였습니다. 불법홍포의 일선에서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입종 구비서류

(1)입종신청서 (2)주민등록 등본 1통 (3) 호적초본 1통 (4)여권용 사진 4매

(5)승려증빙서류 (전 종단 승려증, 사찰 등록증 사본) (6)사찰 전경사진 (내외)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 010-4457-6556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7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5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5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현지 맞춤형 복지사업 펼친다”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 22일 개관…무료급식소 등 운영

몽골에 한국불교의 자비와 불교사회복지정신을 널리 펴나갈 요람이 건립됐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외곽 바얀주르흐구 24동에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센터’가 그곳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 건물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소개하는 자리를 현지에서 마련한다. 5월 22일 오전 11시 ‘조계종사회복지센터’ 개관식이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등, 몽골 현지 복지사업 전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KOICA의 지원으로 재단에서 파견한 봉사자가 현지 상황을 점검, 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바얀주르흐구 구청에 요청, 건축허가를 획득했다. 건물은 약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올 초부터는 한국에서 파견된 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복지시범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왔다.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에 설립된 조계종사회복지센터.

2층 건물로 조성된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는 한 층당 약 99.2㎡ 규모로, 1층은 마을공동우물과 자원봉사자 숙소 및 사무실로, 2층은 도서관 · 공부방 · 마을회관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가 마을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 · 마을공공도서관 · 방과후 공부방 등을 상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몇 가지 계획을 갖고 몽골 현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가 해 나갈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마을공동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얀주르흐구 24동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주민들이 형성한 빈민촌이며 현재도 계속 팽창되고 있다. 몽골 정부 예산지원으로는 겨우 전기가 설치됐을 뿐, 수도도 설치되지 않았다. 마을우물 역시 관정사업에 드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 몽골 정부에서 미뤄오고 있었던 차다. 정부가 엄두도 못냈던 사업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해냈다. 약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공동우물을 완공한 것이다.

김동훈 팀장이 “수도가 없어 식수가 절실한 상황이라 관정공사부터 시작했지만 지역 특성상 땅을 200m 정도나 파내려가서야 우물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우물은 만만치 않은 공정을 거쳐 개발됐다. 마을공동우물은 개관식이 있는 5월 22일부터 완전히 개방, 제공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현지인들을 모아 자원봉사대를 조직,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직 복지국가 이념이 정립되지 않은 몽골에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개념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단은 빈민촌을 위험지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사회안정망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 현지인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즉, 몽골인들의 물질적 결핍을 무조건 해외 원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몽골인들 스스로 서로 돕는 과정을 거치며 ‘상호부조’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몽골인들에 대한 자립프로그램 시행이다. 현재도 바얀주르흐구 24동 주민 및 청소년, 몽골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위한 한글교실과 컴퓨터교실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킬 생각이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몽골 청소년들을 위한 한글교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 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몽골어로 된 한국어 교재’ 마련이다.

현지 봉사자들은 “KOICA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을 꾸려놓았지만 쓸 만한 교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몽골은 아직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자국 내에서 책을 만들기 어렵고 책값 역시 물가에 비해 매우 비싼 나라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 내에 인쇄 장비를 마련하거나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지인들의 기대 속에서 숙제를 안고 개관하는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센터에 대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몽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종단 및 사회에서도 통하는 국제사업모델로 기능함으로써 지역밀착형 국제사회복지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몽골 복지사업에 관심 있다면?

‘108인회’에 가입하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몽골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08인회’란, 몽골 조계종 사회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1구좌 1만원 이상 후원하는 후원단체의 이름이다. 재단은 한달 108만원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공부방, 도서관 운영, 보건서비스 제공, 무료급식 등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02)723-5101



5월 15일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개관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노인·장애인 위한 정성 모아요”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천태종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해두)은 5월 15일 복지관 및 단양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개관 1주년 기념 큰잔치’를 열었다. 재가장애인과 지역노인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참여, 즉석 노래자랑, 지역인사 기증품 경매, 바자회,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행복한 단양 건설’을 기치로 지난해 개관,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 중인 노인 · 장애인복지관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나눔의 장을 구축하기위해 ‘정성으로 섬기는 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 ‘질적으로 차별화된 복지관’을 실천목표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직업재활, 치료, 교육, 사회재활, 주간보호, 재가복지, 특별기획, 상담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여가선용 · 휴식 공간을 제공, 종합적인 노인 ·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노인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공로가 있고 장애인은 사회구조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기에 국민 모두가 보살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천태종은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시행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6월 10일과 11일 오전 10시~오후 3시 서울 사간동 법련사 교육관에서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희망지킴이 ‘RESTART(재출발)’를 시행한다. 이는 자원봉사자 및 호스피스 봉사자, 자원봉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희망자들이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자원봉사를 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이론과 실천 등을 아우른다. 강사진으로는 동국대 교수 보각 스님,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 고려대병원법당 지도법사 지현 스님 등이 초청됐으며 ‘불교의 생사관’, ‘미래사회의 자원봉사’, ‘환자와의 의사소통’, ‘자원봉사자의 소명 의식’ 등에 대해 교육한다.

수강료는 2만원이며, 선착순 50명 모집. (02)734-8050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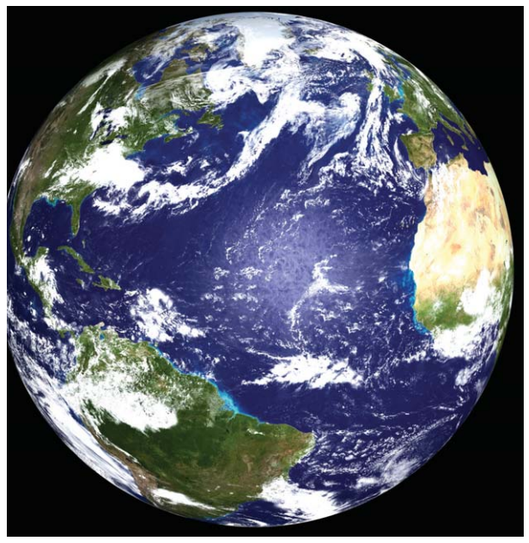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범 1부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 전국 소호점 문의 : 011-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촬영, 내장형카메라,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음악, 내장2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라디오 내장, 터치패드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소중함’ 을 돌아보며…

해외불교칼럼


지구상의 자연 재앙은 인류에 지구보호의 커다란 사명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지구가 심상치 않다.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공습과 중국 쓰촨성의 대규모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지구의 심상치 않은 징후들을 바라보면서 지구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은 모든 인류가 지구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면문제의 해결을 함께 생각해보는 지구촌의 잔치 한마당이다.

세계 184개국의 약 5만여 단체와 5억 이상의 지구촌 가족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현지 여건에 맞춰 자유롭고 다채로운 행사를 치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그 첫 행사를 개최한 이래 점차 그 규모와 활동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다. 지구의 날 선포는 1969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사고가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듬해인 1970년 7월 22일 미국의 게일로 넬슨 상원의원은 그와 같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재발을 억제하자면 범국민적 동의와 적극적인 홍보가 급선무라 판단하고 역동성과 파급성이 강한 사회선도 계층인 대학가로 파고든다.

그즈음 뉴욕타임스지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다. “최근 들어 베트남전쟁반대와 환경위기의식이 전국 캠퍼스를 휩쓸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바, 특히 환경생태문제와 유관한 제반법규 등의 제정과 엄정한 준수를 촉구하고자 내년 봄 전국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넬슨 상원의원은 하버드 재학생인 데니스 헤이즈를 기획조정 담당으로 영입했다.” 곧이어 그들이 발표한 지구의 날 선언문은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로 인해 지금껏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유지해온 전통적 질서가 파괴됨을 경고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일반시민의 의식개혁 및 생활문화개선을 촉구한다. 이는 ‘살만한 지구’란 간단명료한 화두이자, ‘살만한 지구를 가꾸고 지켜가자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지혜와 방편의 모색이기도 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국제전법기구인 ‘보리만달라’에서 보내온 기념메시지, 그리고 그 내용 중 포함된 달라이 라마의 치사를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하 보리만달라의 원문)

“오늘은 지구의 날이다. 오늘만이라도 모든 지구촌 이웃들과 우리들의 어깨를 내내 짓눌러 온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두자. 그리고 우리 영혼의 고향이며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 지구’ 앞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리자. 우리는 한 모금의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없는 우주 공간에서 우리의 불법수행과 실천을 허락해주는 유일한 곳인 어머니 지구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 모금의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에게 삶과 희망을 주며 큰 깨우침의 작은 모서리나마 스치도록 허락해 준 이 거룩한 어머니 행성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 뜻 깊은 지구의 날을 맞아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지구촌의 중생들에게 베푸신 말씀을 다음과 전한다.”

(이하 위의 원문에 첨부된 달라이 라마의 치사)

“오늘날 우리는 인구과잉 및 천연자원의 낭비와 고갈, 그리고 공기와 물과 나무를 위협하는 환경 생태적 위기에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 속의 작은 행성인 이 지구촌은 온갖 중생이 잠시 들려서 살며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떠나는 자애로운 터전입니다. 이렇듯 고귀한 터전에서 현재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과 우리는 결코 따로 떼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세대는 우주적 책임감(Universal Responsibility)을 절감하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아갈 굳은 사명의식을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아, 그리고 가정과 나라, 더 나아가 전 인류의 복락과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주적 책임감은 나를 포함한 인간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현실적인 열쇠입니다. 또한 우주적 책임감은 세계평화를 지켜감에 있어 더없이 강고한 바탕입니다. 우주적 책임감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지녀야 할 합당한 배려와 천연자원의 형평성 있는 사용,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깨우침을 뜻합니다.”

출처 : BM, NYT / 편역: 성휴 스님

“더불어 살게하는 대자비 실천”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스티븐시걸 ❹

할리우드의 모든 스타들이 흔히 우리 눈에 보이듯 늘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건 아니다. 그들은 질투와 견제라는 단어들이 되레 사치스러울 만치 잔혹한 경쟁과 추악한 시비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 가혹한 생존경쟁에서 자칫 밀리는 순간, 그들은 인기인으로서 치명적인 망각과 도태의 대상이 되고 만다. 할리우드는 미국 전역에서 인구분포에 비해 정신신경계 병원과 의료시설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다. 게다가 사이언톨로지 등 각종 신흥 유사종교 및 컬트의 집결지며 중국의 풍수에서 고대 이집트 점성술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온갖 점쟁이들이 연중성업 중인 곳이다. 날마다 푸닥거리라도 해야 할 거칠고 궂은 일이 그만치 많은 동네라는 얘기다.

스크린에선 과메기 다발처럼 줄줄이 덤비는 악당들을 손목만 비틀어서 척척 해치우는 시걸 도반조차 할리우드식 스캔들 파상공세에는 어지간히 지쳤던지 이런 말을 한다.

“제가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어떤 분들은 개를 보고, 또 다른 분들은 소를 보더군요. 그래선 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개든 소든 온갖 중생이 되고 말죠. 그게 그 분들이 지닌 인지능력의 한계니 난들 어찌 하겠어요?”

하지만 그는 여느 할리우드 불자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잡음에 시시콜콜 대응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혀 다른 담담한 길을 택한다. 즉, 무조건적인 자비공덕과 원융화합의 보살행이다. 이는 자신이 지닌 재물을 이웃에 건네주는 단순한 물질적인 시혜를 뛰어넘는 공생공존의 실천이자 더불어 사는 지혜다. 이미 세속적인 성공의 꼭대기까지 이른 할리우드 도반들은 일찍이 붓다 세존께서 왕좌에서 맨발로 내려와 안쓰러운 중생을 보듬어주시던 대자대비를 새로이 배우며 조용히 실천한다. 그들 역시 더욱 아래로 내려와 어려운 이웃들과 어우르는 희열을 즐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달동네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라면 몇 박스에라도 굳이 자기 이름을 새기고픈 자기과시나 자기만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시걸 도반은 현대의 흑사병이라 할 AIDS 와 HIV에 대해서도 온갖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이를 단순한 의료비용과 환자수용시설의 보조를 초월하여 하나의 의식개혁 캠페인으로 승화시켜간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는 가족질서, 그들을 향해 경멸과 경계의 차가운 눈길을 던지는 사회적 차별현상을 최소화하여 서로 더불어 살게 하자는 계몽운동이자 대자비의 실천이다. 또한 그는 파킨스씨 병과 각종 소아질병의 연구에 주력하는 ‘공포의 밤 재단’의 기금조성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인다.

그리고 2004년 8월에는 불가리아 소피아에 소재한 퀸지오바니 병원의 소아혈액환자를 위한 골수이식병동을 방문하여 20여 명의 아동 백혈병환자를 지원했다. 또한 외래환자를 위한 병동과 장기 수용시설 등을 증축하는 데도 거액의 기금을 선뜻 기탁한 그는 이런 말을 한다.

아동 백혈병환자 등 지원 성금 선뜻

모피 거래방지 등 동물보호운동 앞장

“여기선 제가 스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스타는 아픈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주시는 의료진 여러분들이십니다.” 이것이 곧 불성(Buddha Nature)이 아닐까? 생명에 대한 그의 보살핌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첼저한 채식주의자인 그는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생각하는 사람들(PETA)로부터 모피 거래방지, 아기 코끼리의 수출입금지, 유기견의 도살금지 등 동물보호의 공로로 인도주의 상을 수상하고, 실제로 버려진 개들과 한 가족을 이루며 산다. 그와 동물 간의 인연에 대한 일화가 있다. 이십대에 일본 오사카의 합기도 도장에서 수련하던 그는 어느 날 도장 앞에서 서성대는 떠돌이 흰 개를 만난다.

그런데 왠지 오래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처럼 느껴져 며칠 동안 돌보며 지내는데, 어느 날 그 흰 개가 갑자기 미친 듯 짖어대더니 멀쩡하던 도장이 불길에 휩싸인다. 큰 화재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뒤 그는 그 고마운 흰 개를 사방으로 찾아다니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성휴 스님

티베트 스님들 中지진 피해자 위령재

중국 쓰촨(四川)성 일대의 대지진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티베트의 라마(스님) 500여 명이 5월 13일 티베트의 3대 사원 중 하나인 라사의 드레풍사원에서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지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위령재를 집전한 금년 80세의 담파룽톡 라마는 “참으로 통탄스러운 비극”이라며 “희생된 원혼들의 이른 천도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라 말했다.

1416년 건립된 드레풍사원의 민주운영위원회 의장인 아왕 통죽라마는 “위령재 직후 라마들이 긴급구호기금으로 약40만 위안을 보시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원에서도 시시각각 피해 속보를 접하며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칭하이의 타에르사원에서도 1000명의 라마가 합동위령재를 올리고 구호기금 11만 위안을 모금했으며 깐수성 윈난성 산시성 등의 티베트 불교사원에서도 위령재와 모금행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출처 : ChinaView

티베트 데일리 “달라이 라마 책동 규탄”

중국이 티베트의 자치문제에 대한 달라이 라마 측과의 어떠한 협상도 단호히 일축한 가운데 5월 5일 티베트 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티베트 애국적 인민들은 14대 달라이 라마와 추종자들의 범죄적 책동을 규탄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특별자치주인 티베트는 물론 그와 인접한 티베트인의 밀집지역을 포괄하는 광역적인 ‘진정한 자치’를 요구한바 있다.

출처: ANI, 新華社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t’s overfull! No more, please!”

찻잔에 이미 차가 가득 찼으니 이젠 그만 따르시죠



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 paid a visit to a famous Zen master. While the master quietly served tea, the professor asked this and that about Zen. The master poured the visitor’s cup to the brim, and then kept pouring. The professor watched the overflowing cup until he could no longer restrain himself. “It’s overfull! No more, please!” the professor blurted. “You mind now is like this cup,” the master replied, “How can I fill your cup with Zen unless you first empty it.”

미국의 어느 교수가 이름난 선사를 방문했다. 선사가 조용히 차를 따르자 교수는 선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었다. 선사가 찻잔의 가장자리가 넘치도록 줄곧 차를 따르자, 그걸 지켜보던 교수가 마침내 투덜댔다. “찻잔에 이미 차가 가득 찼으니 이젠 그만 따르시죠.”선사가 미소를 지었다. “지금 교수님의 마음도 마치 이 찻잔과 같습니다. 먼저 찻잔을 비우시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 선을 채워드리리까?”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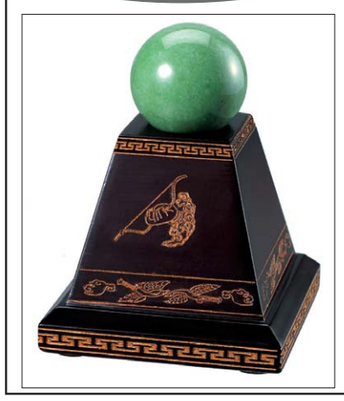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

산속의 바다 해인사,
산사 곳곳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해인海印', 언어로는 다가갈 수 없는 현판을 바라보며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의 해인사에 오른다.

도량은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가득했다. 종종걸음마다 뽀얀 먼지가 일고, 재잘거리는 얼굴마다엔 친구의 얼굴 하나씩 담겨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산사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도량을 살피러 나온 주지 스님도 아이들의 모습에 눈길이 머문다. 이내 아이들에게 마당을 내어주고 법당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의 뒷모습에 엷은 미소가 보인다.

법당 마당을 빠져나와 봉황문 옆길을 걸었다. 언제부터일까. 가야산 산비둘기 한 쌍이 나뭇가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다. 산비둘기도 아이들처럼 나들이 온 것일까. 셔터소리에 놀랄줄 알았지만 산비둘기는 나무를 내려와 돌담을 걷고 돌담을 내려와 숲길을 걷는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곁에 머물고 있었다.

산비둘기가 가야산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저녁으로 가는 해를 따라 걷는다. 원당암 가는 길에 작은 적석탑(積石塔)이 보인다. 마음에 모신 부처를 생각하며 마음 하나씩 얹고 지나간 작은 인연들이다. 누가 알까. 헤어진 첫사랑이 저 돌탑에 나란히 쌓여있을지도.

다시 '해인'이란 현판 앞에 선다. '해인'은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비롯된 말이다. <화엄경>에서는 파도가 쉬면 삼라만상이 바닷물에 비쳐 보이듯, 마음의 번뇌 망상이 멈출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경지를 해인삼매라고 했다.

서로의 얼굴 속에 그대로 친구를 담을 수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나 말없이 마음으로 서로를 따라 다닐 수 있는 산비둘기의 마음, 마음의 부처를 모신 작은 밑돌 하나가 다름 아닌 '해인'이 아닐까.

합천 해인사=글/사진 ·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의 해인사, 작은 소망을 쌓은 적석탑이 산사의 운치를 더하고 도량엔 수학여행 온 아이들로 야단법석이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상 불 소 영
장 량 장 가
의 장 천
식 식 사 용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화엄사상으로 풍성한 발레뮤지컬 심청 무대 위에서 즐겨요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서 6월 8일부터

몸의 언어 발레와 흥겨운 춤과 노래가 어울린 뮤지컬 연극이 불교와 만났다. 6월 8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무대 위에 선 보일 발레뮤지컬 '심청'이다.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고려의 판소리계 고전소설 〈심청전〉이 발레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탄생된 것. '아빠와 딸이 함께 보는 공연데이트'라는 부제는 극의 프롤로그에서 수술을 앞둔 눈 먼 딸에게 동화 〈심청전〉을 읽어주는 아빠, 극 속의 극으로 펼쳐지는 심 봉사와 그의 딸 청이를 통해 무대와 관객 그리고 한국의 고전이 삼위일체가 된다. 유니버설발레단이 선사하는 이번 공연은 지난 해 초연되어 한국 발레를 전 세계로 역수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매년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 10년 릴레이 공연을 목표로 한다. 효의 참된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청이가 나고 자란 도화마을은 극락의 다른 이름이다. 복숭아는 천상의 공양물이라 하여 불화와 불교 건축은 물론 불교 설화에서 천인의 음식을 상징한다. 이러한 마을에 태어난 심청(心淸)은 인간의 본래 청정한 자성을 대변한다. 눈 먼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용왕님 전에 재물이 되기를 자청하면서 극은 갈등의 구조를 형성한다. 시주금 사기단으로 풍자되는 가짜 스님들의 말을 곧이 믿고 눈을 뜰 수 있다며 좋아하는 심 봉사를 보며 청이는 이별 후 아버지의 생활을 걱정한다. 청이가 빠진 인당수(印堂水)는 법(法)과 비법(非法)을 통찰하는 부처님의 미간백호(眉間白毫)이자 화엄의 바다인 해인(海印)의 상징이다.

수술실로 향하는 소녀도 서서히 마취되면서 용궁으로 향하는 청이와 만난다. 청이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바른 품성은 마을 주민은 물론 뱃사람 초공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용왕을 감동시킨다. 그리고 연꽃을 통해 청이는 보살의 몸으로 상품상생(上品上生)하여 황후가 된다. 오탁악세(汚濁惡世)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대표하는 불교의 상징이 바로 연꽃이다.

반면 심봉사는 무명에 휩싸인 마음의 장님이다. 뺑덕어멈은 덕을 잃은 여인으로 악행을 쉬지 않는다. 결국 청이는 전국의 모든 맹인을 궁으로 불러들여 연회를 베푸니 중생을 향한 보살의 마음이 이와 같을까. 심봉사는 효녀 청이의 부름에 눈을 뜨고, 미혹한 중생심도 참회하게 된다. 소녀 또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02)2204-1041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돈황의 바람이 들려주는 천년의 실크로드

서용展 리씨갤러리에서 5월 27일까지

"돈황(敦煌)의 매력은 '자연미'입니다. 천년의 시간이 살아있는 돈황의 기운을 캔버스에 담고 싶었습니다."

중국 북서쪽 고비사막에 자리한 실크로드의 관문. 돈황 벽화의 찬란함에 매료된 화가 서용(46.동덕여대 한국화 교수)씨가 삼청동에 위치한 리씨갤러리에서 '돈황의 바람에게 묻다-천상언어(天上言語)' 전시를 열었다.

벽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펼쳐온 화가에게 돈황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그래서 화가는 기회가 날 때마다 돈황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모사와 재구성에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의 자세와 미적 체험의 색채로 다가간다. 2004년 개인전 이후 3년 반 만에 돌아온 그가 들려주는 돈황의 바람소리는 신비롭다.

그의 캔버스는 흙을 이겨 올린 판이다. 세월이 흘러 판이 갈라지더라도 본연한 흙의 성질에 남다른 애정을 품는다. 그 위에 글씨나 그림의 본을 그대로 옮기는 '임모(臨模)'의 작업을 하고 의도적으로 낡음의 자연주의를 표현한다.

화가는 돈황의 바람소리를 전하는 매신저이고 싶다고 말한다. 붓다의 형상을 그리며 새로운 개념의 불교미술로 세계 유일의 돈황 화가이고 싶어 한다. "양평 작업실에 황사가 불면 문득 돈황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독백을 한다. "이 바람은 돈황에서 왔을까!" 화가 서용씨에게 천상언어는 돈황과 화가가 하나되는 과정이었다. (02)3210-0467

가연숙 기자



'돈황의 바람에게 묻다-천상언어(天上言語)' 작품 앞에선 화가.

불교성악의 밤 초대합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5월 27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불교성악의 밤' 그리고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과 무용단의 '정기 연주회'가 펼쳐진다. 사단법인 불교음악협회는 전통 불교음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현대 불교음악의 창작과 보급은 물론 전문 음악인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5월 27일과 28일에는 불교 성악의 밤이 무대 위에 오른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룸비니의 찬가가 울려 퍼질 이번 공연에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부터 영화 '모정'의 주제곡까지 찬불가와 오페라, 뮤지컬과 가곡이 어우러진다. 더욱이 찬불가의 시조를 범패에서 찾음으로써 새로운 불교 음악을 시도한다.

5월 30일과 31일에는 제11회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과 무용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 현대적인 찬불가를 통한 신앙적 정서의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삶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여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이다. (02)725-7849 가연숙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죽순 땅콩 볶음



장을 다스리고 화를 풀어주는 죽순
동백경화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땅콩

5, 6월께 녹색이나 황록색으로 솟아나는 죽순은 대나무의 땅속줄기로부터 가지가 갈라져 나온 어리고 연한 싹이다. 독특하게 씹히는 맛과 은은한 향 때문에 식용으로 많이 쓰이는 죽순은 건강식품으로도 훌륭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죽순의 씹히는 맛을 내는 섬유질 성분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며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이 섬유질에는 특수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장 안의 유효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 또한 유산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손꼽히며 화(火)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서 평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나 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죽순은 죽이, 죽아, 죽태라고도 불리는데 하루에 20g 정도를 차로 만들어두고 수시로 마시면 유산 예방뿐 아니라 태아도 튼튼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죽순은 맛이 달고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번열과 갈증을 해소해주며 몸 안의 체액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해주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죽순의 찬 성질로 인해 복부가 차가워진다'고 했으므로 조심하는 게 좋다. 체질적으로 손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입술색이 푸른빛을 띠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땅콩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 불포화지방산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며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혈정 콜레스테롤도 높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 깨끗한 혈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당뇨병환자에게 적절한 식품이다.

땅콩은 두뇌를 좋게 하는 비타민B와 레시틴, 아미노산이 풍부한 고단백, 고지방으로 비타민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고칼로리 식품이다.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적혈구를 증가시킨다. 혈의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하는 비타민E 성분이 혈관 벽을 청소하기 때문에 동백경화증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여 노화를 방지한다.

죽순 땅콩볶음 재료: 죽순, 땅콩, 꽈리고추, 식용유, 간장

만드는 법

①죽순은 쌀뜨물에 껍질 채 푹 삶아서 바로 찬물에 식힌 다음 껍질을 벗기고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둔다.

②땅콩은 물을 넉넉히 붓고 삶아서 맑은 물에 헹궈서 건져두면 떫은 맛이 빠진다.

③꽈리 고추는 꼭지를 따고 깨끗이 씻어둔다.

④뜨거운 볶음냄비에 기름을 두른 후에 ①, ②, ③을 각각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서 볶은 다음 같이 합해서 다시 한 번 볶아 그릇에 예쁘게 담는다.

함께가요~ 강의실로!

대기설법으로 중생을 제도 하시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중강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⑦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불자 신행

강사 :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불교인재개발원 원장)
주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후원 : 조계종 포교원
일시 : 2008년 5월 14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따빳수와 발리까 최초로 귀의한 우바새

'앙굿따라니까야' 팔정도 중심 수행법 제시

아난존자는 BC569년 성도 후 21년 세수 55세에 붓다의 시자가 되어 전법의 교화 후기 25년의 세월과 열반 그리고 그 이후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증명합니다. 붓다의 일생 가운데 전법 후기 시기. 다음은 하안거를 나시며 교화를 펼치신 측면으로 바라본 연표입니다. 현재 조계종단에서 연구 중인 정확한 붓다의 생애 연표의 근거는 80여 가지로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의 연표는 제가 정리한 연표이기 때문에 변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주십시오.

BC569년(55세) : 왕사성에서 하안거(일설에는 사위성)기바가 빔비사라왕 알현
BC568년 : 앙굴리마라 제도.
BC567년 : 빔비사라왕과 위제희 왕비 사이에 아자타삿투 출생.
BC564년 :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하안거/ 61세에서 78세까지 18년간.
BC563년 : 사위성에서 하안거.
BC562년 : 78세까지 16년간 사위성에서 하안거.
BC551년 : 아자타삿투 왕위 찬탈. 데비왕비 자결. 꼬살라국과 전쟁
BC548년 : 꼬살라국 태자 비두다바가 왕위 찬탈
BC546년 :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하안거
비두다바왕 카필라성 공격 석가족의 멸망
BC545년 : 왕사성 영축산 유행
사리불 · 목련존자 열반
BC544년 : 바이샬리 벨루바에서 하안거
3개월 유행중 춘다의 공양(전단향 나무 버섯 요리)을 받고 발병
2월 15일 완전한 열반에 드심

초기의 출가 수행자는 붓다에게 직접 설법을 들은 제자였습니다. 비구 47명, 비구니 13명으로 총 60분의 승려 제자가 있었으며, 10대제자라는 이름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전에서도 기록의 차이가 보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아난존자가 5회, 수보리존자가 2회 거론됩니다.

붓다께서 안거를 나신 기원정사의 연원을 살펴봅시다. 터만 남은 현재의 유적으로 당시의 규모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붓다 제세시 인도에서 가장 크고 장엄했던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붓다께서 거주하시던 향실(금당) 주변에는 80명의 장로가 거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원 벽화가 붓다의 열반 이후 그려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발굴된 기원정사의 크기는 5억4천만금이 희사되었다고 하며 약 3만 7천여 평으로 121,404㎡로 추정합니다. 붓다의 성도 후 6년 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난존자의 시봉에 주목을 해봅시다. 다문제일 아난존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은 비구 제자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마음 챙김을 가진 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 붓다의 가르침을 호지(護持)하였습니다. 교화 전기에는 사리불존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자들이 시봉한데 반해 교화 후기에는 아난존자가 시봉을 전담하여 시자들 중에 으뜸이 됩니다.

이번 대중 강좌의 취지에 맞춰 우바새와 우바이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재가불자 십대제자 중에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앙굿따라닛까야> 제 1권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부처님께 최초로 귀의한 귀의제일의 우바새는 따빳수와 발리까 상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미얀마로 향하는 대 상인이었습니다. 초전법륜을 하기위해 샤르나트의 녹야원으로 향하는 붓다를 뵙고 공양을 올립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붓다는 가사와 발우를 내립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재까지도 불교 성지를 발굴하면서 그 당시 붓다에게 받은 발우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에는 1995년에 설립된 한국의 사찰 '고려사(주지 조주)'가 있습니다.

보시제일 우바새는 '급고독 장자(아나따삔디까 장자)'입니다. 장자는 당시 제일의 재가신도로서 붓다께서도 보시자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라고 칭찬하신 바 있습니다. 장자는 꼬살라국의 수도 싸밧티의 대부호이면서 상인이었으며, 무의탁자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장자가 붓다를 처음 뵌 것은 붓다의 성도 다음 해에 사업상 마가다국의 라자가하(왕사성)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죽림정사로 달려간 장자는 새벽 선정에 들어 계시는 붓다에게 예경을 올립니다. 붓자는 장자에게 가까이 앉으라고 권하며 "장자여! 어떤 사람은 번뇌의 불이 모두 꺼져 조용해진 사람이다. 착하지 못한 불선법을 짓지 아니하며, 오욕락(五慾樂)의 대상에 묻지 아니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다. 조용한 곳에 이르러서 업(業)으로 받은 몸이 없다. 그런 사람은 모든 시간 편안히 잘 수 있다." 이로써 장자는 붓다의 제자로 귀의하게 됩니다.

장자는 붓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꼬살라국의 사위성으로 오셔서 안거를 나시기를 청하였고 왕사성에서 사위성으로 오시는 동안 하루에 1요자나를 이동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거리 마다 절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1요자나란 성인 어른이 소 달구지를 끌고 점심을 먹고 해질 때 까지 걸어가는 거리로 10시간을 소요하는 40km라고 합니다. 총 45개의 절을 짓고 사위성에는 기원정사라는 큰 절을 지어 공양을 올립니다. 붓다께서는 기원정사에서 16안거를 지내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우바이 십대 제자 중에서 보시제일은 '미가라마따 위사카'입니다. 남편 '미가라'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며 내조를 잘 하였고, 20명의 아들과 딸을 낳고 120세가 되어서도 늘 젊음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목건련 존자의 감독 하에 강당을 건축하였는데 1000개의 승방을 만들어 승려의 수행을 도왔습니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위사카에게 "여자가 네 가지 능력을 갖추면 이 세상에서 힘을 얻으리라. 첫째, 남편이 하는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과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남편이 하는 사업장의 인력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남편의 미움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남편이 벌어온 재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여 도둑맞지 않고 탕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붓다의 교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됩니다. 위의 교화 · 설법 교화 · 수행 교화 · 실천 교화가 그것입니다. 위의 교화란 계행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실천 행으로 자세와 몸가짐의 위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붓다께서도 모든 승려가 한 자리에 모이면 철저한 계행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설법 교화는 갖가지 비유법을 통하여 상대의 근기에 부합되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을 설법하셨습니다. <쌍윳따니까야>를 읽어보십시오. 500페이지의 열권으로 정리되어 방대한 분량입니다만 체계적으로 붓다의 설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앙굿따라니까야>는 초심자가 읽기에 무리일 수 있습니다만 법수(法數)를 따라 단계별로 11단계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행 교화는 실참실수(實參實修)를 통한 교화로써 팔정도를 중심으로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실천 교화는 중생구제 활동을 통한 교화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화하셨고, 중생이 너그럽게 이롭기를 실천하셨습니다.

붓다 설법의 특징은 대기설법입니다.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고 하지요. 근기에 따라 설법하시되 표준 근기는 중품중생의 부정취 중생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선근의 종자를 지닌 중생을 의미합니다. 먼저 비구 · 비구니에게 그리고 우바새 · 우바이에게 법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는 외도들을 위하여 설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절감하는 재가불자 인재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지도력을 갖춘 우바새 · 우바이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합당한 위의를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토양을 가꿔야 할 것입니다. 팔정도 법회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성제의 체득을 위해 수행을 통해 정진해 나가시길 권유합니다. 그 시작은 관찰지이며 분석하고 판단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판매사원 모집

당사는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시청각 **불경학습기기(아이센스 T-108)**를 개발하여 판매할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1.모집분야

모집대상	인 원	자격조건	비 고
판매사원	00명	1.불자님 우대 2.학력,나이제한없음(남,여) 3.차량소유자 우대	월수입 300만원이상 고수익 보장
관리사원	0명	1.상담경력자 2.전산경력자 우대	

2.모집요강
1)급여조건 : 면접 후 결정
2)모집기간 : 2008년 6월 5일까지
3)모집방법 : 1차서류면접, 2차 실무자면접
4)접수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5)접수방법 : 이메일 jjw5669@hanmail.net

3.기 타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층
TEL 02)2666-0678(代)
H·P 010-6299-5651

주식회사 도연아카데미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물열전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본각사 일두스님의 수맥파상담

"지금 당신에 침실은 안전합니까"
수맥파를 알면 가정이 편안 합니다.

만병의 원인 수맥파

법당에 들어서면 무서움 오싹한기분 냉기가 돌고 신도가 줄어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적이고 매사 되는일이 없고 다툼이생기고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짜증만내고 남편은 귀가가 늦고 부부싸움이 잦고 법당,사업장,주택 사무실,기타영업장에도 사업이 부진하고 원인모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병에 시달리고 악몽,가위눌림 깊은잠 못자고 생체리듬파괴 각종 암,중풍,관절염,심장질환,학습장애,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모든 건강문제!
식욕부진,만성 소화불량, 신경통, 고혈압, 뚜렷한 병명없이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는 분.

만약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자거나 근무한다면 당신은 이미 병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수맥탐사 1급 자격증 소지한 일두승이 탐사를 도와 드리고 수맥을 중화 시키거나 차단하고 미세한 수맥은 자리이동을 시켜서 수맥파에서 해방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귀 사찰이나 단체에서 원하시면 생활수맥 강의를 경기도 서울지역은 출장 강의를 해 드립니다.
2-3시간 교육으로 수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켜드리고 잠자리 이동을 가능하게 교육시켜 드립니다.
수맥을 중화 차단하고 난 후 약 5-7일간 경험해보신 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문의하여주십시요.
사찰의 주지스님 및 단체 개인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로 수맥 다우징(탐사)을 해 드립니다.

02)391-8540 /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 조계종 (사단법인)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 각 사 일 두 합장

부 고

원적 영금사 주지 법선당 대선사께서 2008년 5월 10일 오후 7시 50분에 열반하셨기에 이에 부고함.

- 법선당 대선사 장례위원회 명단 -

◆증 명 : 일휴. 원행. 운봉. 용운. 경덕
◆장례위원장 : 원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인봉) 선혜
◆고 문 : 법광. 원봉. 보광. 현각. 경혜
◆봉행위원장 : 정선
◆봉행부위원장 : 무이. 정오. 법승. 선광. 정수
◆봉 행 위 원 : 성운. 덕화. 도진. 현오. 청산. 법안 외 원주사암연합회 일동
◆집행위원장 : 원주불교신도연합회 회장 (자운) 원건상
◆집행부위원장 : 원주불교 각 신행단체장
◆집 행 위 원 : 원주불교 신도연합회 사무국임원
◆상 주 : 박운진. (무상심) 김명자 외 재가 제자
◆호 상 : 법진(석중). (각화)법룡. (일호)법종. 혜영. 덕화. 여운문도 일동. 영금사 신도회장. 권영모. 김수복. 김재숙
◆문 상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 3리
◆발 인 : 2008년 5월 14일 오전 9시 영금사
◆장 지 : 원주시립 화장장
◆전 화 : 033)763-4115 / 핸 드 폰 017-739-1414

원주시 불교 사암연합회 장례위원회



부처님 깨달음을 문학으로

국적을 초월



쉽고 뜻 깊은 불교이야기 · 붓다 차리타
김달진(金達鎭) 전집8 · 이김달진 지음
문학동네 펴냄|1만5000원 · 1만8000원

"어디로 가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죽은 뒤에도 바른 법은 영원히 흘러 퍼질 것이다."

'시인부락'의 시인이자 한학자이며 승려였고 향리의 교사였던 월하(月下) 김달진 선생. 1989년 6월 입적한 김달진 성생의 문학과 불교사상을 한데 묶는 전집출간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나온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전집이 동시 출간 됐다. <쉽고 뜻 깊은 불교이야기>와 <붓다 차리타(Buddha-carita, 佛所行讚)>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사제(四諦)의 진리를 밝게 알아 그것을 수행한다면 반드시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붓다의 원음이 선생의 음성을 빌어 정갈하게 정돈된 <쉽고 뜻 깊은 불교이야기>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요체인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를 비롯한 바라밀에 담긴 불교의 기본교리를 불전문학을 통해 전한다. 뒤이어 부처님의 행적과 깨우침을 간추린 마흔 한 가지 이야기가 펼쳐진다. 심오한 불교의 진리를 평이한 서술구조로 접근하면서 쉬우면서도 본연의 깊은 뜻을 훼손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책이다.

"나는 이제 저 바라나시로 가서 감로의 법 북을 울리고자 하니 교만도 없거니와 이름도 생각 않고 이익이나 즐거움을 구함도 않거니 다만 그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펴 중생의 괴로움을 건지려 함이니라."

불전문학의 최고 걸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붓다 차리타>는 중인도의 마명(馬鳴) 대사에 의해 탄생된 부처님 생애의 궁정서사시(宮廷敍事詩)다. 한역된 <붓다 차리타>의 5권 28품을 역자는 서언에서 "초기불교의 원형을 살리면서 한시의 향취를 잃지 않고자 했다"고 밝힌다. 석가 왕족의 계보와 붓다의 탄생을 시작으로 붓다의 입멸과 사리의 분배까지 망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름다운 운문이 격조 높고 장엄하여 그 말이 곱고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는 불전문학의 필독서이다.



1997년 선생의 시를 합본하여 엮은 첫 번째 전집이 나온 이후 98년 <산거 일기>와 <손오병서(孫吳兵書)>, 99년 <장자(莊子)>, 2000년 <고문진보(古文眞寶)>, 2001년 <한산시(寒山詩)>, 2005년 <법구경(法句經)>을 연이어 내놓았다. 총 19주제 22권의 완간을 목표로 인내의 시간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전집출판 릴레이 이다. 선생의 8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불교와 한학의 섭렵이 전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제가 한국 불교로 출가한 것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숭산 스님이 북극이나 남극에서 오셨거나, 돌고래여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쳤다 해도 나는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벼락과도 같았던 스승과의 인연을 청안 스님은 이렇게 기억했다.

국적을 초월한 진공(眞空)
푸른 선승 벽안납자(碧眼衲
행을 인터뷰 형식으로 교계
신문사의 유응오 · 장세훈
도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
(原)을 세워 떠나온 머나먼
견하여 믿고 따르는 참된 불
하다. 뒤엉킨 알음알이를 호
의 탁마(琢磨)를 통해 풀어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중히 대하는 푸른 눈을 지닌
다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숭산 스님의 대표적인 외
안 · 오광 스님 외에도 해외
· 대행 스님과 직간접적으
님의 일화와 만날 수 있다.
로서 지난해 조계종 포교다
위스 법계사 주지) 스님의 수

차 마시는게 어렵다구요?



알고 보면 쉬운 차
혜우 스님 지음|이른아침 펴냄
1만2000원

<다반사> <찻물기행> 등을 펴내며 차 즐기는 길을 안내 해 온 혜우 스님은 "차는 쉽다. 누구나 마실 수 있고 너나 없이 다반사로 즐길 수 있는 음료가 차다"라고 단언한다.

전통덖음차제조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스님답게 차를 격식의 자리에서 생활의 자리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 쉬운 차>는 책 이름 그대로 차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차를 만드는 방법, 차문화의 형성과 향유 방법 효능도 자세히 전하고 있다.

혜우스님은 이 책에서 가정과 학교 b직장에서 차를 마시자고 강조하며 쉽게 마시는 길을 안내한다.



차 마시는 일을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20년 넘게 차를 여구하며 보급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혜우 스님의 마지막 멘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저 차를 마시며 관심을 두다보면 문득 차는 당신의 삶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차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백련은 모든 음식과 '찰떡궁합'



백련으로 만드는 사찰 음식
선오 스님 지음|운주사 펴냄
1만5000원

"인간의 길흉화복은 성격에서 오고 성격은 음식이 만든다. 또한 음식은 건강을 만들고 건강은 건전한 사고의 능력을 만들며 건강한 정신은 행복한 삶을 가져다준다."

먹는 즐거움은 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이어진다. 먹는 것을 탐해서는 안 되지만 먹는 지혜는 필요하다. 사찰음식은 자연을 가장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옮긴다. 그래서 웰빙시대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사찰음식이 떠올랐다.

사찰 음식의 수많은 재료 가운데 백련을 최고의 재료로 만든 선오 스님이 <백련으로 만드는 사찰음식>을 냈다.

백련은 모든 음식과 찰떡궁합이다. 곡류건 육류건 어류건 모든 음식 재료들의 특성을 살려주고 맛을 순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영양을 살려주는 것이 백련의 역할이다. 그래서 선오 스님은 "백련 요리를 먹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산란하고 번민하는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



<백련으로 만드는 사찰음식>에는 밥과 죽류에서 면 만두류 두부 찌개 김치류 장아찌류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모든 요리에 백련을 활용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부록으로 식품의 계량단위와 연의 효능과 양념, 연과 사찰공양을 싣고 있다.

임연태기자

무궁화 꽃을 마신다?



자연을 마시는 우리 차
이연자 지음
열린박물관 펴냄|1만6000원

나라꽃 무궁화를 차로 마신다? 진드기가 유달리 많은 무궁화로 약을 하고 차를 내기는 언뜻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가능한 일이다.

우리 조상들은 무궁화의 껍질과 뿌리는 종이의 원료로 사용하고 다른약재와 섞어 위장병 치료제로도 썼다. 무궁화를 차로 마시는 방법은 허준의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무궁화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 번 읽어 보자.

"성질이 서늘하고 독이 없다. 이질과 풍열을 치료하며 볶아서 쓴다. 달여서 차로 대용하면 풍을 다스린다. 특히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꽃가루를 물에 타 미사면 설사가 멈춘다."

꽃이 차가되어 향기와 약효를 함께 선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변의 꽃들이 지나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진달래 아까시아 원추리 구절초 국화 등 웬만한 꽃들이 다 해당되니 말이다. 꽃 말고도 대추 인삼 생강 오미자 포도 모과 등을 약차로 만들어 즐기는 것도 몸과 정신에 매우 이로운 일이다.

<자연을 마시는 우리차>는 30여 년 간 우리 차와 전통문화 소개에 앞장 서 온 한배달 우리차문화원 이연자 원장이 약차와 꽃차의 세계를 소개한 '차종합교양서'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

순위	도서명
1	언젠가 이세상에 없을 당신을
2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
3	나를 깨우는 108배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5	절을 기차게 잘하는법
6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7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8	사찰 100미 100선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
10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붓다,
이 세상에 나투신
[성열지음 | 도서출판 문화문고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 조립식 원두막 방갈로 7000×3500×3300(mm) 가격:750만원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1~2
FAX:(063)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 - 02 - 203482 예금주 : 지구산업 곽 영 호
전 품 목 부 가 세 별 도 전 국 대 리 점 모 집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 해도 불보살 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깔창을 보급합니다.



발명특허 10-0806337호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 · 실리콘 · 동 99% 삼위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훈 합장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본사 ·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문의 · 주문 : 02)733-5715
011-9000-5715
▸계좌 :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 박해운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
삶의 희망을 키우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
의 달마도와의 특
연으로 지명스님
도 수도 정진하는
청정하고 정갈한
서 달마도를 원력
단한 우리네 삶에
빛으로 다가오고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
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여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

상담 전화 02)2663-665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클리어마인드

"모든 불자 클리어 하도록…"

현진 스님 글로 불교인생 시작
좋은책으로 불서 대중화 시킬 것

불서출판사를 하나도 아니고 두군데나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부산 불서 출판의 든든한 버팀목 '현대북스'와 서울에서 활발하게 출판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리어마인드'가 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 아마 흔히 알려진 사실은 아닐 것이다. 두 출판사 모두 젊은 사장의 감각과 녹록치 않은 불심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주류를 이룬다. 두 출판사와 출간물을 아우르고 있는 사람, 오세룡 사장이다.



"불서출판은 '인연'이라는 말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출판 안 하려 한 적도 있었는데, 벗어나면 또 저도 모르게 제자리로 오게 되더라고요."

서울 클리어마인드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불서 출판은 '인연'이었다는 말로 이야기의 문을 열었다. 부산 조계종립 해동고등학교를 다녔던 불교학생회 출신 청소년이 불서출판사 사장이 되어, 꿈을 펼쳐가고 있는 이야기.

그에게도 불서출판 인생의 시발점이 된 한 권의 책이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겁니다. <해인지>에 연재됐던 현진 스님의 <삭발하는 날>(후에 책으로 출간)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스님의 생활을 글로 읽게 되다니요, 신선한 감동이었지요. 읽으면서 출가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때 이미 오 사장은 한 권의 불서가 얼마나 신심을 돋울 수 있는가를 스스로 체험했던 것이다. 청소년기에 그렇게 품었던 열기, 아직도 갖고 있을까. 그것은 오 사장의 현재 행보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오 사장은 요즘 클리어마인드를 통해 활발히 책을 펴내고 있다. 지난 달 <돈오선>을 펴냈는데 이번 달에는 또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의 책 <신심>과 <원력>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몇몇 유명 집필자들과의 계약도 체결했다. 이 왕성한 활동은 그 불서를 향한 청소년의 열망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 속 산물이리라.

클리어마인드는 2005년 설립됐다. 클리어마인드야 몇 해 되지 않았지만 오 사장은 부산에서 '현대북스'(2000년 설립)로 지역불서출판 바람을 일으켰던 이력이 있다. 그가 '부산'이라는 터전을 두고 서울에 온 이유는 뭘까. 오 사장은 "전체 출판유통의 70%에 달하는 서울출판계를 꼭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또 하나 '클리어마인드'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다. 현대북스가 간화선의 요체를 설명한 <간화정로>(월암 저)처럼 다소 무거운 책으로 주목받았다면 '불교의 대중화'를 지향점으로 삼는 출판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오 사장은 지역청년회활동, 불교활동을 하며 진짜 대중들이 목말라 하는 불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서원을 클리어마인드에서 비로소 키워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클리어마인드', 하면 떠오르는 책들은 사실 그리 쉽지 않다. '대중서=쉽다'는 공식이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클리어마인드 대표도서 격인 <염불선>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돈오선>만 봐도 그렇다.

특히 '무문관 일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문없는 문…>(김성우 엮음)은 클리어마인드의 간판 격인 도서다. 책의 탄생 스토리가 재밌다.

"평소 존경하던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일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분이 무문관에서 오랜 시간 수행하셨던 분인데, 그 일기를 보니 일반인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무문관 생활이 자세히 기술돼 있는 겁니다."

당시 <문 없는 문…>에 실린 일기가 가짜다, '무문관'을 일기라는 사적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다.

출판사 수장으로서 오세룡 사장은 자신을 어떻게 평할까? 스스로 "사람 욕심이 많다"고 한다. 그는 인재를 발견하면 데려오고 싶어 한다. 이는 그의 꿈과도 연결돼 있다. 좋은 책으로 불서를 대중화 시키는 것도 그의 꿈이지만 두 출판사를 크게 성장시켜 불교계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그의 꿈이다. 이를 위해 오 사장은 쉴 틈 없이 뛰어다닌다. 필자들 만나랴, 부산과 서울에 각각 있는 출판사 관리하랴, 그의 하루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그래도 좋아서 그런지 힘든 줄 모르겠어요."

클리어마인드. 풀이하면 '청정심(淸淨心)'. 사람의 마음을 맑게 가꾸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오 사장이 인터뷰 중 한 말이 있다. "준비를 오래 한 책은 거짓말을 않더라"는 것이다. 지금 오 사장이 생각하듯, 클리어마인드를 통해 만나는 불서로 불자들이 '클리어 마인드(Clear mind)'할 수 있다면 출판인으로 더 큰 보람이 있을까.

글=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클리어마인드 & 현대북스 도서 BEST 10

순위	도서명	지은이
1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클리어마인드)	김성우 엮음
2	간화정로 (현대북스)	월암
3	지안 스님의 금강경이야기 (클리어마인드)	지안
4	염불선 (클리어마인드)	덕산
5	좋은만남 멋진이별 (현대북스)	자광
6	돈오선 (클리어마인드)	월암
7	둥지속의 대화 (현대북스)	효종
8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 (클리어마인드)	영흥
9	기도발 (현대북스)	일광
10	신심 (클리어마인드)	혜인

내 인생의 불서 한권

서경수 역 | 목경찬(사찰, 어느 것

"문제가 있는 곳에 답

불교 의문점에 대한 문·답
초심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지금은 그나마 다양한 불서가 서점에 자리하고 있다. 불서를 읽는 사람이 많지 않고 불교출판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만에 해도 갓 불교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적당한 불서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할 때 눈높이에 맞는 불서는 거의 없었다. 동국대에서 나온 <불교학개론>이 주된 교재였다. 그 개론서 역시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기타 불교사 관련 서적도 있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 상태에서 선후배가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그러한 시간 속에 <미린다 팡하>는 참으로 소중한 책이었다. '미린다 팡하'란 말은 빨리어 성전에 속하는 것으로, <밀란다왕문경>, 또는 <나선비구경> 등으로 한역되어 있다. 여기서 '미린다'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서북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왕인 밀린다(또는 메난드로스)를 말한다. '팡하'는 질문이라는 뜻이다. 즉, 이 경은 그리스 왕인 미린다왕이 인도 스님인 나가세나 존자(또는 나선비구)에게 불교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한 내용을 답고 있다.

인도와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왕이 불교에 대해 나눈 의문과 질문은, 우리 같은 초심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불교를 접하면서 다양한 의문들을, 미린다왕은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세나 존자에게 과감하게 질문공세를 펼친다. 이 질문에 대해 나가세나 존자는 알맞은 비유를 들어 명쾌하게 답변한다.

수레를 비유로 들어 '나'라고 할 자성이 없으며, 단지 '이름 뿐'이라는 가르침은 너무도 유명하다. 모순 여부', '해을 느끼는가', '업은 어디에 있체는 소중한가'된다.

이 가운데 기방편 교설로써 안 악행을 저질염불을 하면 극의문에 대해 나한다.

"대왕이여, 백바위라도 배에 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대왕이여, 그업은 배와 같습

한편으로는 조한, '자신의 말이 큰 가르침 없이 책을 읽는을 세는 것과 말을 한다. '문

참고로 <미린역본이 있다. <16)(서경수 역, 문경1> (불전간밀린다왕문경1> 2000) 등이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정여
부 총 재 심산 원허
사무총장 일광
협 회 장 백명숙
중등부지회장 손태석
고등부지회장 박병택
사무국장 이욱태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 파라미타
TEL 051)513-4306 / FAX 051)513-4307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조계종 77조
인가제자 대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바로보인 선가귀감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
02-3494-0122 ww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5장 방편(方便)

지관을 수행하려면 '결정심'이 분명해야

선정의 마음이 바로 지혜, 지극한 일념으로 정진을

二者精進 堅持禁戒 棄於五蓋 初夜後夜 專精不廢 譬如鑽火未熱 終不休息 是名精進善道法

두 번째는 정진 수행하는 방편이다. 정(精)은 잡되게 섞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진(進)은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수행인은 한결같고 전일한 마음으로 잡되지 않고 혼란하지도 않으며 쉬지 않는 상태에서 용맹하게 정진을 해야만 한다.

어떤 종류의 공부를 하던 중요한 점은 부지런하게 수행하는데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은 염불을 했다가 다음날은 경전강의를 듣고 또 때로는 참선을 했다가 어떤 때는 주력을 하는 등 '정'을 잡됨이 없이 수행하지 않고 마음이 들쭉날쭉 수시로 바뀐다면 종일 수행공부를 한다 해도 한 가지 일도 성취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찌 크게 가련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허물을 추구해보면 잡되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정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인이 불도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용맹하게 정진해야만 한다.

정진이란 무엇인가. 견고하게 금계를 지녀 안으로는 탐 진 치 만 의 등 다섯 번뇌와, 밖으로는 색 성 향 미 촉 법 등 육진을 버리고 안과 밖이 동시에 청정해야만 몸과 마음을 정진하는 것이 된다.

초저녁, 새벽, 한밤중 쉴 사이 없이 정진하면서 성성적적하고 적적성성하게 지관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를 비유하면 나무를 마찰하여 불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일 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무를 마찰하는 일을 끝내 쉬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를 두고 용맹한 정진이라고 하며, 지관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도법이라고도 한다.

三者念 念世間爲欺誑可賤 念禪定爲尊重可貴 若得禪定 卽能具足 發諸無漏智 一切神通道力 成等正覺 廣度衆生 是爲可貴 故名爲念

세 번째 염(念)이란 분명하게 기억하는 마음인데, 올바르게 기억하여 마음속에 환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간의 오욕법은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아 사람을 기만하고 현혹시키기 때문에 천박하고 증오스럽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만 한다. 또 출세간 선정지혜는 수승하고 오묘하여 존귀한 법이라는 것도 기억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모든 선정을 얻게 되면 즉시 무루의 지혜와 일체 신통력이 빠짐없이 발현하여 등정각을 성취하게 된다.

무루지는 무생지(無生智)이다. 무생으로서 일어남이 없다면 소멸함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하는 무루지혜이다.

신통은 육신통(六神通)이며, 도(道)는 칠과도품(七科道品)이며, 역(力)은 여래만이 지니는 열 종류의 지혜의 힘[十力]이며, 등정각을 성취한다함은 무상불도를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정각(正覺)에 대해 말해본다면 범부는 망상으로 지각하고, 외도는 사견으로 깨닫고, 이승은 공에 치우쳐 깨닫고, 보살은 단지 중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진실한 등정각이 아니다.

오직 여래만이 진실한 등정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래의 등정각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끝까지 다하였고 공간적으로는 우주법계를 포괄하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래의 등정각만이 일체 만법과 평등할 수 있는 것이다.

여래는 삼지(三智)가 원만하게 밝고 오안(五眼)이 훤출하기 때문에 정각이라고 부른다. 지극한 묘각을 깨달은 이후에는 생멸망상이 끊어진 무연자비(無緣慈悲)를 일으키고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운행하여 육도의 세계에 형체를 나투고 일체 중생을 광대하게 제도하신다.

수행인은 이같은 수승하고 오묘한 법을 항상 올바르게 사유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다. 따라서 이를 두고 '염'이라고 말한다.

四者巧慧 籌量世間樂 禪定智慧樂 得失輕重 所以者何 世間之樂 樂少苦多 虛誑不實 是失是輕 禪定智慧之樂 無漏無爲 寂然閒曠 永離生死 與苦長別 是得是重 如是分別 故名巧慧

네 번째로는 뛰어난 지혜를 실천하는 방편이다. 무릇 수행자라면 반드시 훌륭한 지혜로 세간의 쾌락과 출세간의 선정과 지혜에서 얻어지는 쾌락 가운데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료하게 밝혀 걸림이 없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생사에 염증을 내고 열반의 세계로 향상하는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 못하고 사견과 정견이 분간이 되지 않아 기로에서 방황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반드시 뛰어난 지혜로 관찰해야만 한다.

세간의 즐거움은 유위법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무상이며 설사 즐거움을 얻었다 해도 그 즐거움 역시 끝내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그 때문에 세간에서는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법신과 혜명을 살상하는 법을 즐긴다면 이는 경솔하고 천박한 법이다.

출세간 선정지혜의 즐거움은 무루법이고 무위법이다. 무루는 생사에 누락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위법은 유위법의 조작함이 없어 담담하고 고요하여 생사의 속박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다.

이같은 법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법이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지혜라고 말한다.

五者一心分明 明見世間可患可惡 善識定慧功德可尊可貴 爾時應當一心決定 修行止觀如金剛 天魔外道不能沮壞 設使空無所獲 終不回易 是名一心 譬如人行 先須知道通塞之相 然後決定一心涉路而進 故說巧慧一心 經云 非智不禪 非禪不智 義在此也

이상에서 이미 세간의 유위법은 모두가 환란이고 악이라는 것을 뛰어난 지혜로 분명히 구별했고 아울러 출세간 선정 지혜는 존귀한 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 때 즉시 지극한 일념으로 지관을 수행하는데, 이 일심은 결정적인 일심이지 선정에 들어간다는 일심이 아니다. 즉 전일한 마음으로 하나의 문으로 깊숙이 들어가 공부하는 마음인 것이다.

금강은 가장 견고하고 날카로워 일체 사물은 파괴할 수는 있을지언정 일체 사물에 파괴를 당하지는 않는다.

지관을 닦는 마음도 마치 금강처럼 견고하고 날카로워 다른 사람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으면 마구니 외도에게도 파괴되지 않고 설사 전혀 얻은 바가 없다 해도 끝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를 비유하면 참선하는 가운데서 매우 좋은 소식을 얻은 것과 같으며, 염불수행을 할 때 지극한 일심으로 수행하여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뒤바꾸지 않는 것과 같다. 이를 두고 일심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마치 길을 가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도로가 막혔는지 통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과도 같다. 생사의 길은 막혔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며, 열반의 길은 통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간 뒤에야 결정적인 일심으로 그 길을 따라 전진할 수 있다.

일심이란 사량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마음이 가장 요긴하기 때문에 절대로 생각을 뒤바꾸어 가는 길을 되돌려서는 안된다. 그러한 마음을 두고 뛰어난 지혜로서의 일심이라고 말했다.

경전에서는 말하기를 "지혜가 아니면 선정에 들지 못하고 선정에 들지 못하면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지와 관 수행이 두 모습이 아님을 뜻한다.

지관을 수행하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결정심이 분명해야만 하는데 선정의 마음이 바로 지혜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5) 식온(識蘊) ①

심(心)·의(意)·식(識) 등 세 가지의 차별을 하나로 통합해서 '식온(識蘊)'이라고 합니다. 즉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는 작용을 하는 여덟 개의 분별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으로 어떤 행위, 즉 선업이든 악업이든 단 한번이라도 일으키면 모든 중생들의 근본식인 제팔아뢰야식(第八阿賴耶識)은 일과성인 단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일으켰던 만큼의 잠재세력이 그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잠재세력들은 제팔식 근본식 자체에 함장됐다가 외부의 인연조건을 만나게 되면 다시 현재의 활동, 즉 전칠식(前七識)의 현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종자세력이 활동을 일으키게 되면 현재의 활동세력은 다시 그만큼의 잠재세력을 제팔식

여덟 개의 식을 하나로 통합한 것
대상을 분별·인식·의식하는 작용

에 동시에 함장하여 외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질 때까지 그 세력을 종자로 간직하게 됩니다. 제팔식은 이같은 자체성질과 작용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심(心)'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모든 중생들마다 제팔식으로서의 심을 근본의지처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하나도 잊지 않고 현재까지 지닐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배움으로써 갖가지 현실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이러한 심이 없다면 과거의 경험이 새삼 현재의 지식으로 일어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바로 망각하여 과거의 경험은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어서도 찰나찰나 소멸로 단멸하여 전후의 연속유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활동력은 한 찰나에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심이야말로 나머지 모든 식의 근본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식(本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심은 우리의 생명활동을 누리는 일정기간동안 마음과 몸을 서로 연대해서 단절하지 않도록 유지하게 해주며, 밖으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국토까지로 변화하여 세계를 유지시키는 한량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력(業力)'이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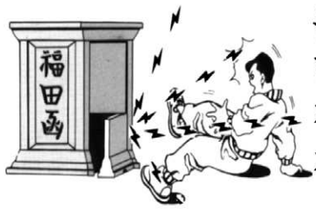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1년 (서울,경기 의식기준)
1.사물다루는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천 도 의 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시식
3.각종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4.개 강 일 : 2008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5.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6.수 업 료 : 매월 10만원
7.접수연락처 : 054)762-5888, 011-819-7464
팩스 054)762-5889
8.주 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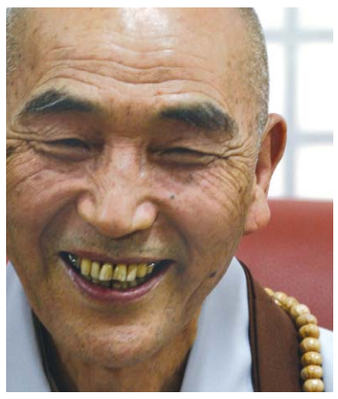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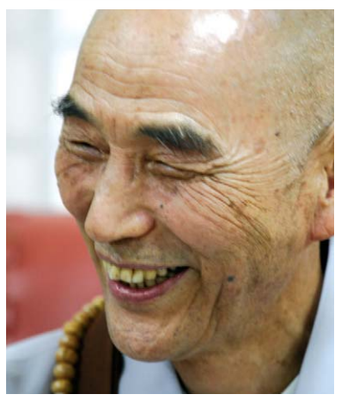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비우지 말고 ‘희망’으로 채워야”

선지식을 찾아서 법인

각원사 회주 법인 스님







법인 스님은

1946년 합천 해인사에서 득도. 해인대학 문학부 종교학과를 거쳐 동국대학교 사학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 동국대 대학원 철학과를 마치고 일본 대동문화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음. 1975년 대한불교 조계종 각원사의 재일(在日) 포교원인 명월사를 창건. 1977년 태조산 각원사를 창건. 1985년 평화통일문화상을 수상. 저서로는 〈불교입문〉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연구〉 등 다수가 있다.

법인 스님은 55년 만에 만난 지인들과 환담 중이었다. 법인 스님이 해인사 백련암에 머물 때 아랫말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하여 스님의 면면을 듣게 되었다. 법인 스님의 강인한 의지력과 실천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터이다.

“스님은 예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차림으로 등에 걸망을 지고 오른손에는 요령을, 왼손에는 발우를 잡고 탁발을 다녔어요. 사람들이 한 종지 한 종지씩 주는 쌀과 보리를 모아 두었다가 학비로 충당했는데, 공부를 하겠다는 집념이 대단했어요. 요령을 잡은 팔목이 퉁퉁 부어있는데도, 스님은 집집마다 〈반야심경〉 한편씩을 꼭 읽어주었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 참으로 어수선할 때 법인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3년 동안 기도 정진을 하였다. 해인사를 폭격한다는 소문이 돌아 모두들 떠나갔지만, 스무 살의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가람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겨났다. 탁발로서 가람수호 유지비를 충당하였는데, 대구를 거쳐 경주까지 가게 되었다. 그때 경주 석굴암의 부처님 앞에 서니 깊이 환희심이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 앞에서 서원이 흘러 나왔다.

금지만 강요하는 지도방식은 후진적
재물 바르게 쌓아 올리는법 가르쳐야

“부처님! 남북통일을 기원할 수 있는 큰 도량 건립불사를 이룩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주소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그때부터 법인 스님은 자신의 서원을 포기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1977년 천안의 태조산에 각원사를 창건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청동대불을 조성함으로써 큰 도량 건립불사를 이루어냈다.

또 1951년도에 탁발을 해서 매월 쌀 3말씩을 내놓고는 자비량(自費糧)학승으로서 해인강원에 입학을 했다. 이렇게 시작한 공부는 동국대학교 사학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일본 대동문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음으로 해서 끝을 맺게 되었다. 38년만에 학업에 대한 서원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곧잘 바라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기복(祈福)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과 미래를 지향하는 서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는 기도 정진을 해야 합니다”

법인 스님의 앞에는 순탄한 길보다는 험하고 힘든 길이 더 많이 가로 놓여 있었다. 그때마다 항상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자신에게 더 혹독한 기도 정진으로 극복할 것을 명하였다. 법인 스님은 팔십을 바라보지만 아직도 뉴 프런티어(new frontier)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개척해서 일구어내야 한다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고생은 미래의 거름’으로 생각하기에 고생을 고생으로 여겨 본 적이 없다. 20여 년간 각원사를 명실상부한 거찰로 일구어 놓은 후 미련 없이 재일(在日) 포교당인 도쿄 명월사로 떠나왔다. 변함없이 해외포교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아도 일신의 안주에는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인 스님은 매월 초하루 법회를 위하여 일본에서 각원사로 오신다. 스님 혼자서 도쿄의 명월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개 이삼일을 머물고서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명월사에 오는 신도들을 상담하는 일부터 해서 손수 식사를 준비하고 연하장을 비롯하여 연간 2500여장이나 되는 엽서를 직접 써서 보낸다고 하니 한치 흐트러짐 없는 스님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다.

“계율이니 신앙이니 해서 먹으면 안 된다, 피우면 안 된다, 잡으면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탐진치 삼독을 끊어야 한다



다. 이것이 그 단체의 지도자들의 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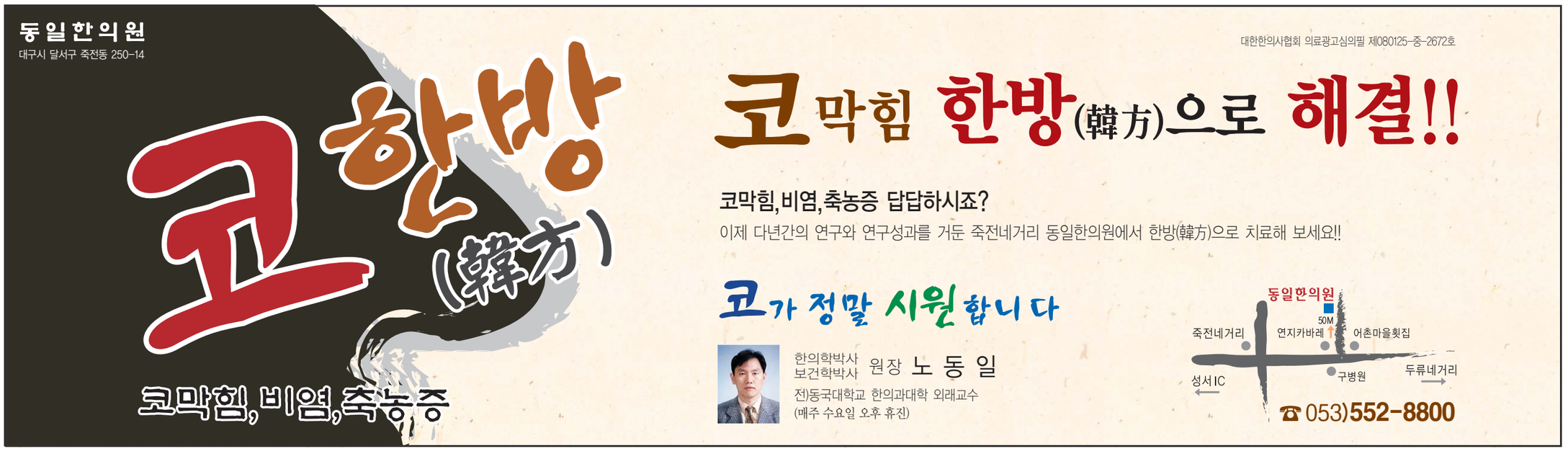
양로원, 불교회관을 지어야 한다는 법인 스님의 원이 남아 있기에 아직도 각원사의 불사는 끝나지 않았다. 법인 스님의 주위에는 어떤 독지가가 있어 수억 원의 시주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스님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정진하는 데서 또는 배우고 노력하는 가운데 얻어진 경력(經歷)으로 인해 이룩되는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법인 스님이 공부로 시작하여 공부로 끝났다면 그저 교학에 뜻을 둔 스님으로만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쉽게 이룰 수 없는 대작불사까지 이룩하였기에 그 원력과 노력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 천안시민들은 각원사를 두고 불국사 이후 최대의 사찰로 여길 만큼 자부심이 강하다.

스님은 난관에 부딪치면 “참는 행이 없으면 만 가지의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오직 자비와 인욕으로서만이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는 〈선가귀감〉의 한 구절을 새기면서 어려움을 견디어나간다고 하였다. 어찌 이것만이 스님을 지탱한 힘이 되었으랴.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분에 넘치는 기회가 오면 언제나 사양하고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기에 또 평생을 통해서 무슨 높은 지위나 물질로 다툰 적이 없기에’ 오늘날의 법인 스님을 존재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화향에 매화향을 더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인줄 알면서도, 고결(高潔)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법인 스님의 인품에 나도 칭송 한 마디를 보태고 말았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카이로프락틱 요법

직장인 김태환(43)씨는 점심시간이면 책상에 엎드려 잠자는 습관이 있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이 개운해 좋았지만 얼마 전부터 목과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 주부 최지은(41)씨는 쇼파에 비스듬히 앉아 TV 보는 버릇이 있다. 1~2시간 TV를 보고 나면 허리가 뻐근하다. 중학생 김재석(15)군은 엎드려 책 보기를 좋아한다. 몇시간씩 책을 보고 나면 항상 목과 허리가 불편하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지만 잘못된 자세로 현대인의 허리 건강에 적신호가 커졌다. 요즘 각광받는 카이로프락틱을 중심으로 허리건강에 대한 예방 진단 및 처방 등에 대해 알아봤다.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

☑ **윗몸 일으키기**
무릎을 굽히고 누워 목과 어깨만 가볍게 들어 올린다.

☑ **골반 들기**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무릎, 허리, 어깨선을 일치시킨다.

☑ **다리 올리기**
누워서 무릎을 굽혀 양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리거나 펴서 올린다.

☑ **누워서 허리 붙이기**
복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허리를 바닥에 힘껏 누른다.

☑ **벽 기대고 앉기**
등을 벽에 대고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낮게 앉는다.

"척추가 바로 서면 건강도 바로 서요"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의 강의 장면.

카이로프락틱의 유래

카이로프락틱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수기(手技) 요법으로 병을 고쳤다고 한다. 카이로프락틱이라는 용어는 '손'을 뜻하는 '카이로(chiro-)'와 치료를 뜻하는 '프락티스(practice)'라는 말의 합성어로 약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손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미다.

카이로프락틱은 1895년 미국인 데이비드 팔머(D.D. Palmer) 박사가 창시한 자연치료법으로 질병의 치료를 위한 투약이나 수술을 거부하고 발생한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다. 현재 미국에 19개 대학에서 4~6년 과정으로 카이로프락틱을 가르치며 세계 60여개국 이상에서 카이로프락틱이 시술된다. 한국에는 1970년대 도입됐다.

카이로프락틱의 특징

카이로프락틱은 대체의학으로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연적인 접근법에서 인체를 한 부분이 아닌 전체에 초점을 두고 예방과 유지에 역점을 둔다. 신체의 운동역학 및 기능적 장애에 대한 진단, 치료를 통해 인체조직의 기능적 장애, 생화학적 변화, 신경 생리학적 변화 및 통증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혜인 스님(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원장)은 "인간에게는 완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치유 잠재력'이 있다. 척추는 신경계통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척추를 다스려야 한다. 카이로프락틱은 인체의 불균형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 팔머의 이론"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33개 뼈마디로 이뤄진 척추 가운데 하나가 틀어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여러 증상과 질병을 일으킨다"면서 "뼈마디가 정상 위치에서 이탈한 상태를 카이로프락틱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교정해 치료한다. 카이로프락틱의 주요 적응증은 척추 측만증, 골반의 변위로 오는 증상, 만성 허리 및 목 디스크, 오십견 및 어깨 통증, 일자목, 좌골 신경통, 두통, 소화기 질환 등에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추나요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허리건강과 관련한 대체의학 중에는 카이로프락틱 외에 추나요법도 있다. 카이로프락틱은 인체의 비뚤어진 척추 등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어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추나의 경우도 유사하다. 추(推)는 '밀다'는 뜻이고 나(拿)는 '당긴다'는 뜻. 추나요법은 경락 · 혈 등 한의학적인 관점이 더해져 근육 · 뼈를 위한 한약치료와 침구요법도 함께 시행되지만 카이로프락틱은 물리치료에 한정된 것이 다르다.

카이로프락틱 교정은 얼마나?

혜인 스님은 "뼈가 틀어져 생긴 통증은 1~2차례 시술로 뼈주위의 굳어있던 근육과 눌린 신경을 풀어 통증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교정 전 X-ray 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후 판독해 교정하기 때문에 과학적이며 안전하다"면서 "대개 이틀에 한번 간격으로 시술하며 20여회 교정으로 대부분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로프락틱 교정시 주의점

혜인 스님은 "정확한 진단 없이 무조건 손을 이용해 척추교정을 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교정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한 디스크로 인한 신경마비증 환자, 골다공증 환자, 뼈가 부러진 환자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은 美 팔머 대학 교재로 2년 전문대 교육과정을 108시간에 집약교육 한다. (02) 853-6010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전문의 정확한 검진 필수

28. 불량한 치과 보철물

치과의사가 잘 치료해도 치료 후 치아가 주위 구강조직과 안정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섣불리 장담하기가 어렵다. 특히 상실되거나 손상된 치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대체물로 인공치아를 제작해 구강 내에 장착시키는 보철치료는 더욱 그렇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치과의학도 눈부신 발전을 계속 해왔다. 과거엔 치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치아도 여러 치료법과 기자재가 개발돼 치아수명이 연장되고 회복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철치료는 손상된 치아기능을 회복하는 치료과정 중 중요한 단계다. 특히 사전치료, 예를 들어 잇몸과 치아를 받쳐주는 골조직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잇몸치료가 꼭 선행돼야 한다.

또한 치아가 심어져 있는 턱뼈가 이루는 턱관절도 중요하다. 치아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예민한 턱관절에 영향을 끼쳐 입이 안벌어지거나 씹을 때 턱이 아프거나 소리가 나는 등 턱관절 질환이 발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치아에 발생한 충치, 치아의 파절, 마모 등에 대한 수복치료와 치아내부의 신경조직을 포함하는 치주조직에 대한 근관치료(신경치료) 등이 상호 조화롭게 연결돼야만 성공적인 보철치료가 가능해진다.

보철치료 후에도 치실, 치간 칫솔 등 보조용품을 이용해 구강위생관리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아청결을 유지하고 각종 기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치료의 성패와 치아수명 연장에 필수조건이다.

바쁘고 피곤한 생활 중에 우리는 자칫 눈에 직접 보이는 보철물에만 관심을 두기 쉽다. 겉으로 차이를 쉽게 식별할 수 없어 부정치과 의료업자(일명 돌팔이)에게 자기 치아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일반인들은 특히 친분관계 등에 의해 부정치과 의료업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많으나, 치과치료는 일반인의 생각처럼 수월한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치과를 찾아 전문의에게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02)776-2882

■ 안은영 원장(소중한이 치과)



1. 보철물 경계 및 모양 불량-양치질이 용이하지 않은 모양을 한 보형물에 치태(플라그) 축적 결과 이차충치로 인해 신경치료 시행
2. 좌측 앞니의 불량보철물(치료전)-이차충치와 잇몸염증, 부종 및 잇몸 퇴축
3. 좌측 앞니의 불량보철물(치료후)-잇몸 및 충치치료 후 보철치료 완료한 모습



이번호부터는 소중한이 치과 원장 안은영 박사가 치과 진료와 치아건강에 대해 연재한다.
〈약력〉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치의학 박사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 現 소중한이 치과 원장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봉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행
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돔 깔창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클릭해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깨고 잠들어 있음이 한결같은 경지

오늘의 禪語

⑲ 오매일여〈상〉

대혜 스님 "잠 잘 때도 화두 놓지 않아야 진정한 깨달음"
원오 선사 " '오매'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망상"

'오매일여(寤寐一如)'란 '깨어 있을 때나(寤) 잠들어 있을 때나(寐) 똑같다'는 뜻으로, '오매항일(寤寐恒一)' '오매상일(寤寐常一)' 또는 '몽교일여(夢覺一如)'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첫째 '오매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 즉 '오매에 대하여 분별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자나 깨나 지극정성으로 참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매일여에 대하여 근래 참선자들 사이에서는 원래의 뜻과 달리 해석하여 화두를 들고 있는 상태 즉 참구하고 있는 상태가 실제로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똑같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낮에는 물론이지만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생생하게 화두를 참구하는 일여(一如)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깨달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매일여가 되지 못하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매일여' '오매항일' '오매상일' 또는 '몽교일여'라는 말은 선어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매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 '오매에 대하여 분별심을 갖지 말라.' '분별하면 망상이다.' 또는 '일심으로 간절히 참구해야 한다'는 의미의 오매일여가 이와 같이 깨달음을 가늠하는 잣대로 등장한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오매일여에 대하여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근래는 성철 스님께서 지으신 <선문정로>와 <백일법문>의 영향이고, 멀리는 몽산 화상(1231~1308?)의 영향입니다. 몽산 화상은 간화선을 대성시킨 대혜 선사(1089~1163)의 <서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대혜 선사는 담당문준(湛堂文準, 1061~1115)과 현사사비(玄沙師備, 835~908), 그리고 <능엄경> 10권 상음 변마장에 나오는 '오매항일(寤寐恒一)'이라는 말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서 '오매일여' 즉 '오매항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능엄경>입니다.

그런데 용어는 다 똑같지만 사용하고 있는 뜻이나 용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몽산 화상은 <몽산법어> 총상인장에서 "화두를 들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을 때(낮)는 물론이고 잠을 잘 때에도 성성(惺惺, 생생하게)하게 되어야 한다(寤寐惺惺, 話頭現前)"고 하여, 실제 잠 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말아야 깨닫게 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몽산 화상의 해석에서 더 발전하여 오매일여가 되지 못했으면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산 화상 이전에 오매일여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던 스님은 간화선을 대성시킨 대혜 선사입니다. 대혜 선사는 당시(송대) 호조(戶曹)에서 시랑 벼슬을 맡고 있던 향시랑(向侍郞)에게 보낸 편지(<서장> 향시랑(向侍郞) 장)에서, 몽교일여 즉 오매일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나도 36세 때에 오매일여의 문제를 가지고 스승 원오 선사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내가 스승께, '낮에 즉 깨어 있을 때는 부처님 말씀대로 잘 준수했는데(모든 것은 다 환영으로 관찰함), 꿈속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꿈에 타인이 흉기를 가지고 저를 찌르려고 하거나 또는 악인들로부터 쫓기게 되면 공포에 떱니다. 꿈은 허망한 것인데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서 죽을 때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이와 같이 여쭈었더니, 원오 선사께서는 두 손을 내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런 망상은 그만 두게, 그런 망상은 그만 두게. 그대가 말하고 있는 허다한 망상이 모두 단절되면 그 때는 저절로 오매항일이 될 것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매일여에 대한 두 선승의 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선승의 대화를 요약해 본다면 대혜 스님은 스승 원오 선사에게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낮처럼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신(대혜)은 그렇지 못하니 이래가지고서 골이 되겠느냐"는 뜻이고, 원오 선사는 "오매일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부질없는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매일여나 오매항일을 추구하는 것, 또는 오매일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모두 망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질없이 망상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망상이 끝나면 오매일여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매일여가 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하면 깨닫게 되고 깨닫고 나면 오매일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혜 스님 역시 향시랑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내 법문을 연심(緣心, 번뇌심 · 분별심)으로 듣는다면 이법(가르침)도 연심(분별심)에 불과하다'라고 하였고, 또 '지극한 사람은 꿈이 없다(至人無夢)'는 말은 유무(有無)의 무(無)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의 분별심을 떠난 '무'입니다. 생시나 꿈이나 모두 번뇌 망상입니다. 그러므로 부질없이 꿈과 현실을 분별하지 마십시오." <계속>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통찰지 닦아 깨달음 증득

⑲ 담마딘나 장로니

법구경에 '설법제일 비구니'로 기록
몸과 마음을 觀하는 위빠나사 수행

<증일아함경>에 의하면 담마딘나(Dammadinna) 장로니는 부처님 당시에 설법이 제일 뛰어난 비구니였다. <법구경>과 <장로니게의 주석> 등에 기록된 '설법제일 비구니' 담마딘나의 구도기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의 귀족인 위사카(Visakha)는 국왕 빔비사라와 늘 불교의 진리에 대해 토론하고 좌선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위사카의 아내 담마딘나는 남편으로부터 가슴이 내려앉는 말을 들었다.

"나는 오늘부터 세속적인 일은 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과의 잠자리도 금할 것이오."

남편의 말을 듣고 난 아내는 매우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수행에만 매진하겠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저도 차라리 출가하겠어요."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남편은 오히려 반가웠다.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이오. 국왕과 의논하여 여승원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겠소."

그녀는 이렇게 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담마딘나는 비장한 각오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에서 수행에 전력을 다했다. 그녀는 낮은 경계를 터득한 후 좀 더 높은 경계를 얻기 위해 통찰지(panna, 慧, 반야)를 키워 나갔다. 타고난 그녀의 지혜로 오래지 않아 아라한의 지위에 올랐다.

어떤 번뇌와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경계를 얻은 그녀는 다시 도시로 나왔다. 이제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담마딘나가 도시로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前 남편 위사카가 찾아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심성의 일념개발과 일념을 더욱 증진시켜가기 위해서 마음이 일어나고(生) 사라지는(死) 현상에 밀착 집중시키도록 으뜸가는 노력을 통하여 계발해 나가야 합니다."

위사카는 담마딘나가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스님, 열반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도반님은 물어서는 안 될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열반은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존을 찾아뵙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러자 위사카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자신과 담마딘나 사이에 문답한 것을 모두 말씀드렸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답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사카여, 만일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면 나 역시 담마딘나와 똑같은 말을 하였을 것이다."

이때 부처님은 담마딘나를 이렇게 칭찬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빈손으로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경전에 따르면, 담마딘나 장로니는 통찰지를 체득하는 위빠사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바른 통찰지는 오직 주의 깊게 알아차림(sati) 또는 비추어봄(照見)으로써 얻어진다. <마하와경(Sutta Mahava)>의 주석서에 의하면 "몸(身)과 느낌(受)과 마음(心)과 마음의 대상(法)의 명상대상들 가운데서 어느 것도 관찰하지 않으면 성스러운 도를 관통하는 지혜, 통찰지의 개발은 없다"고 하였다. 대소승의 모든 수행방편 가운데 마음챙김이나 관(觀)이 없는 수행법은 불교수행이 아니다.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 정(定)과 혜(慧)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굴러야, 또렷또렷(惺惺)하고 고요고요(寂寂)한 붓다의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담마딘나 장로니가 위사카에게 말했듯이, 열반의 상태는 언어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오로지 직접 증득하는 수밖에 없다. 누구나 가진 '깨달음의 성품(覺性)'은 언어도단(言語道斷: 말길이 끊어지다)하고 심행처멸(心行處滅: 마음 갈 곳이 없다)한 것이라는 선종의 강조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대흥사 초의 스님 '선다일여'=**해남 대흥사가 초의 스님의 다도법을 배우며 자신을 내려놓는 '선다일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박5일간 진행되는 '선다일여'는 5월 28일~6월 1일, 18~22일, 7월 30일~8월 3일, 6~10일 마련된다. '선다일여'는 〈동다송〉 강의, 차잎따기, 차우리기, 제다 실습, 차명상, 들차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8월 12~17일에는 5박6일간 초등학생을 위한 다도아카데미 수련회도 개최된다. (061)534-5501

●**능인선원 신묘장구대다라니108독 철야정진=**서울 능인선원이 5월 31일 밤 10시부터 대법당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을 봉행한다. 회향은 일요일 새벽 2시 30분. 동참비는 1만원이다. 능인선원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을 계속해 오고 있다. 12월까지 진행할 예정. (02)577-5800

●**자광사 탄허 스님 열반재=**대전 자광사가 5월 28일 탄허 대종사 열반재를 봉행한다. 근대 최고의 대강백 탄허 대종사 열반재는 오전 10시 조사전에서 열린다. (042)822-9220

●**흥국사 금강거사림회 성지순례=**고양 흥국사 금강거사림회가 5월 25일 성지순례를 떠난다. 서산 부석사, 간월암, 천장사, 개심사 등을 돌아볼 이번 성지순례는 고봉 선사, 만공 선사의 발자취를 따라 선사들의 수행사찰을 탐방할 예정이다. 동참금은 3만원. (02)381-7970

●**법왕사 삼천불전 점안법회=**대구 법왕사가 1만불, 10만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인 1원불 모시기' 불사와 함께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삼천불전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5월에는 31일 오전 10시 삼천불전에서 정무 스님을 증명법사로 점안법회를 개최한다. (053)766-3747

●**봉선사 영산재=**남양주 봉선사가 6월 8일 단오를 맞아 영산재를 봉행한다. 조계종에서 어장으로 지정된 동주 원명 스님 주재 하에 조계종이수자, 전수자들이 모여 여법하고 장엄하게 모실 예정이다. 영산재는 오전 9시~오후 5시 봉행되며 동참금은 3만원이다. (031) 527-195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필름

어머니 죽음과 아버지 냉대 속 '애달픈 삶'


의릉의 참도.

의릉(懿陵)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20대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宣懿王后 魚氏 1705~1730)의 능이다. 사적 204호. 경종은 숙종의 제1자로 희빈 장씨의 소생이다. 숙종의 승하 후 경희궁에서 즉위하였으나 병약하여 재위 4년 만에 승하했다. 선의왕후는 함원부원군 어유구의 딸로 15세 때 세자빈이 되었다가 경종의 즉위와 더불어 왕비로 진봉되었는데, 26세로 소생 없이 승하했다. 일반적으로 쌍릉은 좌우로 조성하나 이 능은 앞뒤로 능역을 조성했다. 왕릉과 왕비릉이 각각 단릉의 상설을 모두 갖추고, 뒤에 있는 왕릉에만 곡장(굽은 담장)을 둘러 쌍릉임을 나타낸 배치이다. 이러한 동원상하봉 능설제도는 영릉(寧陵 : 효종과 인선왕후 장씨의 능)에서 처음 나타난 형식으로서 풍수지리적으로 생기왕성한 정혈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하여 앞뒤로 배치한 것이다. 석물은 병풍석이 없고 난간석 · 혼유석 · 장명등 · 망주석 · 문무인석과 말 · 양 · 호랑이가 있다. 능의 석물의 배치와 양식은 명릉(明陵:숙종과 제1계비 인현왕후, 제2계비 인원왕후의 능)과 같이 규모가 작고 간소하다. 이는 <속오례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능역은 37만8371㎡(11만4658평)이다.


의릉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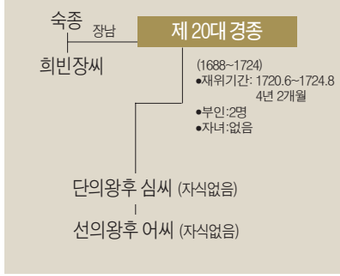
생모 장희빈 죽음현장 목격한 충격 탓에 심신 병약
용상 오른지 4년만에 소생 없이 외로운 죽음 맞아



20대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 – 의릉

경종(1688~1724) 37세
재위 1720.6(33세)~1724.8(37세) 4년2개월

제20대 경종 가계도



부모 복 없기로 따지면 조선 27대 역대 왕 중 20대 경종이 으뜸이 아닐까. 단종은 비록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했으나 조부 세종, 아버지 문종의 사랑은 극진했다. 연산군은 불멸의 폭군으로 역사에 새겨졌으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지극했다. 그것이 온당치 않게 발휘되어 폭군이 되었다. 경종은 열네 살 때, 아버지(숙종)에 의해 생모(장희빈)가 죽는 비극을 목격했다. 장씨는 사약을 받게 되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보고 싶다고 숙종에게 애원했다. 왕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한때 애틋한 정분을 나눈 사이인지라 인정에 이끌려 청을 들어주었다. 열네 살 세자를 사약을 받아 죽는 생모의 죽음 현장에 데려왔다. 이때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장씨는 아들을 보자 광기어린 눈빛으로 아들에게 달려들어 아들의 낭심을 움켜쥐고 거칠게 잡아당겼다. 세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생모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세자의 충격은 엄청났다. 아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할 아버지 숙종은 오히려 아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매사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어긋나거나 실수를 하면, 누가 낳은 새끼인데 그렇지 않겠느냐며 성난 목소리로 엄하게 꾸짖었다.

생모의 죽음과 아버지의 냉대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다. 정신 이상 증세에다 육체는 시름시름 앓았다. 생식 능력을 상실한 채 왕위에 올라 시름시름 앓으면서 힘겹게 용상을 부여잡고 있다가 4년 만에 세상을 떴다. 치적을 남길 틈도, 기력도 없는 4년이었다. 충신은 없고 노론, 소론의 피 터지는 권력다툼의 틈바구니에서 간신히 숨을 쉬다가 숨을 거뒀다. 그의 나이 37세였다.

숙종에게 희빈 장씨는 극악한 여인으로 입력되어 마침표가 찍혀 있다. 영리하고 애교 많던 곱고 젊은 여인의 추억은 삭제되고 권력을 탐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악녀로 규정했다. 후회하길 잘 하는 숙종이지만 장씨를 사사한 것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회한이 없다. 숙종은 세 명의 중전에게 아들 하나 얻지 못하고 장씨에게서 아들을 얻어 서둘러 원자로 정하고 세 살이 되자 세자로 책봉했지만 이제 입맛이 떨어졌다. 악독한 여인의 피가 흐르는 놈, 열네 살 때부터 서른이 넘을 때까지 골골하며 병을 달고 사는 세자에게 믿음이 없어졌다. 대통을 잇게 하기에는 함량미달이란 생각뿐이었다. 성년이 한참 지났건만, 부인을 두 명 두었으나 자손을 생산할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다. 어미와 아들을 동일시하는 착시현상마저 발동된다. 사랑이 식으면 사람이 나무토막보다 못하다.

숙종은 소론을 배척하고 노론을 중용한 후, 1717년 세자가 병약하고 자식마저 낳지 못하니 노론의 영수 좌의정 이이명에게 숙빈 최씨의 소생인 연잉군(영조)을 후사로 삼을 분위기를 잡으라고 은밀히 분부한다(정유독대). 명을 받은 좌의정은 조정의 분위기를 잡아나간다. 그해에 연잉군으로 하여금 세자를 대신하여 세자 대리청정(세자를 대신하여 편전에 참석하여 정사를 배우는 것)을 명했다.

연잉군의 대리청정이 결정되자 소론 측은 반발했다. 이때부터 세자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 간 당쟁이 격화된다. 이 논란은 숙종이 승하하자 일단 끝난다. 왕위를 이은 세자는 여전히 병약하고 무기력했다. 경종은 즉위 후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 자식도 없다. 노론 측은 종묘사직을 위해 세자를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아들도 없는데. 소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위 원년 8월(1721)에 연잉군을 세제에 책봉했다. 이어서 주장하기를 왕이 정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니 연잉군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해야 한다고. 이는 물러나라는 말과 다름없다. 노론과 소론의 밥그릇 싸움에 힘없고 병든 경종만 하이에나에 뜯기는 사슴의 시신 꼴이었다. 유아기에 잠시 사랑을 받은 후 철이 들면서는 밝은 웃음 한 번 웃지 못한 경종. 1724년 8월, 재위 4년 2개월 만에 무거운 용포를 벗고 세상을 떴다. 37세라는 나이도 허무할 뿐이다.

그의 생애만큼이나 그의 무덤도 애달프다. 경종이 묻힌 의릉은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했다. 재위 시절 힘없는 왕이라 죽은 육신마저 남에게 의탁했다. 33년 동안 의릉 능역과 그 주변은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청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기관이 왕릉 일대를 접수해 무단 사용했다는 비난이 있다. 세월이 지났고 업무가 변했으니 달리 생각해본다.

다병무자(多病無子)했던 경종을 온전히 지켜줄 방패가 중앙정보부보다 더 확실한 데가 어디 있으랴. 국가 최고 정보기관, 보안과 경비가 철통같은 기관이 경종을 지켜주었다는 역설을 펼쳐본다. 담장 밖으로 그의 통곡이 새어나가지 않게 보안, 방음도 확실히 했을 것이다. 유적의 보존에 대한 인식이 허약해 정보부는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권력자들이 뱃놀이를 했다는 소문도 있다. 지금은 완전히 복원되어 참도와 잔디밭이 가지런하다. 능의 왼편에 2층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 고풍스러움과는 거리가 먼데 안내판이 서있다. '이 건물은 구 중앙정보부에서 사용하던 강당과 회의실이었는데 1972년 7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7 · 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는 설명이 적혀있다. 건물 내부에는 관련 사진 몇 점이 전시되어 있다.

"어머니, 왜 절 낳으셨나요?"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변함 없음이 필요하다. 자식은 도구가 아니다. 경종은 이제 갑옷 같은 안기부의 보호로부터 벗어났다. 계비와 아래위로 나란히 누운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

어머니의 은혜는 열 가지다. 첫째, 잉태하여 열 달 동안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보호해준 은혜. 둘째, 해산할 때 괴로움을 겪는 은혜. 셋째,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는 은혜. 넷째, 쓴 음식은 당신이 삼키고 단 것을 먹여준 은혜. 다섯째, 마른자리 골라 눕히고 당신은 젖은 자리에 눕는 은혜. 여섯째, 때맞추어 젖을 먹여 길러 준 은혜. 일곱째, 똥오줌 가려 더러운 것을 빨아준 은혜. 여덟째, 자식이 먼 길 떠나면 염려하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쁜 일도 마다 않은 은혜. 열째,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

–〈부모은중경〉 중에서–

죽음은 법문이자 화해와 용서다. 죽음은 후세에 대한 교훈이다. 원한을 대물림하는 죽음은 좋은 죽음이 아니다. 희빈 장씨도, 경종도 죽었다. 원한이 세월 속에 소멸되었길 기원한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러나 역사를 가정해보는 것은 후손의 자유다. 경종이 건강한 몸으로 왕위에 있었다면? 어머니를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을 그냥 두었을까. 제2의 연산군이 되고도 남지 않을까.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사주 · 역학 · 비법전수
순한글과 숫자로만 30일을 공부하여 복없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참제자를 구합니다.
한문을 전혀 몰라도 사주를 통달함
(스님,법사,일반인 출장지도)
010-5668-5775
보현불교 역학대학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계룡산 손바닥 토종 선인장
영하 20~30도 노지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성인병 예방에 신이 주신선물
(분양안내)
019-9765-8052
공주시 계룡면 관음기도도량 원각사
•효능: 잇몸 염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심한 가려움증, 아토피염, 쑥쓰림, 위염, 심한 변비등 탁월한 효과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이 혼 녀 보 호 소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복잡한 이혼문제 도와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 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 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입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 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42)255-1186
010-6730-1186

氣 치 료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각종 질병
(대체의학 비법전수)
중국교포 출장 방문
010-9137-1667

신비의 일침요법 및 기치유 전수자모집!
일선의 포교에 힘드신 스님과 포교사님들께 23년간의 임상 노하우를 전수 합니다.
1개월이면 누구나 즉시 현장에서 통증을 없애는 신비를 발휘합니다.
속성비결 책임완성까지! *현장에서 체험하십시요*
▷개강일 : 2008년 5월 24일 토요일
스님 및 포교사 특혜
041)575-0633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39-1
대한불교조계종 인덕사 주지 일관 합장

통도 바라춤,나비춤교육생 모집
(법고무,사찰학춤,살풀이, 극락무,한국무용일체)
*절의 모든 행사를 여법하게 모셔드립니다.
위치: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75-12번지
(두실전철역3번출구 다비치안경 4층)
"혜연 불교무용학원"
원장:최 혜연심(전 부산시립무용단 출신)
011-9233-6302

(역학)수강생모집
명리 · 궁합 · 택일 · 작명 · 육효 · 자미두수 그 외 기초반, 중급반, 연구반 1 대 1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
역학연구 30년 유명교수
강의 속성완수
032)508-0381
019-9007-9746
인천 불광사

몸이 아프십니까? 목 어깨 척추 짝다리 등등
고질통증(허약,의욕,기력 상실자)기공활법교정
*빙의 천도재,구병시식,신병,효력못본분
*무료결혼식 올려드려요.(晩婚)
인생사 www.mukuk.net 치세요
성왕사 무극합장 10~12시전후 상담
TEL 02)835-2955
FAX 02)835-2181
010-3817-3387
온라인 농협 712-12-003387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고 기도할수있는 장소.(한강이남서울부근, 부산부근, 빈가옥, 산기타) 보시나 무임으로 약 3년정도 빌려주실 불자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선망 조상님,천도재,49재도 형편이 여의치 못하신분들께서도 연락주시면 무임으로 성실히 모시겠습니다
010-4475-3552
02)934-3352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무진장 합장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 공부 · 요양 할분 모십니다
1인 1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016-9506-5706

주 지 초 빙
부산시내 포교당 운영스님에 한함
010-3582-6295

사찰매입원함
양평군 · 홍천군내 법당과 요사채가 어느정도 갖춰진 산속사찰 또는 암자원함
010-9346-1207

서울근교 대작불사중
불연이 깊은 사무장(女), 총무(女) 화주보살 모십니다
010-4540-334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팔공산)
010-3189-874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영덕)
054)733-8786
017-519-5388

조계종 사찰에서 행자구합니다
출가 수행의 뜻이 있는 남자
▷자격:17세~45세, 고졸
1인1실 개인지도함
054)452-0845
054)452-6065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50대 중반 비구승입니다 부전자리 원합니다
010-7134-0043

100일기도 가능한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42)271-6249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지역 : 경주
017-206-0113

비구니 기도스님 원하는 사찰 연락기다립니다
010-4518-4928

청정한 나반 도량에서 수행과 공부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052)243-3881

공양주보살님, 부전스님, 노스님 모십니다
010-8819-898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는 상담후 결정
(50-65세)
010-3188-5103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1-9350-3216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임휴사)
053)632-4844
053)641-48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대광사
▷ 월보시 130만원
(40-50대)
011-761-845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016-9697-2222

참신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5세-60세)
054)748-3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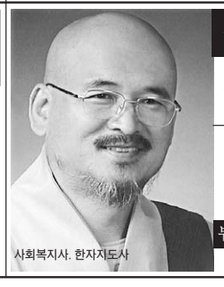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산사)
054)772-413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이상)
▷경북포항
054)284-6601
011-820-3046

기도스님(비구,비구니)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1)721-0449
011-579-6444

비구니스님
토굴 삼아 계실분
▷위치:김해 대동면 소재
법당 15평(주지스님 외출)
016-562-6677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대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화요일 18: 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古典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치만 太極四柱는 四柱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필자도 2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할것인가 실패할것인가,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나쁘냐,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관재구설수와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승진운은 있느냐 없느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20기생 강의중, 수강희망자 상담환영)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레이키(Reiki · 靈氣)가 왜 화제인가?
레이키(Reiki · 靈氣)는 배우기만하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보급이 되어있고 전세계의 수천만명이 체험을 하고 있는 우주생명에너지(氣) 활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 많은 성직자와 일반인들이 배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 일요일) 교육비 55만원
동서양식 레이키는 세계의 여러갈래의 레이키를 융합한 것입니다.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은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에는 소리파동요법, 약식제령법이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20여년간 번역가,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일본 등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와 지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인 터 넷 : www.Reiki.co.kr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주 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팩 스 : 02)720-5720
핸드폰 : 010-8392-2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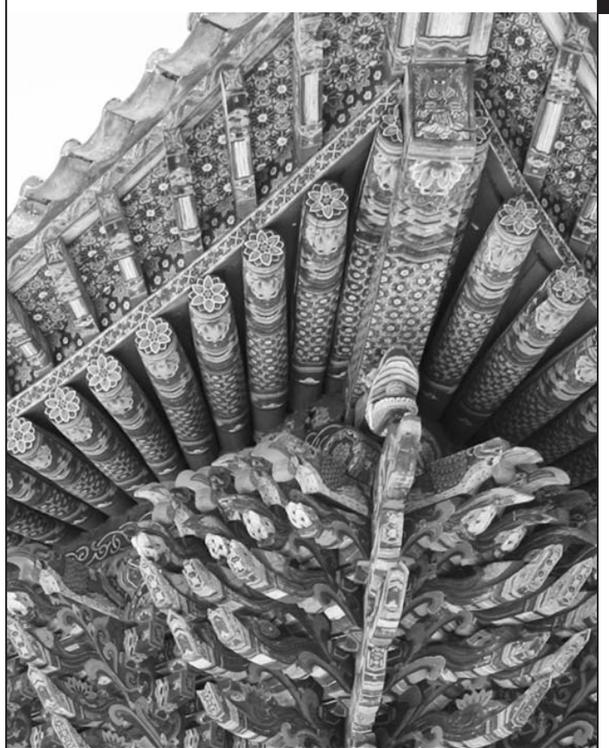
하루가 시급한 산소(묘)처방
산소(묘)는 세월이 오래 경과할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산소(묘)에 벌레나 들쥐, 두더지, 뱀, 여우 등 들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있으며, 해마다 성묘나 벌초할 때 땅벌에 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묘를 파보면 물이 고여 있거나, 들짐승들로 인해 더러운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여름장마에 산소가 파이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산소는 하루속히 긴급 처방하여 아무런 탈이 없도록 시급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시행처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326-2호 영가천도기도도량 봉선사
◆연락사무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4동 310-7 정법선원 주지 무상 합장
TEL 02)470-7329 / H.P 016-261-2068
국민은행 071402-04-032566 조춘교

※ 4기통이상 차량소지자 구합니다. (불심있는 분)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진주 사천
● 총평수 : 8,000평(100% 사용가능)
● 종교용지 및 버스주차장
● 법당 30평, 산신각 20평, 관음전20평, 대중방 15평, 요사채 70평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24억원 반값매각(개인사정 급)

임법당
● 위치 : 부산 범일동
● 대지평수 120평(시유지)
● 건물 :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화장실(초현대식)
● 마당 5층 석탑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화성
● 법당 및 요사 : 60평 (임법당 사용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임)
● 부지 : 230평
● 가액 5억

● 위치 : 충북 옥천
● 법당 : 13평
● 요사 : 40평
● 부지 : 38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서울
● 법당 : 2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3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소재
● 부지 : 7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목조,단청)
● 요사 : 2동 50평
● 기타 : 석탑, 석등
● 가액 : 2억 9천만원(융자 2억가능)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 법당 : 20평 (방 3개)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포교당임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대구 010-5820-0455/서울 010-5828-0455

사찰(급)안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061)544-048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전통사찰
● 대지 : 720평, 법당50평, 30평 요사채30평, 종무소 20평
● 가액 : 13억원

대구시내, 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절터 별장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근교
● 관리지역 약 500여평
● 가액 : 4천5백만원
010-4707-8090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5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약 110평
● 법당 : 약 55평(삼존불,삼성단등)
● 요사 : 약 55평 (방3개,상담실,거실등)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경인 국도변)
● 평수 : 70평
● 방3, 법당, 공양간 도시가스, 샤워실, 시설완비
● 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010-7112-18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지하철 5분거리)
● 법당 시설 완비 차 진입가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1)294-1204
010-9998-2926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 전세(120평)
● 진신사리 봉안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지하철역 부근
● 50평(6층 건물중 6층)
● 특징 : 교통편리, 전망좋음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1-588-2208

토굴터 안내

● 위치 : 상주시 화남면 속리산 아래
● 약 170평. 계곡접
● 목조, 흙벽돌 건물 건축중인 토굴
● 가액 : 4,000만원
011-701-0232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청 앞
● 평수 : 4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6269-66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시장삼거리
● 50평(2층 건물중 2층)
● 최요지. 법당, 방2, 주방1
● 급하게 쓸 역학도 가르쳐 드림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591-52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 법당 20평(2층)
● 삼존불, 시설완비
● 일신상 법당 운영이 불가능하여 급히 양도하고자 함
● 보증금 2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는 차후 상의
016-451-7646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영등포역 5분 거리 (영등포로터리 번화가 위치)
● 법당, 주방 등 살림가능 5층 건물중 4, 5층 사용(38평)
● 삼존불, 산신전, 지장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2백만원
● 유동인구가 많아 역학스님, 보살님 최적
010-4474-4446

서울 도심 포교원

총가액 2천만원으로 도심 속 포교원을...
● 위치 : 동대문구 이문동 2층 건물 중 2층
● 법당 : 25평 외 5평
● 보증금 5백만원 / 월 30만 시설비 1500만원
010-7669-8600

사찰 터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
● 건물 1동 30평
● 종교용지 300평
● 250m 지하석수, 전기 청정계곡 영골
● 가액 : 7천 5백만원
011-494-0977

토굴(급)안내

● 위치 : 대전
● 법당 삼존불, 방2, 주방 거실1, 창고2
● 약 35평, 건물등기
● 가액 : 3,500만원
010-9518-3177

사 찰 안 내

● 전철 1호선 동두천 중앙역 앞
● 평수 30평(여유면적 약2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 3개월 되었음
● 사정상 급 안내함 시설비 약간
010-5019-8356
010-3902-3294

포교당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 체육관 앞
● 포교원 : 45평,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없음
● 시설 A급, 즉시법회가능
● 법사님, 보살님도 가능함
011-9762-228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낙성대 전철역 5분 거리
● 평수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 주지스님 해외포교사정 급 안내함
010-7208-9500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북 영천시 금오읍 팔공산 갓바위에서 10분거리
● 106평, 임법당 17평 요사채 겸 공양간 약 50평
● 삼존불(청동), 후불탱화
● 법당시설완비
● 가액 : 8300만원
016-503-301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 대지 605평, 건평 130평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요사채 30평(슬라브건물) 창고 및 화장실 18평, 주택 12평
● 가액 : 2억8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
● 법당, 요사,산신각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 (전세 및 매출가능)
011-9393-496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청량리
● 5층 건물중 5층
● 법당 30평, 마당 30평
● 천불전 불사완료됨
●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시설비 6천만원
010-8677-168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 부근
● 1층 요사채 47평 2층 법당 23평, 산신당 4평, 차고 15평
● 대지 : 220평
● 외부화장실, 보일러실, 심야전기
● 가액 : 6억5천만원
011-9114-99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평수 : 7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적합
● 가액 : 2억원
011-9920-12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마을주민이 모두 신도인 아담한 절)
● 임법당1, 황토방2, 방2 외 입식부엌, 목욕탕2
● 대지 108평, 건평 40평
● 가액 : 4,200만원
054)655-9390
010-9290-6505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송
● 대지 : 1223㎡
● 요사 : 37평, 법당 : 1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0-8861-9856

수행과 포교하기 좋은곳 양도

● 위치 : 대전시
● 2층 건물에 2층 50평
● 주차와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공원과 산이 있어 포행하기 좋음
●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
● 관심있는분은 직접방문 후 결정하길 바랍니다
010-9315-919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종로구
● 법당 : 123평
● 건평 150평 중 3층 60평 법당 2층 60평 요사채 1층 30평 주차장
● 가액 : 20억. 사찰 맞교환가능
011-9732-4746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신림 13동 유림시장 옆 상가 4층 건물 중 2층
● 법당 35평 부처님 모셔져 있고,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4932-3618

암자토굴 안내

● 위치: 합천 해인사 안 계곡(가야산)
● 크기 : 450평, 앞쪽 계곡, 뒤는 산
● 임법당, 요사채 45평, 방7개 옛집 12평, 창고 20평 전답 800평 사용
● 심야보일러, 법당, 주방 일체완비
● 특징 : 해인사 계곡, 해발 900고지 최신 황토방, 요사채
● 가액 : 9천 8백만원(대출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
010-5828-0455
010-5820-0455

암 자 안 내

● 위치: 울산 북구 마을 마을속 아담한 한옥법당
● 대지 : 270평
● 법당 20평, 요사채, 작은채2 주불, 아미타, 관세음,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신중단, 영가단 산신당 별도건물
● 사찰 살림시설 일체완비 법당 권리양도 2500만원
● 전세 300만원, 월20만원 스님사정상 급 안내
052)282-4969
010-7216-7260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사찰암자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3억(융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사찰전세 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
● 요사채 50평
● 산세좋고 경관수려,대산임수가 용이하고 산신각과 용궁이 유명함
● 전세 5,000만원
011-9348-2652

암자 터 및 주택지 안내

● 위치: 경남 지리산 기슭
● 계곡, 도로, 전기 접하고 있는 아담하고 청정한 두매산골
● 다용도 가능한 전 1750평(관리지역)
● 가액 : 1억 3천만원
011-570-1317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반야계곡
● 평수 : 3200평 ● 대지 : 20평
● 가액 : 6천만원
016-9707-3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장유 신도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평수 : 61평, 5층 건물 중 4층
● 법당, 시설완벽(방 4개)
● 역학, 포교스님 최고 위치
● 보증금 3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건물 지하 주차장 있음
011-212-61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 (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령(신촌유원지 옆)
● 대지 2000평, 대웅전 단청 40평
● 요사채, 큰방4, 현대식 주방2, 목욕탕, 실내화장실, 요사채 1층 원룸 15개, 2층 원룸 15개, 다락 : 큰방 2개. 현대식 신축
● 2007년 5월 올수리 14억원
● 가액 : 4억(융자 2억있음) ● 주인직접 급 양도
011-869-8608
011-872-707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9725-3196

불자정보 계속

“삶의 진정한 가치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도법 스님이 상임대표를 맡아 이끌어 온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스님이 1998년 실상사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생태계 파괴 현상을 현대문명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대안문명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벌써 강산이 한 번 변한 세월이 흘렀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 사회의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불교관으로 자연과 지역, 농촌,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바로 인드라망이다. 그동안 인드라망은 불교귀농운동을 시작으로 지리산 마을공동체운동인 (사)한생명, 중고교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불교계 생활협동조합운동인 불교생협연합체, 회원과 서울시민을 위한 인드라망생협, 명상 중심의 수련원 귀정사, 귀농학교 교육장인 인드라망교육센터, 내년에 개교 예정인 4년제 인드라망마을대학 등 다양한 갈래로 발전을 거듭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개미군단(회원)’은 1000여명, 활동가는 무려 60여명에 이른다.

5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창립 10년맞이 기념법회를 가진 도법 스님을 법회 전에 만났다.

데스크초대석 창립 10주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스님

-지난 10년간 인드라망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교계의 생명·평화운동을 이끌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온 것 같습니다. 창립 10돌을 맞은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처음, 범불교계가 함께 하는 대안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모두 만나기도 했지만, 98년 조계종단 분규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향도 많았지요, 때문에 활동가들이 피 · 눈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개미군단이 자생적, 자립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조직의 건강성과 자생력을 갖게 되어 오히려 안도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망 운동은 끝없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생명평화, 민족화해, 평화통일’을 주제로 지리산 천도재와 1000일 기도를 회향했고, 뒤이어 5년동안의 탁발순례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종교인들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한 100일 순례를 진행중인데, 이렇게 직접 우리 산하(山河)를 걸으며 지역민과 대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죠. 지금 여기, 내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 한 자유, 평화 등 모든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여기 있는 내 생명’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이죠. 순례는 누구나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인 생명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합니다. 그동안 2만 5000여 리를 걸었고 7만 여명의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의 풍광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진실함과 성실함, 진정성, 포용성 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과 사람은 가슴을 울립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부자주의’ ‘1등주의’ 대신 ‘생명 · 평화’를 참 가치로 생각하며 삶을 가꾸는 사람들을 만난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에게서 끝없이 배우기 위해 죽을 때까지 걸어야지요.”

-대운하 반대를 위한 100일 순례가 5월 24일 회향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의 100일 순례는 수경 스님과 양재성 목사님 등 여러 종교인들이 준비했고, 저는 힘을 보탠 것뿐입니다. 대운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 여론을 환기한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었고, 그 가운데서 종교인들의 순례가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4일 100일 순례가 끝나면 저는 5년동안 해온 탁발순례의 마지막 여정으로 경기, 인천, 서울지역을 순례하며 대운하 문제에 대해 계속 토론할 것입니다. 대운하 문제는 중국의 지진여파로 인한 댐 붕괴 우려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자연재앙은 인간의 무지·탐욕이 낳은 결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 추구해야”

-최근 미얀마 사이클론이나 중국의 대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자연이 준 응보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광우병이나 AI 전염병 역시 자연을 역행한 인간이 받는 과보가 아닌가 합니다. 최근 자연의 대재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을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징벌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연의 징벌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 지은 것을 내가 받을 뿐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의 원인은 인생과 자연을 보는 가치관, 세계관이 잘못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빚어낸 결과이죠, 결국 모든 자연 재앙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늦었지만 그러한 과오를 참회하고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고 생명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 발걸음이나마 옮기는 일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결국 환경운동과 사회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자연과 사람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자기 혁신을 통한 동체대비의 실현이란 대승불교의 지향점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 대신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한 자생적 대안운동을 주장해 왔습니다. 불교가 이 사회에서 불교답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자기모순에 직면한 현대문명사회에서 어떤 불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더 자연을 생각하고, 더 이웃을 생각하고, 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쪽이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결국 사람이 변해야지요.”

-이명박 정부는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진 강대국들이 21세기에 주목한 것은 ‘지속가능 발전사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과 공존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선진국은 그만큼 자연과 생태의 가치에 눈을 떴다는 이야기죠. 한반도 대운하 처럼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는 개발과 성장은 시대에 역행할 뿐더러, 파멸과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언젠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를 만든 스웨덴의 한 시장에게 기자가 비결을 묻는데, ‘민주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사회 양극화와 생태계 파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단기적인 이익 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해야지요.”

-스님은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의 성장 · 발전 대안으로 바다와 숲, 산의 자원화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건설의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워낙 강조하기에, 자연을 살리면서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과 숲이고 3면이 바다입니다. 이 풍부한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에서 경제가치를 창출한다면, 고급인력의 일자리가 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들과 함께 더욱 고민해 봐야겠지요.”

-앞으로의 계획과 불자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해주시죠.

“내일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따로 없고요, 늘 오늘을 살려고 할뿐입니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죽을 때까지 저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누구나 세세생생(世世生生) 이뤄야 할 생명, 평화의 길이니까요. 불자님들도 불교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세계관으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으면 합니다.”

글=김성우 취재부장, 사진=박재완 기자

불자정보 680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포항역 앞
- 평수 : 50평
- 법당 : 방3, 공양간, 종무소
- 집구조 : 아파트식 구조 해우소 2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258-1147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10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법당 슬라브 기와 20평
- 요사채 슬라브 20평 산신각 6평, 황토방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3천 (상담 후 절충가능)

010-2920-6464

대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 국도변
- 대지 2000평, 사과원 700평 임야 12000평, 미륵불발견 대웅전 70평, 요사채 90평
- 가액 9억

- 위치 : 경북 북부 읍소재지
- 대지 130평(대로변 중심가) 대웅전 42평, 상가건물 30평
- 가액 4억 ●스님건강상 급 안내

011-538-2211

절터 · 별장 · 팬션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
- 자연녹지 450평(田)
- 야산 아래 남향 4차선도로 인접
- 가액 : 2억원(급 안내)

011-531-5562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사상구 학장동
- 4층 건물중 4층
- 평수 : 45평, 시설 A급 주차장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800 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200만원

051)313-5589
010-6416-5589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서구 중리동
- 건물 40평(요사채, 법당) 편리한 1층으로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는 사정상 절충 (이사비용 정도)

011-807-0040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 포교원 3층 건물 50평
- 보증금 1000만원,월 5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모든 시설 갖추어져 있음 즉시 법회 가능

016-339-1628
032)504-3467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시 강동면 국당1리 142 황룡사
- 대지 406평
- 산신각, 대웅전, 요사채
- 심야보일러, 에어컨 완벽하게 설치
- 가액 : 3억 2천만원

054)762-7389
011-542-0982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역촌동
- 평수 25평
- 3층 건물중 2층
- 대로변, 6호선 역촌역 3분거리
- 법당 시설완비

010-3875-0135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 대지 500평, 건평 120평 임법당, 삼존불 마을근접, 풍수좋음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0-8545-6548

국내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신개념의 온라인 종무행정 ‘수비라’

전산화에서 정보화로! 종무행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수비라’ 도입 효과
- 체계적인 신도 관리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인한 신뢰성 증대
- 접수/신도/마감/통계/연말정산 등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행정업무처리
- 행정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열람의 편이성
- 선진화된 다양한 전자 결재시스템
- 홈페이지와 연계를 통한 예약 서비스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자동예약 문자발송(생일, 제사, 축원, 신도, 단체 등)을 통한 맞춤형 신도관리서비스

사찰과 신도간의 신뢰감 확 보 / 행정업무 Process의 체계화 / 행정업무의 효율성

수비라 종무행정 도입에 따른 종무행정관리 업무는 향후 1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사찰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사찰의 운영현황, 신도 현황, 접수 내역 현황 등의 통계자료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사찰운영과 포교의 활성화 및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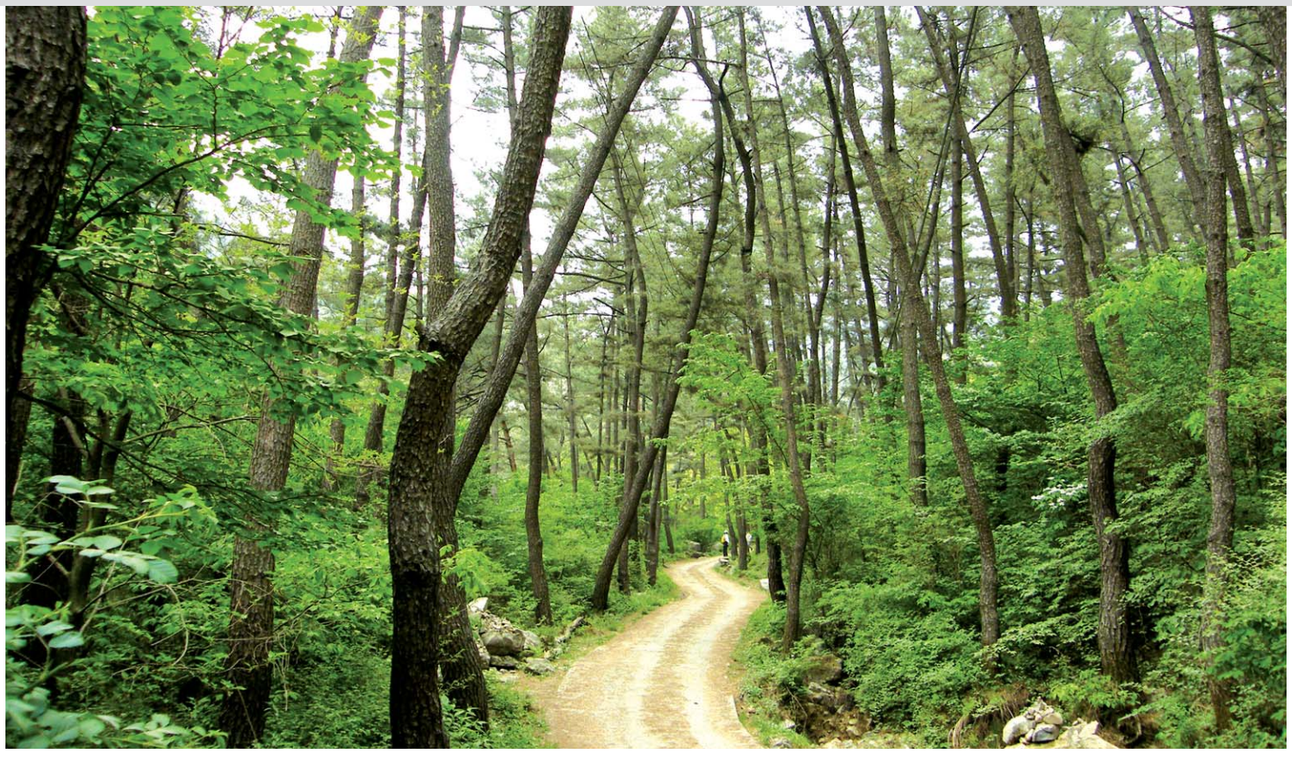
신도간 쌍방향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사찰 홈페이지 구축

사찰의 환경에 맞는 쉽고 편리한 기능 제공
- 지대방 기능
- 카페, 블로그 솔루션 무상지원
- 내마음의 법당(인터넷 보시기능) 무상제공
- 보안 인증 기술
- One-Stop 관리자 환경 등

㈜탑스컴 TOPSCOM www.Topscom.net
TEL 031)965-6629 / FAX 031)965-6627
경기 고양시 화정동 967-1 한솔빌딩 1007호
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 송광사, 봉선사, 부석사, 봉인사 등 전국사찰 50여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제공중

사찰생태연구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8) 경주 남산 보리사



솔바람 부니 봄나비 '팔랑~'

탐방객 많아 생태훼손 심각
대형 포유류 등 점차 사라져
남산 '휴식년제' 도입 필요

후발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저력은 불국토신앙이 나라와 백성들을 한데 묶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자장 율사가 주창한 불국토신앙은, 경주 남산은 과거 수미산이었고, 강원도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지였으며, 금강산은 법기보살의 도량이었다는 등의 영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불국토신앙은 의상 대사에 이르러 화엄십찰론으로 전개되면서 호국불교사상으로 승화되었다.

처처소소에 불탑이 산재하여 2000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산 전체를 하나의 사찰로 인식하면서 생태적 시각으로 돌아보았다. 남산은 금오산(471m)과 고위산(495m)에서 뻗은 산줄기와 40여 개의 계곡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다. 이번 생태모니터링은 서남산 용장골에서 동남산 봉구골까지 남산자락을 살펴보았다.

용장골은 남산에서 가장 긴 계곡으로, 중간쯤에서 관음사와 천우사로 가는 길이 갈려진다. 이 지역은 높이 20m를 훨씬 웃도는 노송들이 풍치를 이루고 있다. 자생종인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사방용으로 심었던 물오리나무 등이 남산의 소나무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면 차세대 주자로 나설 채비를 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5월초, 용장골 여기저기 큰꽃으아리가 곳곳에 염화미소를 짓고 있다. 모니터 기간 동안 남산 전역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초본으로는 제비꽃 종류를 비롯해 애기나리, 둥굴레, 현호색, 애기똥풀, 산괴불주머니, 솔붓꽃 등이 기록되었다. 큰꽃으아리는 줄기가 3m에 달하는 덩굴식물로, 잎은 새의 깃털 모양을 하고, 꽃은 가지 끝에 1송이씩 달린다.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사찰 조경에 알맞은 우리 야생화이다.

5월은 봄나비들이 가장 왕성하게 출현하는 계절이다. 애기세줄나방, 애물결나비, 네발나비, 뿔나비 등 8종류가 관찰되었다.

함월사 마당에서 만난 길앞잡이는 몸빛깔이 금록또는 금적색으로 빛나기 때문에 '비단길앞잡이'라고도 한다. 개미나 작은 곤충을 주로 사냥하는 육식성 곤충이다. 신라의 세 왕이 묻힌 삼릉 주변은 아름드리 노송들로 그윽하다. 남산의 노송들은 사찰 주변보다 능(陵)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죽은 자는 숲을 지키고, 산 자는 숲을 훼손한다는 명제를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삼릉 소나무의 형질은 우리나라 소나무의 5대 형질 가운데 하나인 안강형에 속한다. 안강형 소나무는 주로 경주와 포항지역에 나타나는데, 수관은 위가 평평하고 줄기가 매우 굽은 소나무이다. 몸새는 신이 내린 듯한 몸부림과 태권무를 추는 흥겨움을 보여준다.

절도 암자도 없는 골짜기에 향내음이 솔바람에 섞여있다. 더러는 관리인도 없는 노천불 앞 저 홀로 타고 있는 촛불도 더러 눈에 띈다. 불자들과 산행객들이 밝혀놓은 것이다. 이렇듯 남산은 항상 불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미 여러 차례 산불 피해를 입었다. 산불감시원도 여럿 있고, 산불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만, 누구든 오며가며 살펴볼 일이다.

삼릉을 지나면 배리삼존석불을 모시고 있는 삼불사와 망월사가 자리한다. 알락할미새 한 쌍이 잡은 벌레를 입에 물고 망월사 경내를 들락거리는 것을 보아 어디엔가 둥지를 튼 모양이다. 남산의 여름철새로는 그 밖에 꾀꼬리, 뻐꾸기, 찌르레기, 벙어리뻐꾸기, 흰배지빠귀, 숲새 등이 관찰되었다.

부처골 감실부처님으로 가는 길에 등나무꽃이 만발이다. 남산에 등나무가 많은 것은 지질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등나무는 뿌리에 스스로 질소를 고정할 수 있어서 토양이 척박한 화강암 돌산인 남산에서도 잘 견딘다.

부처골에서 탑골까지, 형산강의 지류인 남천이 흐르고 있다. 남천은 토함산의 남서사면 골짜기와 남산의 북동사면 골짜기를 발원지로 두 물이 합류해 황남에서 형산강 본류로 들어간다. 남천은 부처골과 탑골 들머리에서 남산과 가장 근접해 있다. 이 구간은 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의 자연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자갈이 간혹 보이긴 하지만, 하상은 거의가 모래바닥이다. 상중류에 몇 개의 저수지가 있고, 중류 아래쪽으로 몇 개의 보가 있다.

남천의 물은 비교적 맑아서 2~3급수를 보여주고 있다. 점몰개와 붕어가 우점한 가운데 피라미, 버들치, 참붕어, 미꾸리, 돌고기, 잉어, 갈겨니, 기름종개, 밀어 등이 나타난다.

아래쪽으로 가면 외래어종인 파랑볼우럭이 나타난다. 일명 '블루길'이라고도 불리는 파랑볼우럭은 미국산 외래종으로, 물 흐름이 느린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 살면서 우리의 고유어종인 붕어, 피라미, 메기, 미꾸라지 등의 토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남천강은 왜가리와 백로류를 비롯해 물떼새류와 도요새류 등 여름 물새들의 고향이다. 꼬마물떼새는 남천의 물새 가운데 가장 멋쟁이다. 꼬마물떼새의 아름다움은 넓고 흰 눈썹선과 매혹적인 황금빛 눈테


공조팝꽃의 꽃무지.


꼬마물떼새


파랑볼우럭.

두리에 있다.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산란을 하는데, 천적이 보금자리 가까이 다가오면 날개를 다친 듯한 의상 행동을 해서 천적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꾀돌이 새이다.

남산은 해발이 높지 않고, 도시에 인접한 데다 산행객들이 많이 찾는 관계로 멧돼지나 삵 같은 대형 포유류는 사라지고 없다. 다만, 가끔 고라니가 산을 내려와 마을 농경지와 남천변에서 관찰된다는 주민들의 증언이다. 남산의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위하여 휴식년제 도입을 건의해본다. 남산 주변의 사찰 진입로는 고맙게도 거의가 비포장길이다. 탑골 들머리에서 옥룡암까지도 비포장길이 계류를 따라 나있다. 그러나 시속 20km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승용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길을 내달린다.

신라 때 신인사(神人寺) 절터로 알려진 탑골의 부처바위에는 불보살과 목탑, 비천상, 반얀나무 등을 조각해놓았다. 그래서 '탑골마애조상군'이라고 부르고 있다. 마치 변상도를 보는 듯하다.

목탑 조각은 고려 때 불태워진 황룡사 목탑을 본딴 것이라 한다. 바위에 조각된 나무는 인도의 반야나무와 망고나무를 많이 닮아있다. 학명이 '뱅골보리수'인 반얀나무는 가지에서 공기뿌리[氣根]가 나와서 땅에 닿으면서 다시 뿌리가 되는 특이한 나무이다. 이는 물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다. 나중에는 공기뿌리가 무성해서 나무가 마치 하나의 숲처럼 변해버린다. 중국에서는 반얀나무를 '용수(榕樹)'라 하고, 이를 '독목성림(獨木成林)'이라 설명하고 있다. 탑골 옥룡사에서 도리사로 이어지는 숲길이 있다. 안강형 소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간간이 리기다소나무도 섞여 있다. 30년생 안팎의 소나무 숲 사이로 키 작은 나무들이 소나무 영토를 잠식하고 있다. 고추나무, 물참대, 노린재나무, 산사나무, 팥배나무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고추나무는 키가 3m 가량 되는 작은 관목이다. 잎사귀가 고추잎을 닮았다고 해서 고추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남산에서는 주로 산골짜기 개울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봄에 하얀 꽃이 피는데, 향기가 좋아서 사찰 주변에 심어도 좋다.

보리사는 동남산에서는 가장 반듯한 고찰이다. 주석하고 계신 부처님도 경주 남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라 부처님이다. 대웅전 뒤로 관목들을 제거하여 산불을 차단하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해두었다. 보리사 주변의 대숲은 남산에서 가장 넓은 대나무 군락지이다. 남산은 출입처가 따로 없어 어디서든 산을 오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좋다. 하지만, 그 때문에 노면침식과 노폭확대가 일어나 산길 생태가 많이 훼손되었다. 특히 통일전, 삼릉, 포석정 등에서 전망대로 가는 구간이 가장 심하다. 그 밖에도,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면 탐방객들의 잦은 발걸음에 의해 나무뿌리가 드러나 눈을 아프게 한다. 산길은 가지가 적을수록 좋고, 노폭이 좁을수록 좋다.

사금갑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서출지는 통일전에서 매우 가깝다. 서출지의 상징인 배롱나무는 아직 때가 일러 꽃봉오리를 다물고 있고, 연못가의 창포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연꽃도 아직은 제때가 아닌 듯하다. 다만, 수생식물인 마름만이 떠 있다.

서출지는 고추좀잠자리, 큰밀잠자리, 좀잠자리 등등 남산 잠자리들의 태실이다. 서출지에서 애벌레시절을 보냈을 가시측범잠자리 한 마리가 막 우화를 끝내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서출지는 수서곤충 뿐만 아니라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에게도 도솔천같은 곳이다. 서출지 무량사 앞에 공조팝나무가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조경수로 쓰이는 이 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포기나누기와 꺾꽂이로 번식시킨다. 공조팝나무에 검정꽃무지들이 앉아서 꿀을 빨고 있다. 검은색 딱지날개에 누런 얼룩무늬가 있다. 봄과 여름이 주로 나타나서 꿀과 꽃가루를 먹는다.

남산에 자라는 식물은 대략 90여과에 450여 종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는 바다가 가까워 해양성기후의 영향권에 있다. 최근 식생조사에서 나도밤나무와 합다리나무 등 난대수종이 관찰되었다.

칠불암 계곡길은 외진 곳이라 발걸음이 비교적 적다. 골짜기와 산기슭에 화강암 바위들이 많다. 남산도 정상과 능선 주위 또는 경사면에 기반암인 화강암이 노출되어 독립된 암봉이나 토어 지형을 이룬다. 남산의 불탑들은 그러한 지형조건과 신라인들의 신앙심이 만나서 이루어낸 결실이다.

현장을 떠난 문화유산은 가치가 떨어진다. 곧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자연환경과 함께 지켜질 때 얻어진다는 말이다. 남산의 불적은 자연환경과 함께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었다. 자연환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산도 야산의 석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시대는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당신의 쉬고 있는 손!
5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전문 카이로 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운동처방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 격 • 초보자 및 실직 · 정년 퇴직자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6월 7일 (선착순 20명)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진실하게 내 안으로 날날이 굴려놓으세요!

마음공부 한 사람이 죽는다면…

문 마음을 닦는다고는 하는데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이 다하기 전에 제 마음을 다 닦아서 근본을 밝힌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 마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다가 간 사람과 나를 밝히고 간 사람의 차이점을 설해 주십시오.

답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꼭 이 공부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이렇게 내 안으로, 날날이 안으로 굴려서 안으로 돌리는 것, 이 생활하는 모든 것, 죽고 사는 것 생사윤회를, 모든 것을 이 내 마음 안으로 돌리는 데 그 묘미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돌려놓으라고,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죽을 때는 죽기 전에 자기 갈 자리를 자기가 다 마련해 놓고 가요. 이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요점이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몸을 벗을 때도 몸을 벗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벌써, 정자와 난자를 좇아서 자기가 어디를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열 달 내내 길러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딱 끊어지면요, 사람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큰 생명이 된다든가 이런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꼭 사람으로만 비유하지 마세요. 사람 이외의 정말 벗어난 선인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정망해서 다 해 놓습니다. 또 사람이 된다 하면 만 아홉 달이 걸려야 되지만 만 아홉 달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 쓰는 거지 딴 데서는 만 아홉 달이라는 게 똑같이 쓰여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그쪽으로 가고 이 옷은 벗어요. 사람으로 내가 화한다 할 때는 내가 목숨이 한 찰나에 딱 떨어질 때, 벌써 그리로 가는 겁니다. 이건 벌써 미리 가 있어요. 벌써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홉 달 내내 길러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기는 사는 그 습만 있다 뿐이지 자기가 길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선처해서 그리로 가서 자기가 벌써 자기를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 길잡이는 자기죠. 자기 이외에 길잡이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공부를 안 한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가 자기 개척을 못하고 자기가 길을 모르고 컴컴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누가 인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자기의 그 습이 있어서 눈이 캄캄하니까요. 그래서 살던 습에 의해서 자기가 착을 두고 있는 데에 그냥 머물러 버리죠. 그래 거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때에 따라서는 영계는 집에서 산 사람한테 뱅뱅뱅뱅 돌게 되고, 자식이고 부모고 뭐 누구를 막론하고 얘기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집안의 친척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은 몰라도 그 길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에 의해서 뱅뱅뱅뱅 돌아다니죠. 자기에게 더 잘해 준 사람 앞에, 또는 자기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해서 남 논등에 주저앉는 법도 있죠. 저희 집 식구들이 시원치 않고 그러면 친구한테로 가거든요. 이게 문제가 참,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바깥으로만 만날 돌고 다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길을 자기가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내가 길을 인도 받아야 할 텐데 그 은사도 똑바른 사람을 못 뒀다면 그마저도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캄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슨 개집이나 새집이나 족제비 소굴이나 돼지 소굴이나 뭐 이런 데로, 소 외양간 뭐 이런 데로 그냥, 그냥 떠지는 거죠. 또 요행히, 자기가 마음이 착해서 참 요행히 걸린다면 사람이 어떤 차원을 가진 줄도 모르게 그냥 그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십중팔구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도리를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열 사람이라면, 컴컴한 그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열 명 중에 두 명 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인간에게도 이득이 없고 사회에도 이득이 없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예전보다도 너무 잘 알아요, 세계를. 예전엔 그렇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알고 있는 자기가 벌써 계발이 된 겁니다, 본래.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아이구! 난 저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러는 건 그냥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잠재의식 속으로 가서 컴퓨터에, 자연 컴퓨터에 가서 저장돼 있거든요.

그러니 왜 이득이 없느냐 하면 자기가 이 도리를 모르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박혀 있는 대로 길이 갈 것이고, 자기가 자유권을 갖고 자유자재한다면 그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미리미리 그렇게 다 해서 한 찰나에 딸칵 하면, 자기가 옷만 딸칵 벗는 거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옷을 벗으려면 홀홀 그냥 벗죠. 그 순간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 놓는 거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한 사람에게는 '길다, 짧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공부를 한다면 '한 찰나다' 이럴 때 이쪽에서의 한 찰나는, 한 찰나는 한 찰난데 이 집으로 들어가느냐 저 집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열 달이 걸리고도 한 찰나다, 일 초가 걸리고 열흘이 걸렸다 또는 아홉 달이 걸렸다 이래도, 만약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믿고 다니던 길잡이가 있다면 벌써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막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즉시! 그런데 막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홉 달이 됐다 하더라도 일 초로 축소한단 말입니다. 이건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뜬 사람 하나 만나기가 극히 어렵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 만나면 이익이,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 사람 하나 만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디?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 하나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이 공부는 꼭 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이 있을 뿐 아니라 타의에서 구하면 절대로 그것은 세세생생에 해로운 것이 닥쳐온다는 얘깁니다. 왜냐? 그것이 습의 인과가 돼서 그게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 한번 잘못하는 까닭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는 바람에 그만 자기가 씨를 뿌려 놓은 거까지도 그냥 몇 대조까지 내려가는 거죠, 뭐. 그러니 글쎄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그냥 그저 기도나 하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식구가 다 금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죠.

모두들 보면 '아이, 우린 장사를 하기 때문에 못 오고, 바빠서 못 오고….' 이러시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가게 문 잠가 놓고도 왔다가 가는데 그렇게 가도 하루 종일 열어 놓고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 합디다.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이 공부 하는 게 제일 인간으로선 급하죠. 먹고사는 문제도 그건 이차죠. 그렇다고 해서 굶고 벌지 말고 다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버는 거 벌면서도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상생활의 참선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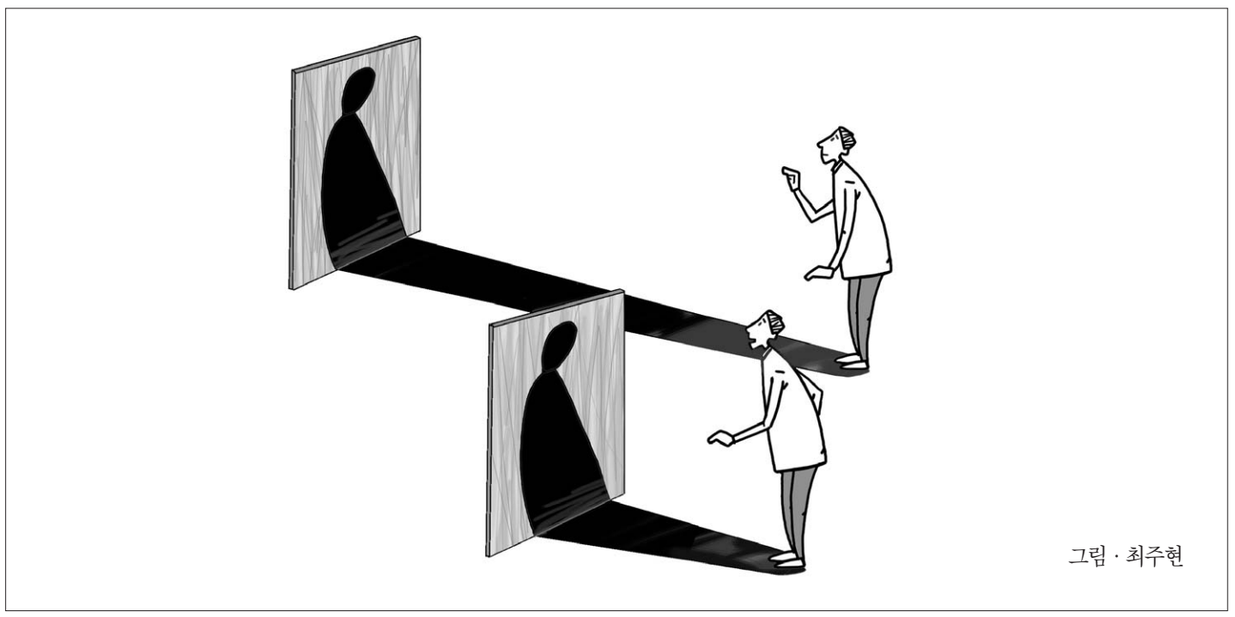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남편을 믿지 못하겠어요

문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실천을 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가 26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혹여 밖에서 또다시 그 여자와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대문 밖을 나가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고 직장에 나가도 걱정이 되고…,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에 대한 마음을 쉴 수가 있겠는지요?

답 아주 간단해요. 지금 그런 데서 행복하다 못해 지겹죠? 사랑은 주는 게 사랑이지 끌어 잡아당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거를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자기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었다면 남편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 잘하든 못하든 자기 탓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묶어 놔 보세요. 더 끊고 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냥 확 풀어 놓으면 아주 자동적으로,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상상하고 그러지 말고 따뜻하게 그냥 다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서로 똑같이 그러란 말이에요.

똑같이, 부인이 잘못하는 거는 남편이 '이것도 다 내 탓이야. 주인공, 너만이 저 사람 그렇지 않게 해!' 하고 자유를 주고, 또 댁은 남편에게 그렇

☞26면으로 계속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오시는 길 ▷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www.visitkumgang.co.kr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내금강 성지순례 할인행사

불기2552년 부처님오신날과
금강산 내금강성지순례 출발 1주년을 기념하여
불자여러분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개최합니다.
큰스님들의 자취와 부처님의 법향 가득한 내금강 및 개성지역
불교성지순례 행사에 불자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바랍니다.

주요노정 (내금강)표훈사 -보덕암-묘길상-마하연사터-삼불암-백화암터-장안사터-(외금강)신계사
동참비용 44만원(정상가) -> 42만원(기본 할인가) * 식비(현지 중석식), 집결지교통비 별도
신청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칼라사진 1매 , 신청서(연락처, 직장/직위 기록)

1. 할인해택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불자 기본 5% 할인 해택, 장애우 경로자 20~30% 할인
- 사찰 단체 추가할인 적용

2. 사찰별 맞춤 서비스 제공
- 당일부터, 1박2일, 2박3일, 3박4일 등 사찰 및 단체에 적합한 별도 노정 가능
- 현지 식사 및 전세버스 섭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우란분절 (백중)기념 금강산 삼사순례 특가 행사 (8.01 ~ 9.30)
- 건봉사, 화암사, 신계사 참배 순례 (1박 2일)
- 1인당 19만원 (30인 이상 출발 가능 , 전세버스비 별도)

문의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팀 (02-3210-1237)
* 발생되는 수익은 불교문화 진흥기금으로 쓰입니다

내가 나기 이전을 내가 있는 데서 찾으라!

☞25면에서 계속

게 하면서 자유를 주세요. 주인공은 둘이 아닌 까닭에 어디를 가서 뭘 행해도 그냥 주인공에서 알아지고 주인공에서 자동적으로 다뤄 줍니다. 다스려 준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가 말로 행동으로 온통 붙잡으려고 하니 붙잡아지나요, 그게?

그리고 우연히는 없어요. 이 세상에 금은 금방에 모이고 넝마는 넝마전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전에 모입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끼리끼리 모였는데 누구에게 죄가 있고, 누구의 죄는 더하고 덜하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하, 이것도 내 탓이고 저것도 내 탓이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무엇이 걸림이 있고 무엇이 상대가 있으랴!' 하곤 그냥 다 거기다 놓으라고 지금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마음 거기다 놓고 미워도 밉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밉다고, 아주 보기 싫다고, 또 그냥 아주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하면 당신이 외려 마구니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부터 '미운 것도 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밉지 않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뒤집어서 돌려서 입력을 해야 그 입력 들어간 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알았지요?

물욕을 다 놔야 깨닫는지

문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또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고 직업도 좀 편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남들 부모님보다 좀 더 잘 모시고 싶은 이런 속된 마음에 휘둘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를 깨닫는 입장에서는 물욕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놔 버리고 살 수 있어야만 참도(眞道)를 깨닫는 것인지요? 이런 속된 욕심에 끄달려 다니면서도 어떻게 공부를 하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답 내가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거기에 걸려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구덩이가 있으면 거기를 메워 가면서 넘어갈 것이고 앞산이 있으면 물은 돌아갈 것이고, 그건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이면서도 그건 '우연히'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도 불교를 참되게 믿을 수 있으며 참선을 할 수 있으며 참나를 찾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 말하자면 손 하나 움쭉거리는 거 또는 생각 한 번 하는 거, 자고 깨는 거, 먹고 일하는 거,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나쁜 거 좋은 거를 떠나서 우리한테 주어진 대로 지극하게 사는 그 자체가 공했다는 얘깁니다. 불법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물감을 삼십 가지를 갖다 놨는데 우린 지금 그 물감 삼십 가지를 놓고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흰 거 쓸 때도 있고 노란 거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노란색이 따로 있고 흰색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우리 생활이 이게 전부 불법이지 생활 떠나서 뭐가 있습니까?

>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 이 마음공부 하는 게 제일 인간으로선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십 가지의 물감을 쓰되, 우리 생활입니다. 삼십 가지의 물감을 쓰되 바로 내가 고정되게 하나만 쓰지 않으니 그 삼십 가지의 물감 속에 나까지 공했다는 얘깁니다. 쓰여지는 것도 공했고, 쓰는 나도 공했단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물감 자체도 진짜 물감이 어떤 건지 이름 지어서 말할 수도 없고 또 삼십 가지의 물감을 쓴 나도 어떤 거 쓸 때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공했고, 그러니 이 전체가 한데 합쳐서 모두가 공했다는 얘깁니다. 우리 생활입니다, 그게 전부.

'어떤 거를 해야만이 내가 불법을 준수하고 믿고 숭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대로 찰나찰나 나투어서 화해서 돌아가는 게 그대로 참선이며 행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난 게 그대로 화두입니다. 공했으면서 그대로 화두고 그대로 색이면서 그대로 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안 떠나고가 있습니까? 도대체 부처님이 어디 고정되게 형상으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이라고 이름이 돼 있는 것이 부처님입니까? 그러면 허공이 부처님입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계신 거고 법당에 올라가면 법당에 계신 겁니다. 여기 와 앉아 계시니까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이렇게 탁 부딪힐 때는 대뇌로 해서 통신이 전체로 돌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습도력이나 원자도력이나 통신력이나 또는 무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도리를 모르고서 그대로 생각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기 이전과 더불어 이전도 없고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렇게 같이 들어서 돌아갈 수 있어야 우주와 더불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한생각이 법이 돼서 그대로 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도 물질과학 또는 유전자도 거기까지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간이 그렇게 많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진화돼서 나타난다는 그런 거까지는 알 수 있으나, 무전자로서 그렇게 없앨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성은 우리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의 도리를 알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진리의 도리를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참나를 알아 가지고, 세상 도리를 알아 가지고 우주의 도리를 안다면 '전체 둘이 아니라' 이랬을 때, 우리는 우주도 발전함으로써 우리 지구도 발전할 수 있고 내 몸도 발전할 수 있고 내 가정도 발전할 수 있고 내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물질로만 생각을 하시고 '아,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남이 하나도 모르고 있어도 모두 장본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딴 사람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설계가 나와야 이제 몇 사람 알게 되죠. 그게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딴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루에서 유루로, 유루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러니 불교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합쳐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게 불교입니다. 죽은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이나 찾고 죽으면 천당에 가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이때,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없는 게 후일에 천당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 내내 일을 안 해 놨는데 새 달에 월급 탈 게 있을까요? 에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요, 돈을 갖지 말랬나요? 살림을 하지 말랬나요, 고관직에 있질 말랬나요? 자기 분수를 지켜서 너무 과도하게 가지 말아라. 그러면 빠진다. 분수를 지켜라. 분수를 지키면서 너무 욕심 차리지 말고, 너무 욕심에 착을 두지 말고 나라는 데 착을 두지 말고 모두가 나 아님이 없다고 그렇게 둥글게 살아라. 그런데 억지로 가는 거를 붙잡아서 내가 권리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자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수를 지키면서 둥글게 삶으로써 우리는 가는 거 잡지도 않고 오는 거 막지도 않고 스스로 둥글게 지혜롭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를 삼아서 그 한마디 한 행이 그대로 법이 되고 그대로 생활이 되고 그렇게 생동력 있는 삶의 보람을 느낄 거다 이겁니다.

영원토록 마음의 등을 켜고 싶어

문 지난주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절에 가서 불을 밝히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을 정해서 불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내 마음의 불을 밝혀야 진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참 기특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스님, 영원토록 마음의 등을 켜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인등을 항상 켜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오늘, 오늘조차도 내세울 수 없는 내 마음의 등불, 이 등불로 앞장을 설 수 있고 밝혀 줄 수 있지만 이 등불이 없다면 컴컴한 암흑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돌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로 억겁을 거쳐 온 그 습을 하나도 떼지 못할 겁니다.

종 문서는 내려놓고 다니나요? 짊어지고 다니지. 작년 콩씨를 심었을 때 그 콩나무로 다시 화(化)한 것뿐이지. 그리고 콩나무는 콩씨를 또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콩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 문서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지 과거의 업이 있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나 나기 이전을 나 있는 데서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화두도, 자기가 나왔기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지 자기가 그대로 그릇이 빈 그 자체가 바로 화두며 자기가 거기에서 한 점의 불씨를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딴 데서 오는 것같이, 딴 데서 주는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기 불씨가 밝아져야 그 불씨를 보고서 부처님께서도 같이 한마음이 돼 주시겠지만 암흑세계에서 그대로 돌고 부처님의 불빛을 보려고 안 하는데 어찌 부처님이 자꾸 도망가는 놈을 붙잡아다가 '이 불빛을 봐라, 불빛을 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고 계시지만 자식을 기르는 데도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말로 하고 모습으로 야단을 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이름해서 그 한 점의 마음에다 전화통 돌리듯이 거기다 맡겨 놓고 '아, 내 한마음이 바로 애의 한마음이니 내 한마음이 이러한데 애의 한마음도 자기 육신을 끌고 길잡이가 돼서 잘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진짜로 믿으면, 그대로 나와 같이, 내 맘과 같이 생각한다면 잘 갈 것을, 괜히 말로 욕하고 때리고 온통 야단을 벌이니까 집안만 혼란해지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되고 가정은 파괴가 되고 언제나 상을 찌푸려야 하고, 그러니 복은 들어오지 않고 공덕도 될 수 없고 이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만날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줬지, 내가 받았지, 내가 살지, 내가 아프지, 내가…, 만날 '나, 나, 나, 나' 하니까 이놈의 잠재의식 카세트에 그냥 얽히고설켜서 감겨 가지고 각본대로 나오죠! 영화배우들처럼 도깨비장난처럼 그냥 각본대로, 나오는 대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탄을 하기를 '아휴, 내 팔자야!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건만 어찌 팔자 운명이 이렇게 가혹한가.' 하고선 한탄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과거도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작년 콩씨를 올봄에 심었더니만 콩나무로 화하고 콩나무에서 콩이 열렸습니다. 그랬으니 그 작년 콩씨가 작년 콩씨대로 따로 있고 올 콩씨대로 따로 있고 올 콩나무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인생이 태어나면 그대로 화두요, 내 몸 나온 것이 화두요,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생활이 그냥 참선이니까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그대로 참선이요, 그대로 한 치도 일분일초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시공이 없는 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밝음! 그래서 마음의 등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아 천하없어도, 바람이 불어서 온통 나무가 쓰러지고 불이 다 꺼져도 마음의 불이라는 것은 꺼지질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태양! 마음의 등불! 그 등불은 끊어짐이 없이 지금 켜져 있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지금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을 항상 켜셔야 합니다. 이러한 등을 켜시는 것이 우리에게 공덕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갖게 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되고, 세세생생에 이 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관상학最高의 秘書
면상비급
절찬리 판매중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관상학의 비법수록!!
관상학의 완결편!!



4×6변형판 / 432쪽 / 값 25,000원

▣ 관상학을 배우면?
첫째 자신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자신과 고객이 차별화되어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지향할 수 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고객중심의 상담을

▣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 매주 일요일(오전 10:30~13:00)
문의전화 02)929-4646

기업은행 041-055985-02-010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청학출판사

한글한문(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묵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이 의식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초심자나, 정확한 의식이 필요한 전문가 모두, 다른 페이지를 찾지 않고 모든 의식을 집전하실 수 있습니다.

新刊 通用佛教·齋禮儀範 案內

○ 불교의범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송주편	제 2장 예경편	제 3장 전각예경편
제 4장 불공편	제 5장 모든법회	제 6장 방생
제 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제 8장 점안편	제 9장 이운편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 재례의범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시식편	제2장 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장 四十九齋	제5장 재공편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婚篇		



불서총판 책나라 02)739-7451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제의 책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 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읽고나면 일체의 고통과 절망의 시름과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서 마침내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불자 세상보기

백 남 석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생명의 강 100일 순례를 회향하며

석가모니부처님은 가비라성 밖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고, 마가다국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셨다. 그리고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셨으며, 구시라성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하셨다. 석가모니부처님이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위해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부처님처럼 뭇 생명의 젖줄이자 어머니인 생명의 강을 잘 모시겠다고 서원한 순례자들이 추위와 더위, 눈보라와 비바람을 묵묵히 견디고 맞아가며 생명의 강을 따라 지금 이 시간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걷고 있다.

스님, 원불교 교무님, 목사님, 신부님 등 수행자와 성직자가 중심이 된 순례단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운하백지화'가 5월 24일 백일순례 회향 전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최근 중국 쓰촨성의 강진 발생으로 충칭직할시가 17개 댐 붕괴를 우려해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장옌시 북쪽에 위치한 지핑푸댐과 고대 수리시설 가운데 하나인 위쭈이 제방에서 균열이 발견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댐이나 운하 등 인공적인 수로사업은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므로, 최소한 수 년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철저한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해야만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면이 바다이면서 산지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3000만 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식수원의 수질오염, 하천생태계와 주변 환경의 파괴, 운하예정지 주변의 문화재 파괴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치밀한 조사와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만을 외치는 여론몰이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찰스 울프 미국 사회영향평가소장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주최한 '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 토론회 발표를 통해 "대운하 사업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안조차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울프 소장은 "사전환경성 평가와 전략환경평가와 같은 환경법령은 정말로 필요한 규제들"이라며 "대형 사업일수록 더욱 세심한 평가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대운하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대운하만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오히려 다른 곳에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고 의문을 던진 바 있다.

지금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문제인 듯하다. 광우병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문제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수원의 수질오염을 비롯해 홍수 등 자연재해와 직결된 운하문제 역시 수입쇠고기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덜해 걱정이다.

<지장경> '분신집회품'에 보면,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남자나 여자의 몸뿐만 아니라 산이나 숲이나 냇물이나 들과 강이나 못이나 샘이나 우물 등의 분신(分身)을 내어 중생을 이익 되게 하고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범망경>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가운데 제20 경계(輕戒)는 '생명을 구제하라(不能救生戒)'는 것으로, "일체의 흙과 물은 다 나의 먼저 몸이요 일체의 바람과 불은 다 나의 본체이거니 산 것을 풀어서 살려주라"고 했다.

냇물이나 강은 중생을 이익 되게 하고 해탈케 하는 부처님의 분신이며 흙과 물은 나의 먼저 몸임을 알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시고 일깨워주신 도법 스님, 수경 스님, 연담 스님, 지관 스님께 깊은 존경의 예를 드린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의 백일순례가 5월 24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회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불자의 눈

해외 재난에 침묵하는 종단들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기스 대재앙에 이어 중국 쓰촨성에서도 대지진이 발생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다. '자연의 역습'이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재앙의 현장에서는 눈뜨고 보기 고통스러운 모습이 연일 연출되고 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매일 수없는 주검을 보며 느껴야 할 공포는 외신이 전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조계종과 천태종이 미얀마와 중국에 재난이 발생하자 애도문을 발표하고 성금 모금에 돌입했고 로터스 월드와 JTS 등의 단체들도 모금운동과 현지 구호활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같은 불교계의 움직임 속에서 조계종과 천태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단들은 침묵하고 있다. 현재 불교종단협의회에는 30여 종단이 가입돼 있다. 그런데 두 종단이 해외의 참상을 애도하고 자비의 손길을 보내자고 호소하고 있고 나머지 종단은 침묵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종단이 애도문을 발표하고 성금 모금을 하기 어렵다면 종단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잠잠하다. 이를 어찌 봐야 할 것인가?

우리 불교계가 사회 현안을 불자의 눈으로 읽고 불자의 가슴으로 참여하는데 미숙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지구촌 생명들의 고통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는 각 종단의 '안일주의' 내지는 '미흡한 사회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종단들도 규모와 상관없이 보다 넓은 안목을 갖춰야 한다.

불서 읽기 지금이 '절호의 찬스'

'불교'를 담은 책들이 부쩍 많이 출판되고 있다. 그간 경전의 내용을 풀어 쓴 책들과 스님들의 수행기 등이 불서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최근에 나오는 불서들은 웰빙과 응용불교 해외 고승들의 법문, 산사기행, 문학서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불교관련 서적이 많이 출판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불교전문출판사들이 활발하게 출판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간 일반서적들을 제작하던 출판사들도 불교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형출판사들이 불교관련 서적 기획에 경쟁을 하고 있고 필자와 소재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불교서적의 양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불교전문 출판사들이 바깥의 대형 출판사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쟁은 패자를 낳기도 하지만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불교출판계의 앞날은 희망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독서인구다. 불교서적이 많이 출판되는 이 시점에 불자들이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불교책 내면 실패는 면한다'는 공식이 출판계에 정착될 수 있을 정도로 불자들이 책읽기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문서포교의 층도 두터워지고 불자들의 교양과 의식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사찰의 도서관 설치, 스님들의 적극적인 독서권장, 교육현장에서의 독서지도 등이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다.

마음의 사슬

"사는 게 지겨워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보살님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한다. 한참 그 분의 말씀을 듣다보니 내 가슴도 답답해졌다. 악연의 사슬에 묶여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생각하다 보니 사슬이라는 말이 깊이 다가온다. 인연의 사슬에 갇힌 감옥 같은 삶 그러다가 실제 육신의 감옥인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보게 되었다. 이 불자재소자는 부처님 법을 만난 후에 점점 마음의 사슬을 벗어나고 있는 중이었다. 몸은 자유로우나 마음의 감옥에 사는 보살님과, 몸은 매어있으나 마음은 자유인이 되려고 정진하고 있는 재소자의 삶이 대비되어 비쳐졌다. 다음은 재소자의 편지 중 일부이다.

메마른 가슴에 법비를

그리운 법사님께

일요일 아침입니다. 머나먼 서울에 계신 미소가 아름다운 법사님께 펜을 들어 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교도소에 체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손에서 책을 놓고 운동장에 나아가 같은 팀을 응원하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요. 가슴 속에 쌓인 삼독의 분진들이 소리에 묻혀 멀리 날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아 보았습니다. 법사님 말씀대로 다른 한 권은 신심이 돈독하신 법우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록 작지만 알찬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을 보고 모두 발심하여 대비 서원을 성취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것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64 마음으로 지은 감옥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이 하나도 없어야만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이나 아촉불의 12원, 보현보살의 10대원, 약사여래의 12원, 법장보살의 48원 등은 저희 불교를 알고 믿는 불자님들이라면 스스로 갖는 약속 또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대비원을 세우셔서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혹한 중생도 늘 밝은 원을 세워 다겁생에 익혀 온 무명의 습기를 털어내고자 하지만 습의 힘이 너무 강하여 시시 때때로 이 육신이 이끄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길로 자꾸만 들어서려고 합니다. 제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밑바닥부터, 근본 뿌리부터 잘 살펴 자각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업의 굴레를 만들어 고의 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겠지요.

어느 책에선가 보살이 한번 성내는 마음을 극복하려고 천 년을 지켜보았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 듯합니다. 하물며 저 같은 무명 중생이야 말해 무엇하겠는지요. 다만 순간순간 일어나는 원인을 주의 깊게 살펴 순간적인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 제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욱 발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노력한 땀의 대가를 소중히 여기고 저의 육신을 계로서 깨끗하게 하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올바로 사유하며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습으로 육신을 길들여 평생의 어두움을 씻어낼 길이 없겠지요. 밝고 지혜로운 이는 깨끗한 습으로 자기 자신의 습을 잘 항복받아 청정 불국토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법사님! 차 한 잔이 고맙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찻잔이라야 보잘 것 없는 플라스틱 컵이지만 물을 따르는 소리와 함께 차의 향기를 맡으며 입 안에선 차의 맛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찻잔의 온기를 손끝으로 모아 쥐어 함께 모여 앉은 동료 수용자들의 따뜻한 마음도 같이 마십니다. 법사님! 잘 만들어진 찻잎이 맑은 물을 만나 제 몸을 풀어내듯, 이 부족한 중생의 마음이 우러나서 한데 어울려 사는 지혜를 배우고 마음을 맑혀 많은 이들의 메마른 가슴을 법의 비로 촉촉이 적셔주는 그런 불자가 되겠습니다.

법사님께서도 가끔씩은 바쁘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깊은 향과 맛이 우러난 차 한 잔의 시간을 갖는다면 마음이 더욱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리라 봅니다.

그럼 법사님, 푸른 하늘만큼이나 청명하고 좋은 날만 이어지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맺을까 합니다. 법체 평안하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자 00 두 손 모아 올립니다.

마음의 해방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감옥은 바로 마음이다. 스스로 얽매는 마음이며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셨다. 이 밝은 초여름에 혹시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감옥을 지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다. 마음으로 지은 감옥은 오직 마음의 열쇠로 열고 나와야만 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마음의 법칙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행복한 5월, 부처님의 환한 지혜를 들려주세요

취학전 아동, 저학년 추천

1. 동양의 이솝우화, 백유경 시리즈



[백유경시리즈 1] 광대와 화가
최가민 글 · 박지매 그림 | 36쪽 | 9,000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백유경시리즈 2]
최가민 글 · 혜경 그림 | 40쪽 | 9,000원

불교교리를 우화로 재미있게 풀어 쓴
책 마르지 않는 샘처럼 부처님의 즐거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학년 추천

2. 아이들을 위한 부처님 일대기



우리에게오신 부처님
이슬기 글 | 스튜디오돌 그림 | 172쪽 | 9,800원



얘들아, 절에 가자
홍주연 글 | 이경택 그림 | 160쪽 | 9,000원

절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신기하고 재밌는 보물이 가득한 곳!

〈예스24〉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인터파크〉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교보문고〉 불교분야 주간베스트 1위

"우리나라 절의 아름다움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글·사진
292쪽 | 12,000원

전국 사찰의 유 · 무형 불교문화와 문화재를 상세하게 소개한 책
–동아일보

이번 책은 10년간 100여 사찰을 답사한 저자의 성과물이다.
–조선일보

고찰은 문화재의 보물창고다. 궁금한 것도 한 둘이 아니다. 이 책을 보노라면 의문점이 저절로 풀리면서 불교가 가깝게 다가온다.
–세계일보

『조계종출판사』는 삶의 곳곳에 존재하는 불교의 향기를 한 권의 책으로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8층 | Tel 02-733-6390 | Fax 02-720-6019

조계종출판사 | 인연 아름다운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의 물에 타서 쓰는 향탕수 개발!!

관불수향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灌佛杉香

관불수향(약 20㎖ 약 50회 정도 사용 분량) • 가격 : 120,000원

관불수향은 그 재료 자체가 피부보호 기능이 뛰어난 전단과 침향이 주 재료이므로
따로 스킨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보습 효과와 아로마 요법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관불수향은 사실, 저희로서는 이익이 될 수 없는 사업이었으나 불교문화 발전을 위하여 고심끝에 출시 결정을 내린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여러 사부대중께서 저희 노력과 노고를 깊이 치하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심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 스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더욱 노력하고 애쓰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원향 지장보살 침향 반가사유상



능인향당의 전제품을 박람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박람회 일정〉
2008.5.22 – 5.25 광주 세계차 홈데코전시회
2008.5.29 – 6. 1 대구 세계차문화축제
2008.6. 5 – 6. 8 서울 티월드페스티발
2008.9. 5 – 9. 8 서울 불교박람회

능인향당 은...

인연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미래의 용화삼회에, 최상의 공양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교류, 연구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능인향당은 인체에 가장 해가 적고 순수한 원향을 제조하여 2007년부터 국내에서도 시판하였습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침향을 원산지인 비나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여 침향불상과 공예품인 염주부터 복장공양물의 최고 결정체인 기남 등급까지 16등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료 관련 국제 특허 3종과 불교용품에 관한 국내 특허를 다수 취득하였으며 인도와 캄보디아 등 불교의 성지를 직접 돌며 구한 신목으로 불상을 조성하고 있으며 불가의 최고 공양물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능인향당 能仁香堂

본사 :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홈페이지 : www.nihwa.com 직영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95-2 조계사 앞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400여과, 10대 제자를 비롯한 500아라한의 사리 2,000여과, 한국의 성철 큰스님을 포함한 세계 고승들의 사리 등 총 39위(位)의 사리 3,000여과를 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삼세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_서울 불자를 위한

부처님 진신사리 서울(상원사) 친견 특별 대법회

2008년 5월 23일 ~ 5월 25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1031-1 상원사

| 주 최 |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 주 관 | 한국불교 태고종 대림2동 상원사
| 문 의 | 상원사 종무소 TEL. 02)833-0374~5
| 후 원 | 한국불교 태고종.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신문사

| 상원사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6번 출구 도보 10분거리
| 안 내 |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